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심층분석 II

임소현 | 김태선 | 안진아 | 이은설 | 정애경 | 최계원



연구책임

임소현 | 정책연구팀 연구위원

공동연구

김태선 | 아주대학교 교수

안진아 | 강원대학교 교수

이은설 | 인천대학교 교수

정애경 |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최계원 | 숙명여자대학교 박사

제2장 「중장년의 고용가능성 및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분석: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 생애설계준비 유형 비교를 중심으로」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중장년의 생애이해와 생애영역 설계관리 변수를 중심으로 중장년의 생애설계준비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함. 또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 참여자와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고용가능성과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실증하여, 재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함.

▣ 분석 자료 및 절차

-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실태조사 자료 10,827건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위한 관찰 변수는 생애설계준비 관련 30문항, 영향변수는 개인 특성 변수, 심리적 자원 특성 변수, 가정환경 특성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함.
- 이 연구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잠재 프로파일 분석으로 재단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를 구분하여 중장년 생애설계준비를 유형화하고, 일원분산분석, 교차분석,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유형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유형별 특성 탐색하였음.
 - 다음으로 결합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재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유형별 고용가능성과 삶의 만족도를 실증하고,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재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음.

▣ 연구 결과

- 생애설계준비를 유형화하기 위해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단 사업 참여자는 다른 계층에 비해 생애설계준비의 모든 지표가 낮은 수준을 보이는 ‘생애설계 참여노력형’, 생애설계준비 모든 지표가 전반적으로 중위 수준의 양상을 띠고 있는 ‘생애설계 참여적극형’, 생애설계준비의 모든 지표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생애설계 참여완성형’의 세 집단으로 유형화됨.
- 재단 사업 미참여자는 다른 계층에 비해 생애설계준비의 모든 지표가 낮은 수준을 보이는 ‘생애설계 노력필요형’, 생애설계준비 모든 지표가 전반적으로 중위 수준의 양상을 띠고 있는 ‘생애설계 자율노력형’, 생애설계준비의 모든 지표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생애설계 자율완성형’의 세 집단으로 유형화됨.
- 재단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고용가능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유사한 생애설계준비 특성을 지닌 두 개의 집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결합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분석 결과, 생애설계준비 하위와 상위 집단에서는 사업 참여자 집단이 미참여 집단보다 고용가능성이 높았음. 반면, 생애설계준비 중위 수준인 두 집단에서는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 재단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유사한 생애설계준비 특성을 지닌 두 개의 집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결합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분석 결과, 생애설계준비 상위 수준 집단에서는 사업 참여자 집단이 미참여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음. 반면, 생애설계준비 중위 집단과 하위 집단에서는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 재단 사업이 생애설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사업 중 생애설계진단 및 상담과 생애·경력설계 교육 프로그램이 생애설계준비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결론 및 제언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재단 사업 참여자가 미참여자보다 생애설계준비도가 높게 나타난 만큼 다양한 계층의 중장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참여자 확대를 위한 홍보가 필요함.
 - 재단 사업 중 경력설계 지원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즉 ‘경력설계 T.R.I.P 프로그램, 경력설계 상담, 직업역량강화 교육’의 내실화와 고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상담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생애설계준비는 고용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재단 내 다른 프로그램 또는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함.

제3장 「서울시 중장년 경력적응성 모형 검증: 40대를 중심으로」

▣ 추진배경 및 목적

- 40대 성인의 진로전환 및 경력적응성과 관련된 변인의 탐구가 필요함.
 - 인구고령화, 무한경쟁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체계의 전환으로 인한 중장년층의 적응적 삶을 위한 생애설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위한 학문적 이해와 기반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 연구는 서울시 40대 성인 남녀의 경력개발과 경력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과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 이를 위해, 진로구성주의 이론의 경력적응성(Career Adaptability) 모형을 검증하고 향후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연구 내용 및 방법

-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40대 성인 남녀의 경력적응성 모형을 검증하였음.
 -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실태조사]의 문항을 재구성하여 경력적응성 척도를 개발하였음.
 - 기초 조사에서는 40대 성인 남녀의 재직 유형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경력적응성, 생애설계준비,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함.
 - 연구모형인 경력적응성 모형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경력적응성 자원, 생애설계준비와 자기효능감의 적응적 반응, 삶의 만족도의 적응적 결과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검증함.
 - 서울시 40대 성인의 성별과 재직상태를 기준으로 4개 집단으로 분류하고 경력적응성 모형에 대한 다집단 분석을 수행하였음.

▣ 연구 결과

- 성별을 기준으로 한 주요 연구 변수에서는 경력적응성의 자신감 요인에서 40대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변수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서울시 40대 성인을 현재 재직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검토한 결과 주요 연구 변인 중 경력적응성, 생애설계준비,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현재 재직상태인 성인으로 구성된 집단이 과거 재직 경험자 및 미취업자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력적응성, 생애설계준비,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를 보임. 이는 현재 재직 중인 집단이 생애설계준비와 자기효능감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결과임.
- 또한, 성별과 재직 유형을 기준으로 6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연구 변수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재직 유형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특히 40대 비재직자 집단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
- 경력적응성 모형 검증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적절하였고 이는 이 연구에서 상정한 경력적응성 모형이 서울시 40대 성인의 자료를 설명하는 데 적절함을 나타냄.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직접적 경로를 제외하고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변인 간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인내력 부족이 경력적응성을

높이는 경로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시사함. 생애설계준비가 삶의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높이기 보다는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진시키는 경로가 확인됨.

- 성별과 재직 유형을 기준으로 4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모형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제외하고 집단 간의 다른 경로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음. 이는 성별과 재직 유형을 모두 고려한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 시사점 및 개입 방안 제안

-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제공되는 <이·전직을 준비하는 40대 직업전환 프로그램>, 특히 <경력 설계 상담>, <(찾아가는) 경력설계 프로그램>, <경력설계 기초 진단 및 맞춤 상담>, <40대 직업전환 지원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 <취업 컨설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음.
-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별과 재직유형별 적절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음.

4장 「경력전환기 중장년 재직자 및 퇴직자 집단별 경력지원 방안」

▣ 추진배경 및 목적

- 중장년 경력전환기 복잡다단한 생애요소를 포괄한 통합적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개입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2023년 조사한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중장년을 재직자와 퇴직자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별로 중장년기 핵심생애지표 수준에 따라 하위 집단을 세분화하여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문헌 검토를 통해, 중장년 경력전환기 핵심생애지표로 경제, 건강관리, 심리, 경력지표를 선정하고, 이들 4개의 지표를 분류 변인으로 하여 재직자 및 퇴직자 집단에 대해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하고 잠재 집단별 특성을 분석함.
 -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실태조사]에서 ‘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란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재직자 1,287명, 그리고 과거 재직자(퇴직자) 534명을 선택하여, 핵심생애지표를 바탕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함.
 - 도출된 재직자 집단 4개와 퇴직자 집단 3개의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검토하고, 집단별 심리적 안녕감 및 경력발달 긍정 결과 변인들의 수준을 비교하고, 재단에서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수요도를 분석함.
 - 분석 대상의 대표집단으로 40대 재직자와 퇴직자 집단을 선정하여 잠재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정책적 지원 필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연구 결과

- 경력전환기 재직자에 대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 결과 4개의 잠재 집단이 도출됨.
 - 경력설계 준비형(63%)은 중장년 경력전환기 핵심생애지표가 중위 수준의 양상을 띠고 있음.
 - 경력설계 혼란형(25%)은 중장년 경력전환기 핵심생애지표 중에서 경제, 건강관리, 경력지표 수준이 높으며, 동시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역시 높아 불안에 대한 취약성을 보임.
 - 경력설계 위기형(4%)은 중장년 경력전환 핵심생애지표 모든 값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서울시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인지 수준과 참여 경험도 여타 유형과 비교할 때 가장 낮았음.
 - 경력설계 우수형(8%)은 중장년 경력전환 핵심생애지표 모든 값이 모두 긍정적인 수준을 보임.

- 경력전환기 퇴직자에 대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 결과 3개의 잠재 집단이 도출됨.
 - 경력재설계 위기형(15.4%)은 중장년 경력전환 핵심생애지표 중에서 경제, 건강관리, 경력지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심리지표는 중위 수준의 양상을 띠고 있음.
 - 경력재설계 우수형(15.4%)은 중장년 경력전환 핵심생애지표 중에서 경제, 건강관리, 경력지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높고, 불확실성에 대한 취약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양상을 보임. 재단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높고, 심리적 안녕감이나 긍정적 경력지표가 가장 높았으며, 재단에서 제공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필요도를 보고함.
 - 경력재설계 준비형(69.2%)은 중장년 경력전환 핵심생애지표 모든 값이 중위 수준의 양상을 띠고 있음.
- 40대 재직자와 퇴직자 잠재 집단별 특성을 분석했을 때,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재직자와 퇴직자 간에 재단 사업에 대한 인식의 인지경로에는 차이가 있었음.

▣ 시사점 및 개입 방안 제안

- 경력전환기 중장년 경력지원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취약성을 주요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함.
- 재직자와 퇴직자 잠재 집단 모두 핵심생애지표 수준이 긍정적일수록 재단에 대한 인식이 높고 사업 참여 경험 역시 높았음. 높은 지표를 나타낸 재직자와 퇴직자들의 높은 인식과 참여를 강화하여 경력전환의 멘토를 양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 40대 재직자와 퇴직자의 잠재 집단별로 주요 이직 사유, 퇴직 사유, 그리고 퇴직 준비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줌. 또한, 홍보에서도 차별적으로 매체를 선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목 차

제1장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심층분석 II」 개요	1
제2장	중장년의 고용가능성 및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분석: 서울시50플러스재단 참여자와 미참여자 생애설계준비 유형 비교를 중심으로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4
	제2절 연구 방법	6
	제3절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유형화	14
	제4절 고용가능성 및 삶의 만족도 분석	37
	제5절 생애설계준비도 영향 요인 탐색	49
	제6절 결론 및 제언	52
제3장	서울시 중장년 경력적응성 모형 검증: 40대를 중심으로	58
	제1절 연구 추진배경 및 목적	5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4
	제3절 연구 결과	74
	제4절 결론 및 제언	91
제4장	경력전환기 중장년 재직자 및 퇴직자 집단별 경력지원 방안	9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문제	99
	제2절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04
	제3절 연구 결과	113
	제4절 결론 및 제언	137
	참고문헌	145

표 목차

제2장	〈표 2-1〉 재단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 독립표본 T검정 결과	6
	〈표 2-2〉 재단 사업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n=536)	8
	〈표 2-3〉 재단 사업 미참여자의 일반적 특성(n=10,291)	10
	〈표 2-4〉 중장년 생애설계준비지표 영역 및 항목, 문항	11
	〈표 2-5〉 잠재 프로파일 분석 영향 요인 변수설명	12
	〈표 2-6〉 잠재 프로파일 모형 적합도 및 분류율: 재단 사업 참여자	15
	〈표 2-7〉 모형별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수준(평균 및 표준편차): 재단 사업 참여자	17
	〈표 2-8〉 재단 사업 참여자 집단별 교차분석: 개인 특성	18
	〈표 2-9〉 재단 사업 참여자 집단별 교차분석: 가정환경 특성	20
	〈표 2-10〉 재단 사업 참여자 집단별 일원분산분석: 심리적 자원 특성	21
	〈표 2-11〉 생애설계준비 집단 구분 예측 요인 분석 결과: 재단 사업 참여자	23
	〈표 2-12〉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잠재 프로파일 집단별 특성 요약: 재단 사업 참여자	25
	〈표 2-13〉 잠재 프로파일 모형 적합도 및 분류율: 재단 사업 미참여자	26
	〈표 2-14〉 모형별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수준(평균 및 표준편차): 재단 사업 미참여자	28
	〈표 2-15〉 재단 사업 미참여자 집단별 차이분석: 개인 특성	29
	〈표 2-16〉 재단 사업 미참여자 집단별 차이분석: 가정환경 특성	31
	〈표 2-17〉 재단 사업 미참여자 집단별 일원분산분석: 심리적 자원 특성	32
	〈표 2-18〉 생애설계준비 집단 구분 예측 요인 분석 결과: 사업 미참여자	34
	〈표 2-19〉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잠재 프로파일 집단별 특성 요약: 재단 사업 미참여자	36
	〈표 2-20〉 고용가능성 결합회귀분석: 생애설계 참여노력형, 생애설계 노력필요형	38
	〈표 2-21〉 고용가능성 결합회귀분석: 생애설계 참여적극형, 생애설계 자율노력형	40
	〈표 2-22〉 고용가능성 결합회귀분석: 생애설계 참여완성형, 생애설계 자율완성형	42
	〈표 2-23〉 삶의 만족도 결합회귀분석: 생애설계 참여노력형, 생애설계 노력필요형	44
	〈표 2-24〉 삶의 만족도 결합회귀분석: 생애설계 참여적극형, 생애설계 자율노력형	46
	〈표 2-25〉 삶의 만족도 결합회귀분석: 생애설계 참여완성형, 생애설계 자율완성형	48
	〈표 2-26〉 재단 사업 참여 현황	49
	〈표 2-27〉 생애설계준비도 영향 요인 탐색	50
제3장	〈표 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N=4,719)	66
	〈표 3-2〉 경력적응성 하위 요인 및 문항	71
	〈표 3-3〉 연구 변인 간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N=4,719)	74
	〈표 3-4〉 성별에 따른 연구 변인의 평균 비교 (N=4,719)	75
	〈표 3-5〉 재직상태에 따른 연구 변인의 평균 비교(N=4,719)	77
	〈표 3-6〉 성별 및 재직상태에 따른 6개 집단의 구성	77

〈표 3-7〉 6개 집단의 경력적응성 총점 및 하위 요인별 평균 비교	78
〈표 3-8〉 6개 집단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평균 비교	79
〈표 3-9〉 6개 집단의 생애영역 설계관리 총점 및 하위 요인별 평균 비교	80
〈표 3-10〉 성별 집단에 따른 경로계수 비교	84
〈표 3-11〉 재직자 집단과 재직 경험이 있는 미취업자 집단의 경로계수 비교	86
〈표 3-12〉 재직상태와 성별에 대한 구조동일성 검증	89

제4장

〈표 4-1〉 재직자의 일반적 특성 (n=1,287)	105
〈표 4-2〉 퇴직자의 일반적 특성 (n=534)	106
〈표 4-3〉 중장년 경력전환기 핵심생애지표 문항 수 및 신뢰도	108
〈표 4-4〉 중장년 경력전환기 심리적 안녕감 및 경력발달 긍정 결과변인 문항 수 및 신뢰도	109
〈표 4-5〉 자료 분석 단계	111
〈표 4-6〉 재직자 핵심생애지표 간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n=1,287)	113
〈표 4-7〉 퇴직자 핵심생애지표 간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n=534)	114
〈표 4-8〉 재직자 집단 모형적합도 지수 비교(n=1,287)	115
〈표 4-9〉 재직자 집단 집단분류 분류율 비교(n=1,287)	115
〈표 4-10〉 재직자 잠재 집단별 기술통계(n=1,287)	116
〈표 4-11〉 재직자 잠재 집단별 성별 및 연령 차이(n=1,287)	118
〈표 4-12〉 재직자 잠재 집단별 중장년 정책에 대한 인식과 참여 경험(n=1,287)	119
〈표 4-13〉 재직자 잠재 집단별 결과 변인 차이(n=1,287)	119
〈표 4-14〉 재직자 잠재 집단별 프로그램 필요도 차이(n=1,287)	120
〈표 4-15〉 퇴직자 집단 모형적합도 지수 비교(n=534)	121
〈표 4-16〉 퇴직자 집단 집단분류 분류율(n=534)	121
〈표 4-17〉 퇴직자 잠재 집단별 기술통계(n=534)	122
〈표 4-18〉 퇴직자 잠재 집단별 성별 및 연령 차이(n=534)	123
〈표 4-19〉 퇴직자 잠재 집단별 퇴직 사유(n=534)	124
〈표 4-20〉 퇴직자 잠재 집단별 중장년 정책에 대한 인식과 참여 경험(n=534)	125
〈표 4-21〉 퇴직자 잠재 집단별 결과 변인 차이분석(n=534)	125
〈표 4-22〉 퇴직자 잠재 집단별 프로그램 필요도 차이(n=534)	126
〈표 4-23〉 40대 재직자 잠재 집단별 성별 및 지역별 분포(n=688)	129
〈표 4-24〉 40대 재직자 잠재 집단별 자치구 분포(n=688)	130
〈표 4-25〉 40대 재직자 이직 사유 1순위(n=688)	131
〈표 4-26〉 40대 재직자 잠재 집단별 퇴직 준비(n=688)	132
〈표 4-27〉 40대 재직자 잠재 집단별 중장년 정책에 대한 인식과 참여 경험(n=688)	133
〈표 4-28〉 40대 퇴직자 잠재 집단별 성별 및 지역별 분포(n=205)	134
〈표 4-29〉 40대 퇴직자 잠재 집단별 퇴직 사유(n=205)	135
〈표 4-30〉 40대 퇴직자 잠재 집단별 중장년 정책에 대한 인식(n=205)	136

그림 목차

제2장	[그림 2-1]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모형 잠재 프로파일 분석 결과: 재단 사업 참여자	16
	[그림 2-2]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모형 잠재 프로파일 분석 결과: 재단 사업 미참여자	27

제3장	[그림 3-1] 적응에 대한 진로구성모형 이론(Rudolph et al., 2017)	63
	[그림 3-2] 연구모형	67
	[그림 3-3]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	82
	[그림 3-4]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계수	84
	[그림 3-5] 재직상태에 따른 집단별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계수	87
	[그림 3-6] 재직상태 및 성별에 대한 연구모형 경로계수	90

제4장	[그림 4-1] 중장년 경력전환기 재직자 집단 최종 잠재 프로파일(표준화된 척도)	117
	[그림 4-2] 중장년 경력전환기 퇴직자 집단 최종 잠재 프로파일(표준화된 척도)	122

제 1 장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심층분석 II」 개요



제 1 장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심층분석 II」 개요

-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두 번째 심층분석 연구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의 체계적인 생애설계를 돕기 위해 2022년 「중장년 생애설계준비지표 개발」 연구에 이어 2023년 상반기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실태조사」를 실시함.
 -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실태조사」에서는 중장년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구축하여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도를 파악함.
 - 이 밖에도 생애설계준비 관련 변인으로는 삶에 대한 태도(삶의 만족도, 삶의 의미, 삶의 질), 개인 및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태도(자아효능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회복탄력성), 학습(평생학습역량, 폐기학습), 경력(경력지속가능성, 고용가능성)과 노후준비, 중장년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참여 경험 등으로 구성됨.
 -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심층분석 I」 연구는 상반기에 분석한 기초통계 결과 외에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여 생애설계준비 유형과 생애 전환기 심리적 자원 유형을 파악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였음.
 -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심층분석 II」는 실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관련 정책을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다섯 명의 공동연구원이 참여하여 총 세 편의 연구 주제를 다루고 있음.
 - 제2장: 중장년 고용가능성 및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분석: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 생애설계준비 유형 비교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최계원 박사)
 - 제3장: 서울시 중장년 경력적응성 모형 검증: 40대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이은설 교수, 경인교육대학교 정애경 교수)
 - 제4장: 경력전환기 중장년 재직자 및 퇴직자 집단별 경력지원 방안(강원대학교 안진아 교수, 아주대학교 김태선 교수)

제2장

중장년의 고용가능성 및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분석: 서울시50플러스재단 참여자와 미참여자 생애설계준비 유형 비교를 중심으로



제2장

중장년의 고용가능성 및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분석: 서울시50플러스재단 참여자와 미참여자 생애설계준비 유형 비교를 중심으로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추진배경

-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노동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조기 경력설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민간 및 공공에서는 경력설계 및 노후설계, 은퇴설계라는 명칭으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음. 관련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기존에 수행된 연구의 대부분은 은퇴준비, 노후준비, 생애설계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퇴직자 및 퇴직 예정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등 주로 성인 후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음.
 - 또한 노후 준비 및 생애설계 등의 관계에서 주거환경, 소득 계층, 신체 건강, 우울 등 재무 영역 또는 비재무 영역을 분절적으로 탐색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이들 관계를 통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중장년 시기의 생애설계준비는 이후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삶을 보다 풍요롭고 성숙하게 할 수 있으며(Sadler, 2000), 삶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하여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은 인생 후반기의 예측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더불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임소현, 이승엽, 이영광, 2022).
 - 따라서 노후 준비보다 적극적이고 광의의 개념인 생애설계준비와 고용가능성,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은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임.
- 한편, 급속한 사회 변화와 경제발전, 제도적 변화 등으로 중장년 집단은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 건강 상태, 가치관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생애설계준비에서도 차이가 발생함. 따라서 중장년

관련 정책에서는 중장년을 하나의 동일 집단으로 접근하기보다 이들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중장년의 생애이해와 생애영역 설계관리 변수를 중심으로 중장년의 생애설계준비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함.
 - 뿐만 아니라, 재단 참여자와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고용가능성과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실증하여, 재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함.
 - 이를 통하여 중장년의 생애설계에 대해 보다 표적화된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음.
 - 연구 문제 1. 재단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유형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 연구 문제 2.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집단은 유형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 연구 문제 3. 재단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고용가능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 문제 4. 재단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삶의 만족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 문제 5. 재단 사업은 중장년의 생애설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가?

제2절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실태조사 자료로, 전체 표본 11,500개 중 고용가능성에 대한 결측치 673개를 제거한 총 10,827건을 최종 분석데이터로 활용하였음.
- 재단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는 이질적 특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함.
 - 분석 결과, 재단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생애설계준비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1$), 사업 참여자의 생애설계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2-1〉 참고).
 - 따라서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 대상을 분리하여 단계별 분석을 실시하였음.

〈표 2-1〉 재단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구분	M	SD	t	p
사업 참여자	4.986	0.866	5.585	0.000
사업 미참여자	4.790	0.747		

주) * $p < .05$, ** $p < .01$, *** $p < .001$

- 재단 사업에 참여한 대상은 총 536명으로, 분석 대상의 기초 통계량은 〈표 2-2〉와 같음.
 - 성별은 여성이 297명(55.41%), 남성이 239명(44.59%)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음.
 - 연령은 60~64세가 43명(26.68%)으로 가장 많았고, 55~59세 125명(23.32%), 50~54세 122명(22.76%), 45~49세 70명(13.06%), 40~44세 76명(14.18%) 순이었음.
 - 최종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 253명(47.20%), 고등학교 졸업 이하 99명(18.47%), 전문대학 졸업 97명(18.10%), 대학원 졸업 87명(16.23%) 순으로 많았음.
 -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464명(86.57%), 별거, 이혼, 사별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72명(13.43%)이었음.
 - 자녀 유무의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가 236명(44.03%)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1명인 경우는 190명(35.45%), 자녀가 없는 경우는 110명(20.52%)으로 나타났음.

- 가구 형태는 자녀 세대 혹은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2세대 가구가 346명(6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부끼리 살거나 형제, 자매와 거주하는 1세대 가구가 110명(20.52%), 3세대 또는 친구, 동료 등과 거주하는 비혈연 가구가 43명(8.02%), 1인 가구가 37명(6.90%) 순으로 나타났다.
- 주택점유 형태는 자가 341명(63.62%)으로 가장 많았고, 전세 154명(28.73%), 월세 및 기타가 41명(7.65%)이었음.
- 월 평균 소득은 500~699만원이 140명(26.12%)으로 가장 많았고, 700~999만원이 126명(23.51%), 300~499만원이 122명(22.76%), 300만원 미만이 96명(17.91%), 1,000만원 이상이 52명(9.70%)으로 나타났다.
- 과거 재직 경험 보유 여부에서는 현재 근로를 하는 재직자가 378명(70.52%), 과거 재직 경험 보유자가 158명(29.48%)이었음.
- 주관적 건강 상태는 좋은 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274명(51.12%)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 189명(35.26%), 나쁜 편 73명(13.62%) 순으로 나타났다.
- 주관적 경제 상태는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가 217명(40.49%), 좋은 편이 192명(35.82%), 나쁜 편이 127명(23.69%)이었음.
- 연속형 변수의 경우, 회복탄력성은 평균 4.88점(표준편차 0.98), 자기효능감은 평균 4.93점(표준편차 0.95), 평생학습역량은 평균 5.05점(표준편차 0.89),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평균 3.40점(표준편차 0.91)으로 나타났다.

〈표 2-2〉 재단 사업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n=536)

구분	응답값	빈도수	비율(%)	구분	응답값	빈도수	비율(%)
성별	남성	239	44.59	가구 형태	1인가구	37	6.90
	여성	297	55.41		1세대 가구	110	20.52
연령	40~44세	76	14.18		2세대 가구	346	64.55
	45~49세	70	13.06		3세대 또는 비혈연 가구	43	8.02
	50~54세	122	22.76	주택 점유 형태	자가	341	63.62
	55~59세	125	23.32		전세	154	28.73
	60~64세	143	26.68		월세 및 기타	41	7.6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9	18.47	월 소득	300만원 미만	96	17.91
	전문대학 졸업	97	18.10		300~499만원	122	22.76
		4년제 대학교 졸업	253		47.20	500~699만원	140
	대학원 졸업	87	16.23		700~999만원	126	23.51
					1,000만원 이상	52	9.7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64	86.57	재직 경험	재직자	378	70.52
	배우자 없음	72	13.43		과거 재직 경험 보유자	158	29.48
자녀 유무	자녀 없음	110	20.52	주관적 건강 상태	나쁜 편	73	13.62
	1명	190	35.45		보통	189	35.26
	2명 이상	236	44.03		좋은 편	274	51.12
				주관적 경제 상태	나쁜 편	127	23.69
					보통	217	40.49
					좋은 편	192	35.82

● 다음으로 재단 사업에 미참여한 대상은 총 10,291명으로, 분석 대상의 기초 통계량은 〈표 2-3〉과 같음.

- 성별은 남성이 5,569명(54.12%), 여성이 4,722명(45.88%)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으며, 연령은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음.
- 최종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 4,854명(46.48%),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81명(26.05%), 전문대학 졸업 1,883명(18.30%), 대학원 졸업 873명(8.48%) 순으로 많았음.
-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8,716명(84.70%), 별거, 이혼, 사별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1,575명(15.30%)이었음.
- 자녀 유무의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가 4,270명(41.49%)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1명인 경우는 3,405명(33.09%), 자녀가 없는 경우는 2,616명(25.42%)으로 나타났음.

- 가구 형태는 자녀 세대 혹은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2세대 가구가 7,042명(68.43%)으로 가장 많았고, 부부끼리 살거나 형제, 자매와 거주하는 1세대 가구가 1,850명(17.98%), 1인 가구가 869명(8.44%), 3세대 또는 친구, 동료 등과 거주하는 비혈연 가구가 530명(5.15%) 순으로 나타났음.
- 주택점유 형태는 자가 6,910명(67.15%)으로 가장 많았고, 전세 2,680명(26.04%), 월세 및 기타가 701명(6.81%)이었음.
- 월 평균 소득은 500~699만원이 3,333명(32.39%)으로 가장 많았고, 300~499만원이 2,695명(26.19%), 700~999만원이 2,388명(23.20%), 300만원 미만인 1,116명(10.84%), 1,000만원 이상이 759명(7.38%)으로 나타났음.
- 과거 재직 경험 보유 여부에서는 현재 근로를 하는 재직자가 8,545명(83.03%), 과거 재직 경험 보유자가 1,746명(16.97%)이었음.
- 주관적 건강 상태는 좋은 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5,874명(57.08%)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 3,252명(31.60%), 나쁜 편 1,165명(11.32%) 순으로 나타났음.
- 주관적 경제 상태는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가 4,704명(45.71%), 좋은 편이 3,506명(34.07%), 나쁜 편이 2,081명(20.22%)이었음.
- 연속형 변수의 경우, 회복탄력성은 평균 4.81점(표준편차 0.80), 자기효능감은 평균 4.85점(표준편차 0.78), 평생학습역량은 평균 4.80점(표준편차 0.72),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평균 3.44점(표준편차 0.77)으로 나타났음.

〈표 2-3〉 재단 사업 미참여자의 일반적 특성(n=10,291)

구분	응답값	빈도수	비율(%)	구분	응답값	빈도수	비율(%)
성별	남성	5,569	54.12	가구 형태	1인가구	869	8.44
	여성	4,722	45.88		1세대 가구	1,850	17.98
연령	40~44세	2,143	20.82		2세대 가구	7,042	68.43
	45~49세	2,233	21.70		3세대 또는 비혈연 가구	530	5.15
	50~54세	2,231	21.68	주택 점유 형태	자가	6,910	67.15
	55~59세	1,817	17.66		전세	2,680	26.04
	60~64세	1,867	18.14		월세 및 기타	701	6.8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81	26.05	월 소득	300만원 미만	1,116	10.84
					300~499만원	2,695	26.19
	전문대학 졸업	1,883	18.30		500~699만원	3,333	32.39
					700~999만원	2,388	23.20
	4년제 대학교 졸업	4,854	47.17		1,000만원 이상	759	7.38
				대학원 졸업	873	8.48	재직 경험
과거 재직 경험 보유자	1,746	16.9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716	84.70	주관적 건강 상태	나쁜 편	1,165	11.32
	배우자 없음	1,575	15.30		보통	3,252	31.6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2,616	25.42		좋은 편	5,874	57.08
	1명	3,405	33.09	주관적 경제 상태	나쁜 편	2,081	20.22
	2명 이상	4,270	41.49		보통	4,704	45.71
					좋은 편	3,506	34.07

2. 변수 설명

- 중장년의 생애설계준비를 유형화하기 위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는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 준비 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생애이해 관련 10개 변수, 생애영역 설계관리 관련 20개 변수를 활용함(〈표 2-4〉 참고).

- 모든 문항은 연속형 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응답치에 대하여 각 항목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표 2-4〉 중장년 생애설계준비지표 영역 및 항목, 문항

영역	항목	문항
생애 이해	자신에 대한 이해	1. 나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2. 나의 경제적 상황(소득, 부채, 재산, 부동산 등)을 파악하고 있다. 3. 내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4. 현재까지 유급·무급 활동*을 포함한 나의 경력 경로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5. 내가 선호하는 여가활동(취미활동, 친목활동, 봉사활동 등)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환경에 대한 이해	1. 국가 및 지자체에서 중장년을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다. 2. 경제 환경 변화(예: 부동산, 금리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다. 3. 기술 환경 변화(예: 키오스크, 드론, AI, VR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다. 4. 사회 환경 변화(예: 저출산, 고령화, 세대별 특징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다. 5. 생태 환경 변화(예: 이상기후, 생물 다양성 감소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다
생애 영역 설계 관리	생애 역할 설계 관리	1. 변화하는 생애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표가 있다. 2. 변화하는 생애역할 수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 3. 변화하는 생애역할을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4. 나의 생애역할 수행을 유지하고 개선한다.
	일 설계 관리	1. 일(경제활동)에 대한 목표가 있다. 2. 일(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계획(자격증 취득, 교육훈련 참여, 교류 활동 등)이 있다. 3. 일(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계획(자격증 취득, 교육훈련 참여, 교류 활동 등)을 실천하고 있다. 4. 일(경제활동)하기 위한 구직 과정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재무 설계 관리	1. 경제적 관리(소득, 부채, 재산, 부동산 등)를 위한 목표가 있다. 2.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연금, 투자, 저축 등)이 있다. 3. 경제적 준비(연금, 저축, 투자 등)를 실천하고 있다. 4. 경제적 준비 과정(연금, 투자, 저축 등)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여가 활동 설계 관리	1. 여가활동에 대한 목표가 있다. 2. 여가활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 3. 여가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4. 계획하고 실천했던 여가활동을 유지하고 개선한다. *여가활동: 취미활동, 친목활동, 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등
	신체적 · 정신적 건강 설계 관리	1.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를 위한 목표가 있다. 2.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를 위한 계획이 있다. 3.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4.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 운동, 식단관리, 영양제 섭취, 금연, 금주, 상담, 명상 등

-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생애설계준비를 유형화한 이후, 각 유형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영향 변인으로 개인 특성 변인, 심리적 자원 특성 변인, 가정환경 특성 변인을 활용함(〈표 2-5〉 참고).

- 개인 특성 변인은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재직 경험 유무, 월 소득, 주관적 건강 상태, 주관적 경제 상태를 포함함. 주관적 건강 상태와 주관적 경제 상태 문항은 리커트 7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나, 범주형으로 코딩하여 분석함.
- 가정환경 특성 변인은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가구 형태, 주택점유 형태를 포함하였으며, 심리적 자원 특성 변인은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평생학습역량,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포함함.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해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원 문항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역코딩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으로 변환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음.

〈표 2-5〉 잠재 프로파일 분석 영향 요인 변수설명

구분	변인	응답값
개인 특성	성별	남성=0, 여성=1
	연령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2~3년제)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재직 경험 유무	과거 재직 경험 있음=0, 재직자=1
	월 소득	300만원 미만; 300~499만원; 500~699만원; 700~999만원; 1,000만원 이상
	주관적 건강 상태	나쁜 편; 보통; 좋은 편
	주관적 경제 상태	나쁜 편; 보통; 좋은 편
가정 환경 특성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0, 배우자 있음=1
	자녀 유무	자녀 없음;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가구 형태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또는 비혈연 가구
	주택점유 형태	자가; 전세; 월세 및 기타
심리적 자원 특성	회복탄력성	7점 리커트 척도
	자기효능감	7점 리커트 척도
	평생학습역량	7점 리커트 척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7점 리커트 척도

주) 1세대 가구: 부부끼리 살거나 혹은 형제·자매와 거주
 2세대 가구: 부모세대 혹은 자녀세대와 거주
 3세대 가구: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다 같이 거주
 비혈연 가구: 친구 혹은 동료와 거주

- 생애설계준비를 유형화한 이후 고용가능성과 삶의 만족도를 결과 변인으로 설정하여 혼합회귀분석을 실시함.
 - 고용가능성과 삶의 만족도는 각각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평균치를 사용함.
 - 통제 변수로는 교차분석과 일원분산분석에서 투입하였던 개인 특성 변인, 심리적 자원 특성 변인, 가정환경 특성 변수를 사용함.

3. 분석방법

- 이 연구는 SPSS 26.0과 MPlus7.6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첫째, 재단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생애설계준비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함.
 - 둘째, 분석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함.
 - 셋째, 생애설계준비를 유형화하기 위해 MPlus를 활용하여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함. 분석 후 통계적 기준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함.
 - 넷째, 잠재 프로파일 분석으로 분류한 생애설계준비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개인 특성, 가정환경 특성, 심리적 자원 특성을 중심으로 일원분산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함.
 - 다섯째, 각 집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함.
 - 여섯째, 재단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고용가능성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유사한 생애설계준비 특성을 보인 두 개의 집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결합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 일곱째, 재단 사업이 중장년의 생애설계준비에 효과성이 있는지 검증하였음.

제3절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유형화

1. 재단 사업 참여자

1)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잠재 프로파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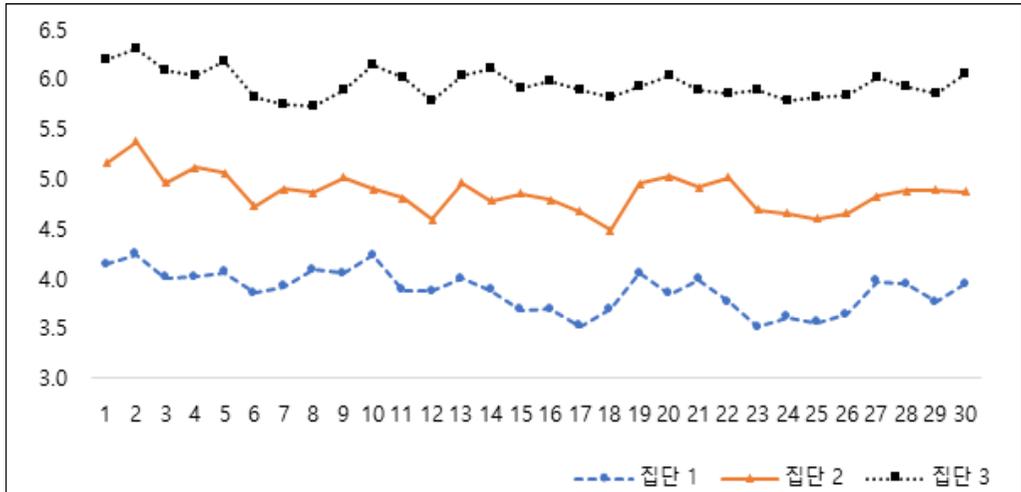
- 재단 사업 참여자의 생애설계준비를 유형화하기 위해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함.
 -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개인의 응답을 기반으로 이질적 특성을 지닌 모집단의 공통된 속성을 발견하여 하위 집단으로 유형화하는 분석 방법으로(Nylund-Gibson & Choi, 2018), 분류의 정확성이 높고 통계적인 근거를 통해 잠재 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Muthén & Muthén, 2010).
 - 최종 모형 결정을 위한 통계적 지표 중, 모형 적합도 판단 지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aBIC(Adjusted BIC)를 활용하였으며, 적합도 지수는 각 값이 작을수록 잠재유형의 수가 최적임을 의미함(Tofighi & Enders, 2008).
 - 모형의 비교 검증은 LMR(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과 BLRT(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를 활용하였음. LMR, BLRT는 n 개의 잠재 집단과 $n-1$ 개의 잠재 집단을 비교하여 상대적 적합도를 검증하며, LMR과 BLRT의 p 값이 유의하면 n 개의 프로파일이 $n-1$ 개 보다 적합함을 의미함(Asparouhov & Muthén, 2012).
 - 분류의 정확도 검증은 Entropy 값을 통해 확인하였음. Entropy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정확도가 높음을 의미함(Geiser, 2019).
 - 마지막으로 잠재 집단의 최소 분류 기준과 해석의 가능성을 고려함. 잠재 프로파일의 구성 비율이 5% 미만이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결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Berlin, Williams, & Parra, 2014), 전체 표본의 5%를 최소 비율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 재단 사업 참여자의 생애설계준비에 따른 최적의 집단 수를 식별하기 위해, 프로파일의 수를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며 정보지수(AIC, BIC, aBIC)와 분류의 질(Entropy, LMR, BLRT)을 확인하였음(〈표 2-6〉 참고).
 - 분석 결과, 집단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모든 정보지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전술하였듯이 정보지수는 낮을수록 모델 적합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Entropy, LMR, BLRT 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 LMR, BLRT의 검정 결과, 집단의 개수가 3개일 때 유의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Entropy 값은 모든 분류에서 0.9 이상으로 나타나 좋은 분류라고 할 수 있음.
 - 잠재 집단 가운데 관측치의 구성 비율이 집단별로 5% 이상 분포되는 것이 적합하나 (Jung & Wickrama, 2008), 4 모형과 5 모형은 관측치의 최소값이 각각 3.8%, 3.3%로 나타남.
- 통계적 지표들을 종합하고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3 모형을 재단 사업 참여자의 생애설계준비 최적 모형으로 선정하였음.

〈표 2-6〉 잠재 프로파일 모형 적합도 및 분류율: 재단 사업 참여자

	AIC	BIC	aBIC	Entropy	LMR (P-Value)	BLRT (P-Value)	잠재 프로파일 분류율(%)				
							1	2	3	4	5
2	46333.8	46723.6	46434.8	0.961	0.000	0.000	54.9	45.1			
3	44713.8	45236.4	44849.2	0.943	0.037	0.000	23.7	42.9	33.4		
4	44003.3	44658.8	44173.1	0.946	0.737	0.000	3.8	37.7	32.8	25.7	
5	43526.7	44315.0	43730.9	0.938	0.220	0.000	26.8	3.3	31.8	28.1	10.0

- 재단 사업 참여자의 생애설계준비 유형을 생애이해와 생애영역 설계관리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2-1]과 같음.



[그림 2-1]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모형 잠재 프로파일 분석 결과: 재단 사업 참여자

- 더불어 최종적으로 선정된 3개 모형의 생애설계준비 하위 요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2-7>과 같이 제시하였음.

- 첫 번째 집단은 다른 계층에 비해 생애설계준비의 모든 지표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생애설계 참여노력형’으로 명명하였음.
- 두 번째 집단의 경우 생애설계준비 모든 지표가 전반적으로 중위 수준의 양상을 띠고 있어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생애설계 참여적극형’으로 명명하였음.
- 마지막 집단은 생애설계준비의 모든 지표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생애설계 참여완성형’으로 명명하였음.

〈표 2-7〉 모형별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수준(평균 및 표준편차): 재단 사업 참여자

집단	N(비율)	1	2	3	4	5	6	7
1	127	4.08	4.02	3.90	3.63	3.90	3.57	3.90
	(23.7)	(1.01)	(1.15)	(0.98)	(1.06)	(1.08)	(1.11)	(1.05)
2	230	5.12	4.87	4.77	4.69	4.96	4.64	4.85
	(42.9)	(0.90)	(0.95)	(0.84)	(0.99)	(0.94)	(0.96)	(0.89)
3	179	6.15	5.85	5.97	5.89	5.92	5.82	5.96
	(33.4)	(0.76)	(0.86)	(0.75)	(0.85)	(0.90)	(0.96)	(0.86)
Total	536	5.12	4.91	4.88	4.74	4.93	4.68	4.90

주) ① 자신에 대한 이해, ② 환경에 대한 이해, ③ 생애역할 설계관리, ④ 일(경제활동) 설계관리, ⑤ 재무 설계관리, ⑥ 여가활동 설계관리, ⑦ 신체적·정신적 건강 설계관리

2) 집단별 특성 차이분석

- 잠재 프로파일 분석으로 분류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유형에 대하여 개인 특성, 가정환경 특성, 심리적 자원 특성의 차이를 통해 각 집단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교차분석과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음.
- 분석 결과, 개인 특성 변수에서는 최종 학력과 월 소득, 주관적 건강 상태와 주관적 경제 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음(〈표 2-8〉 참고).
 - 최종 학력의 경우, 집단 1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22.0%)와 전문대학 졸업(24.4%)의 비중이 높았고, 집단 2는 4년제 대학교 졸업(51.3%)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집단 3은 대학원 졸업의 비중이 다른 집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고, 동일 집단 내에서도 4년제 대학교 졸업 다음으로 대학원 졸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 월 소득의 경우, 집단 1은 300만원 미만(27.6%), 300~499만원(31.5%)인 경우가 다른 집단 대비 높게 나타났고, 집단 2는 500~699만원(27.4%)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집단 3은 월 소득이 700~999만원(31.3%)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른 집단에 비해 1,000만원 이상의 비중도 높았음.
 - 주관적 건강 상태의 경우, 집단 1은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집단 2는 보통(40.4%)과 좋은 편(45.2%)의 비중이 유사하게 나타났음. 집단 3은 좋은 편(70.9%)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한편, 주관적 건강 상태를 나쁜 편

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집단 1(21.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주관적 경제 상태를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집단 1(44.9%)과 집단 2(41.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집단 1(35.4%)에서 가장 많았음. 집단 3은 주관적 경제 상태를 높은 편(47.5%)이라고 인식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2-8〉 재단 사업 참여자 집단별 교차분석: 개인 특성

(단위: 명, %)

개인 특성		집단 1	집단 2	집단 3	Total	χ^2
성별	남자	49 (38.6)	112 (48.7)	78 (43.6)	239 (43.6)	3.499
	여자	78 (61.4)	118 (51.3)	101 (56.4)	297 (56.4)	
연령	40~44세	23 (18.1)	26 (11.3)	27 (15.1)	76 (14.8)	12.813
	45~49세	17 (13.4)	33 (14.3)	20 (11.2)	70 (13.0)	
	50~54세	30 (23.6)	56 (24.3)	36 (20.1)	122 (22.7)	
	55~59세	35 (27.6)	53 (23.0)	37 (20.7)	125 (23.8)	
	60~64세	22 (17.3)	62 (27.0)	59 (33.0)	143 (25.7)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8 (22.0)	42 (18.3)	29 (16.2)	99 (18.8)	17.658**
	전문대학 졸업	31 (24.4)	41 (17.8)	25 (14.0)	97 (18.7)	
	4년제 대학교 졸업	53 (41.7)	118 (51.3)	82 (45.8)	253 (46.3)	
	대학원 졸업	15 (11.8)	29 (12.6)	43 (24.0)	87 (16.1)	
재직 경험 유무	재직자	87 (68.5)	170 (73.9)	121 (67.6)	378 (70.0)	2.257
	과거 재직 경험 보유자	40 (31.5)	60 (26.1)	58 (32.4)	158 (30.0)	

〈표 계속〉

〈표 2-8〉 표 계속

(단위: 명, %)

개인 특성		집단 1	집단 2	집단 3	Total	χ^2
월 소득	300만원 미만	35	37	24	96	45.576***
		(27.6)	(16.1)	(13.4)	(19.0)	
	300~499만원	40	58	24	122	
		(31.5)	(25.2)	(13.4)	(23.4)	
	500~699만원	31	63	46	140	
		(24.4)	(27.4)	(25.7)	(25.8)	
700~999만원	18	52	56	126		
	(14.2)	(22.6)	(31.3)	(22.7)		
1,000만원 이상	3	20	29	52		
	(2.4)	(8.7)	(16.2)	(9.1)		
주관적 건강 상태	나쁜 편	27	33	13	73	47.878***
		(21.3)	(14.3)	(7.3)	(14.3)	
	보통	57	93	39	189	
		(44.9)	(40.4)	(21.8)	(35.7)	
	좋은 편	43	104	127	274	
		(33.9)	(45.2)	(70.9)	(50.0)	
주관적 경제 상태	나쁜 편	45	53	29	127	29.116***
		(35.4)	(23.0)	(16.2)	(24.9)	
	보통	57	95	65	217	
		(44.9)	(41.3)	(36.3)	(40.8)	
	좋은 편	25	82	85	192	
		(19.7)	(35.7)	(47.5)	(34.3)	

주) * $p < .05$, ** $p < .01$, *** $p < .001$

- 다음으로 가정환경 특성에서는 배우자 유무를 제외한 변인은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2-9〉 참고).
 - 집단 1은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배우자가 없는 비중이(18.9%) 가장 높았고, 집단 3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86.1%)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2-9〉 재단 사업 참여자 집단별 교차분석: 가정환경 특성

(단위: 명, %)

가정환경 특성		집단 1	집단 2	집단 3	Total	χ^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03	198	163	464	6.416*
		(81.1)	(86.1)	(91.1)	(86.1)	
배우자 없음	배우자 없음	24	32	16	72	
		(18.9)	(13.9)	(8.9)	(13.9)	
자녀 유무	자녀 없음	36	42	32	110	6.833
		(28.3)	(18.3)	(17.9)	(21.5)	
	1명	42	80	68	190	
		(33.1)	(34.8)	(38.0)	(35.3)	
2명 이상	2명 이상	49	108	79	236	
		(38.6)	(47.0)	(44.1)	(43.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03	198	163	464	6.416*
		(81.1)	(86.1)	(91.1)	(86.1)	
배우자 없음	배우자 없음	24	32	16	72	
		(18.9)	(13.9)	(8.9)	(13.9)	
자녀 유무	자녀 없음	36	42	32	110	6.833
		(28.3)	(18.3)	(17.9)	(21.5)	
	1명	42	80	68	190	
		(33.1)	(34.8)	(38.0)	(35.3)	
2명 이상	2명 이상	49	108	79	236	
		(38.6)	(47.0)	(44.1)	(43.2)	
가구 형태	1인가구	16	12	9	37	12.371
		(12.6)	(5.2)	(5.0)	(7.6)	
	1세대 가구	26	47	37	110	
		(20.5)	(20.4)	(20.7)	(20.5)	
2세대 가구	2세대 가구	71	157	118	346	
		(55.9)	(68.3)	(65.9)	(63.4)	
3세대 가구 및 기타	3세대 가구 및 기타	14	14	15	43	
		(11.0)	(6.1)	(8.4)	(8.5)	
주택점유 형태	자가	75	145	121	341	3.404
		(59.1)	(63.0)	(67.6)	(63.2)	
	전세	39	67	48	154	
		(30.7)	(29.1)	(26.8)	(28.9)	
월세 및 기타	월세 및 기타	13	18	10	41	
		(10.2)	(7.8)	(5.6)	(7.9)	

주) * p<.05, ** p<.01, *** p<.001

- 연속형 변수로 구성된 심리적 자원 특성을 중심으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이 유의하게 나타났음(〈표 2-10〉 참고).
 - 회복탄력성(F=160.277)과 자기효능감(F=230.619)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Scheffer 사후검정 결과, 집단 3이 집단 2보다, 집단 2가 집단 1보다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평생학습역량(F=421.936)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F=26.994)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Scheffer 사후검정 결과, 집단 3이 집단 2보다, 집단 2가 집단 1보다 평생학습역량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2-10〉 재단 사업 참여자 집단별 일원분산분석: 심리적 자원 특성

심리적 자원 특성	집단 1	집단 2	집단 3	F(Scheffe)
회복탄력성	3.984	4.819	5.583	160.2***
자기효능감	3.940	4.898	5.669	230.6***
평생학습역량	4.057	4.939	5.902	421.9***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3.032	3.483	3.745	26.9***

주) * p<.05, ** p<.01, *** p<.001

3) 집단별 예측 요인 분석

- 잠재 프로파일 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음. 집단 1과 집단 2를 각각 준거집단으로 분석하였으며 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음($\chi^2=615.179$, $p<.001$) (〈표 2-11〉 참고).
- 집단을 구분해 주는 예측 요인은 나이, 주관적 건강 상태, 주관적 경제 상태,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평생학습역량,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으로 나타났음.
 - 먼저, 집단 1을 준거집단으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나이가 40~44세, 55~59세인 경우와 자기효능감, 평생학습역량이 높은 경우 집단 1보다 집단 2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음.
 - 집단 1이 아닌 집단 3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특성은 나이로, 45~49세, 50~54세, 55~59세인 경우 집단 3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음. 또한 회복탄력성과 평생학습역량이 높은 경우 집단 1보다 집단 3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음. 반면 주관적 건강 상태와 주관적

경제 상태를 좋다고 인식한 경우 집단 3보다 집단 1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음.

- 집단 2를 준거집단으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나이가 45~49세인 경우 집단 2보다 집단 3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음. 또한 평생학습역량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경우 집단 2보다 집단 3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음.

〈표 2-11〉 생애설계준비 집단 구분 예측 요인 분석 결과: 재단 사업 참여자

			준거집단: 집단 1 (생애설계 참여노력형)						준거집단: 집단 2 (생애설계 참여적극형)		
			집단 2(생애설계 참여적극형)			집단 3(생애설계 참여완성형)			집단 3(생애설계 참여완성형)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개인 특성	성별(기준: 여성)	남성	0.307	0.327	1.360	-0.006	0.502	0.994	-0.313	0.393	0.731
	나이 (기준: 60세 이상)	40~44세	0.899 [†]	0.545	2.456	1.060	0.802	2.885	0.161	0.615	1.175
		45~49세	0.468	0.590	1.596	1.833*	0.836	6.250	1.365*	0.608	3.915
		50~54세	0.740	0.504	2.097	1.573*	0.719	4.821	0.833	0.531	2.299
		55~59세	0.850 [†]	0.475	2.339	1.378*	0.685	3.968	0.529	0.513	1.697
	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 졸업	0.008	0.497	1.008	-0.670	0.782	0.512	-0.678	0.623	0.508
		4년제 대학교 졸업	-0.221	0.452	0.802	-1.005	0.702	0.366	-0.785	0.553	0.456
		대학원 졸업	0.236	0.599	1.266	0.236	0.885	1.267	0.000	0.671	1.000
	월 소득 (기준: 300만원 미만)	300~499만원	0.839	0.518	2.314	1.316	0.839	3.727	0.477	0.676	1.611
		500~699만원	0.186	0.544	1.204	-0.482	0.877	0.618	-0.668	0.704	0.513
		700~999만원	0.152	0.595	1.164	-0.736	0.924	0.479	-0.888	0.727	0.412
		1,000만원 이상	-0.277	0.922	0.758	-0.549	1.232	0.578	-0.272	0.844	0.762
	재직 경험	현 재직자	-0.114	0.368	0.892	0.355	0.534	1.426	0.469	0.402	1.598
	주관적 건강 상태 (기준: 나쁜 편)	보통	-0.401	0.509	0.669	-0.065	0.801	0.937	0.336	0.640	1.399
		좋은 편	-0.440	0.540	0.644	-1.483 [†]	0.822	0.227	-1.043	0.646	0.352
	주관적 경제 상태 (기준: 나쁜 편)	보통	-0.335	0.431	0.715	-1.118	0.682	0.327	-0.783	0.546	0.457
좋은 편		-0.716	0.492	0.489	-1.550*	0.757	0.212	-0.835	0.594	0.434	

〈표 계속〉

〈표 2-11〉 표 계속

			준거집단: 집단 1 (생애설계 참여노력형)						준거집단: 집단 2 (생애설계 참여적극형)		
			집단 2(생애설계 참여적극형)			집단 3(생애설계 참여완성형)			집단 3(생애설계 참여완성형)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가정 환경 특성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666	0.579	1.947	0.009	0.952	1.009	-0.657	0.774	0.518
	자녀 유무	1명	-0.651	0.523	0.522	-0.620	0.788	0.538	0.031	0.611	1.031
		2명	-0.473	0.554	0.623	-0.646	0.805	0.524	-0.174	0.610	0.840
	가구 형태 (기준: 1인가구)	1세대	-0.720	0.791	0.487	-0.255	1.280	0.775	0.465	1.045	1.592
		2세대	-0.769	0.762	0.463	0.123	1.246	1.131	0.892	1.017	2.440
		3세대 및 기타	-0.577	0.929	0.562	-0.081	1.395	0.922	0.496	1.073	1.642
	주택점유 형태 (기준: 자가)	전세	-0.109	0.360	0.896	0.507	0.528	1.660	0.616	0.398	1.852
월세 및 기타		0.327	0.594	1.387	0.943	0.925	2.567	0.615	0.734	1.850	
심리적 자원 특성	회복탄력성		-0.120	0.303	0.887	0.029 [†]	0.432	1.029	0.149	0.319	1.161
	자기효능감		0.596 [†]	0.332	1.815	0.771	0.521	2.163	0.176	0.413	1.192
	평생학습역량		2.475***	0.439	11.878	7.063***	0.713	17.736	4.588***	0.562	98.31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0.018	0.264	0.982	0.532	0.334	1.702	0.550*	0.215	1.733

주) [†]p<.1, * p<.05, ** p<.01, *** p<.001

4) 집단별 특성 종합

- 중장년 생애설계준비지표를 기반으로 분류한 집단별 특성은 아래 표와 같음(〈표 2-12〉 참고).

〈표 2-12〉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잠재 프로파일 집단별 특성 요약: 재단 사업 참여자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명	생애설계 참여노력형	생애설계 참여적극형	생애설계 참여완성형
비율	23.7%	42.9%	33.4%
생애설계준비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설계준비의 모든 지표가 낮은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설계준비의 모든 지표가 중위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설계준비의 모든 지표가 높은 수준
개인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졸업 이하(22.0%), 전문대학 졸업(24.4%) ↑ • 월 소득: 300만원 미만(27.6%), 300~499만원(31.5%) ↑ • 주관적 건강 상태 나쁨(21.3), 보통(44.9%) ↑ • 주관적 경제 상태 나쁨(35.4%), 보통(44.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제 대학교 졸업(51.3%) ↑ • 월 소득: 500~699만원(27.4%) ↑ • 주관적 건강 상태 보통(40.4%), 좋은 편(45.2%) ↑ • 주관적 경제 상태 보통(4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제 대학교 졸업(45.8%), 대학원 졸업(24.0%) ↑ • 월 소득: 700~999만원(31.3%), 1,000만원 이상(16.2%) ↑ • 주관적 건강 상태 좋음(70.9%) ↑ • 주관적 경제 상태 좋음(47.5%) ↑
가정환경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없음(18.9%)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있음(91.1%) ↑
심리적자원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탄력성 낮음(3.98) • 자기효능감 낮음(3.94) • 평생학습역량 낮음(4.06)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낮음(3.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탄력성 보통(4.81) • 자기효능감 보통(4.90) • 평생학습역량 보통(4.94)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보통(4.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탄력성 높음(5.58) • 자기효능감 높음(5.70) • 평생학습역량 높음(5.90)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높음(3.75)

2. 재단 사업 미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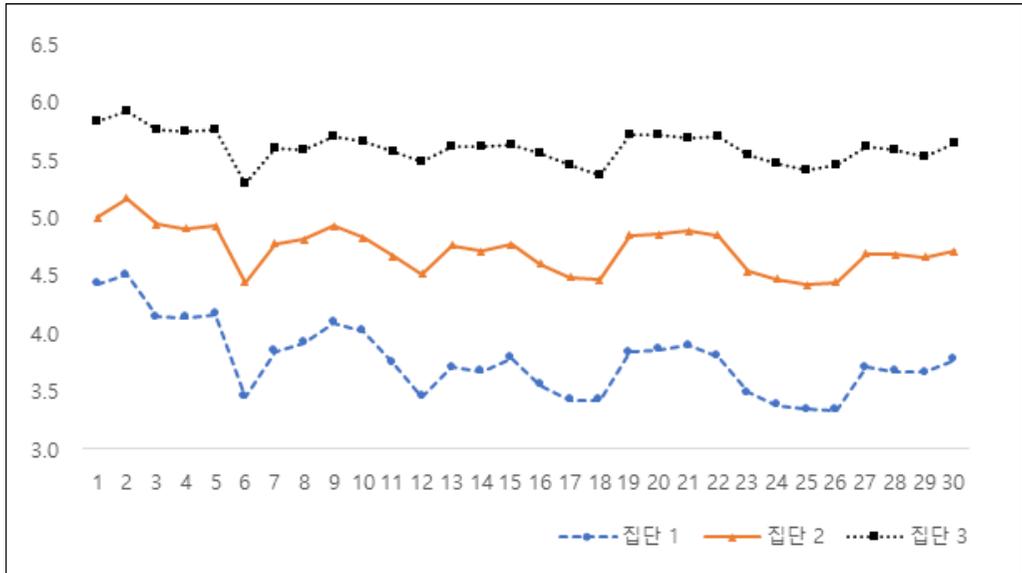
- 재단 사업 미참여자의 생애설계준비에 따른 최적의 집단 수를 식별하기 위해, 프로파일의 수를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며 정보지수(AIC, BIC, aBIC)와 분류의 질(Entropy, LMR, BLRT)을 확인하였음(〈표 2-13〉 참고).
 - 분석 결과, 집단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모든 정보지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전술하였듯이 정보지수는 낮을수록 모델 적합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Entropy, LMR, BLRT 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 LMR, BLRT의 검정 결과, 집단의 개수가 3개일 때 유의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Entropy 값은 모든 분류에서 0.9 이상으로 나타나 좋은 분류라고 할 수 있음.

〈표 2-13〉 잠재 프로파일 모형 적합도 및 분류율: 재단 사업 미참여자

	AIC	BIC	aBIC	Entropy	LMR (P-Value)	BLRT (P-Value)	잠재 프로파일 분류율(%)				
							1	2	3	4	5
2	850228.3	850887.1	850597.9	0.945	0.3333	0.000	45.2	54.8			
3	823512.8	824396.0	824008.3	0.925	0.000	0.000	22.5	45.5	32.0		
4	810545.8	811653.4	811167.2	0.923	0.002	0.000	5.9	40.0	30.9	23.2	
5	802554.7	795215.5	795611.2	0.903	0.215	0.000	4.2	37.1	31.4	19.2	13.3

- 통계적 지표들을 종합하고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3 모형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 참여자의 생애설계준비 최적 모형으로 선정하였음.

- 재단 사업 미참여자의 생애설계준비 유형을 생애이해와 생애영역 설계관리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2-2]와 같음.



[그림 2-2]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모형 잠재 프로파일 분석 결과: 재단 사업 미참여자

- 더불어 최종적으로 선정된 3개 모형의 생애설계준비 하위 요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2-14>와 같이 제시하였음.
 - 첫 번째 집단은 다른 계층에 비해 생애설계준비의 모든 지표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생애설계 노력필요형’으로 명명하였음.
 - 두 번째 집단의 경우 생애설계준비 모든 지표가 전반적으로 중위 수준의 양상을 띠고 있어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생애설계 자율노력형’으로 명명하였음.
 - 마지막 집단은 생애설계준비의 모든 지표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생애설계 자율완성형’으로 명명하였음.

〈표 2-14〉 모형별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수준(평균 및 표준편차): 재단 사업 미참여자

집단	N(비율)	1	2	3	4	5	6	7
1	2,304	4.27	3.86	3.64	3.54	3.85	3.38	3.70
	(22.4)	(1.02)	(1.08)	(0.96)	(1.05)	(1.07)	(1.06)	(1.01)
2	4,686	4.98	4.75	4.66	4.58	4.85	4.46	4.68
	(45.5)	(0.83)	(0.89)	(0.80)	(0.89)	(0.82)	(0.88)	(0.82)
3	3,301	5.80	5.56	5.56	5.49	5.70	5.46	5.58
	(32.1)	(0.78)	(0.88)	(0.79)	(0.88)	(0.82)	(0.86)	(0.81)
Total	10,291	5.02	4.72	4.62	4.54	4.80	4.43	4.65

주) ① 자신에 대한 이해, ② 환경에 대한 이해, ③ 생애역할 설계관리, ④ 일(경제활동) 설계관리, ⑤ 재무 설계관리, ⑥ 여가활동 설계관리, ⑦ 신체적·정신적 건강 설계관리

2) 집단별 특성 차이분석

- 잠재 프로파일 분석으로 분류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유형에 대하여 개인 특성, 가정환경 특성, 심리적 자원 특성의 차이를 통해 각 집단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교차분석과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음.
- 분석 결과, 개인 특성 변수에서는 연령과 최종 학력, 재직 경험 유무, 월 소득, 주관적 건강 상태, 주관적 경제 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음(〈표 2-15〉 참고).
 - 연령의 경우, 집단 1은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45~49세(23.3%), 50~54세(23.1%)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집단 2는 60~64세(19.0%)의 비중이, 집단 3은 40~44세(20.8%)의 비중이 다른 집단 대비 높은 편임. 집단별 연령대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연령대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음.
 - 최종 학력은 다른 집단 대비 집단 1의 고등학교 졸업 이하(29.1%), 전문대학 졸업(19.8%) 비중이 높았고, 집단 3은 4년제 대학교 졸업(48.6%)과 대학원 졸업(10.3%)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집단 1은 과거 재직 경험이 있는 비중(21.0%)이 다른 집단 대비 높았고, 집단 3은 현재 재직 중인 비중(85.9%)이 높았음.
 - 월 소득의 경우, 집단 1은 300만원 미만(19.4%), 300~499만원(31.5%)인 경우가 다른 집단 대비 높게 나타났고, 1,000만원 이상(4.0%)은 다른 집단 대비 가장 낮았음.

집단 2는 500~699만원(34.4%)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집단 3은 월 소득이 700~999만원(28.8%)인 경우와 1,000만원 이상(11.8%)인 경우가 다른 집단 대비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주관적 건강 상태의 경우, 집단 1은 보통(40.1%)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55.6%, 72.6%), 집단 2와 집단 3은 좋은 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특히 집단 3은 좋은 편이라는 응답이 다른 집단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음.
- 주관적 경제 상태를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집단 1(44.6%)과 집단 2(48.4%)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집단 1(37.6%)에서 가장 많았음. 집단 3은 주관적 경제 상태를 높은 편(45.2%)이라고 인식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2-15〉 재단 사업 미참여자 집단별 차이분석: 개인 특성

(단위: 명, %)

개인 특성		집단 1	집단 2	집단 3	Total	χ^2
성별	남자	1,229 (53.3)	2,538 (54.2)	1,802 (54.1)	5,569 (53.9)	0.858
	여자	1,075 (46.7)	2,148 (45.8)	1,499 (45.9)	4,722 (46.1)	
연령	40~44세	458 (19.9)	964 (20.6)	721 (20.8)	2,143 (20.4)	22.052*
	45~49세	538 (23.3)	1,025 (21.9)	670 (21.7)	2,233 (22.3)	
	50~54세	532 (23.1)	1,010 (21.5)	689 (21.7)	2,231 (22.1)	
	55~59세	403 (17.5)	796 (17.0)	618 (17.7)	1,817 (17.4)	
	60~64세	373 (16.2)	891 (19.0)	603 (18.1)	1,867 (17.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70 (29.1)	1,223 (26.1)	788 (23.9)	2,681 (26.3)	46.377***
	전문대학 졸업	457 (19.8)	857 (18.3)	569 (17.2)	1,883 (18.4)	
	4년제 대학교 졸업	1,012 (43.9)	2,239 (47.8)	1,603 (48.6)	4,854 (46.8)	
	대학원 졸업	165 (7.2)	367 (7.8)	341 (10.3)	873 (8.4)	

〈표 계속〉

〈표 2-15〉 계속

(단위: 명, %)

개인 특성		집단 1	집단 2	집단 3	Total	χ^2
재직 경험 유무	재직자	1,821 (79.0)	3,890 (83.0)	2,834 (85.9)	8,545 (82.6)	44.754***
	과거 재직 경험 보유자	483 (21.0)	796 (17.0)	467 (14.1)	1,746 (17.4)	
	300만원 미만	446 (19.4)	483 (10.3)	187 (5.7)	1,116 (11.8)	
월 소득	300~499만원	725 (31.5)	1,285 (27.4)	685 (20.8)	2,695 (26.5)	541.687***
	500~699만원	636 (27.6)	1,610 (34.4)	1,087 (32.9)	3,333 (31.6)	
	700~999만원	405 (17.6)	1,032 (22.0)	951 (28.8)	2,388 (22.8)	
	1,000만원 이상	92 (4.0)	276 (5.9)	391 (11.8)	759 (7.2)	
	나쁜 편	511 (22.2)	460 (9.8)	194 (5.9)	1,165 (12.6)	
보통	923 (40.1)	1,620 (34.6)	709 (21.5)	3,252 (32.1)		
좋은 편	870 (37.8)	2,606 (55.6)	2,398 (72.6)	5,874 (55.3)		
주관적 경제 상태	나쁜 편	867 (37.6)	816 (17.4)	398 (12.1)	2,081 (22.4)	786.622***
	보통	1027 (44.6)	2267 (48.4)	1410 (42.7)	4,704 (45.2)	
		410 (17.8)	1603 (34.2)	1493 (45.2)	3,506 (32.4)	

주) * p<.05, ** p<.01, *** p<.001

- 다음으로 가정환경 특성에서는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가구 형태, 주택점유 형태가 유의하게 나타났음(〈표 2-16〉 참고).

- 배우자가 없는 비중은(24.2%)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집단 1이 가장 높았고, 집단 3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89.7%)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자녀 유무의 경우 집단 1은 자녀가 없는 경우(33.0%)가 다른 집단 대비 높게 나타났고, 집단 3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의 비중(45.3%)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았음. 집단 2의 경우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가 40.7%로 높게 나타났음.

- 가구 형태는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집단 1이 1인 가구(12.6%)와 3세대 가구 및 기타 가구 형태(6.1%)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집단 2는 다른 집단 대비 1세대 가구 비중(20.6%)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집단 3은 2세대 가구가 74.7%로 전체 중 가장 높았음.
- 주택점유 형태는 집단 2와 집단 3에서 자가의 비중이 각각 68.5%, 69.8%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집단 1은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전세(28.3%)와 월세 및 기타(11.2%)의 비중이 높았음.

〈표 2-16〉 재단 사업 미참여자 집단별 차이분석: 가정환경 특성

(단위: 명, %)

가정환경 특성		집단 1	집단 2	집단 3	Total	χ^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747 (75.8)	4,008 (85.5)	2,961 (89.7)	8,716 (83.7)	206.18***
	배우자 없음	557 (24.2)	678 (14.5)	430 (10.3)	1,665 (16.3)	
자녀 유무	자녀 없음	761 (33.0)	1,210 (25.8)	645 (19.5)	2,616 (26.1)	132.351***
	1명	678 (29.4)	1,567 (33.5)	1,160 (35.2)	3,405 (32.7)	
	2명 이상	865 (37.6)	1,909 (40.7)	1,496 (45.3)	4,270 (41.2)	
가구 형태	1인가구	290 (12.6)	387 (8.3)	192 (5.8)	869 (8.9)	144.127***
	1세대 가구	393 (17.1)	963 (20.6)	494 (15.0)	1,850 (17.5)	
	2세대 가구	1,481 (64.3)	3,095 (66.0)	2,466 (74.7)	7,042 (68.4)	
	3세대 가구 및 기타	140 (6.1)	241 (5.1)	149 (4.5)	530 (5.3)	
주택점유 형태	자가	1,393 (60.5)	3,212 (68.5)	2,305 (69.8)	6,910 (66.3)	120.858***
	전세	652 (28.3)	1,180 (25.2)	848 (25.7)	2,680 (26.4)	
		259 (11.2)	294 (6.3)	148 (4.5)	701 (7.3)	
	월세 및 기타					

주) * $p < .05$, ** $p < .01$, *** $p < .001$

- 연속형 변수로 구성된 심리적 자원 특성을 중심으로 일원일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이 유의하게 나타났음(〈표 2-17〉 참고).
 - 회복탄력성(F=3182.6)과 자기효능감(F=3418.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Scheffer 사후검정 결과, 집단 3이 집단 2보다, 집단 2가 집단 1보다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평생학습역량(F=5294.7)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F=714.7)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Scheffer 사후검정 결과, 집단 3이 집단 2보다, 집단 2가 집단 1보다 평생학습역량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2-17〉 재단 사업 미참여자 집단별 일원분산분석: 심리적 자원 특성

심리적 자원 특성	집단 1	집단 2	집단 3	F(Scheffe)
회복탄력성	4.058	4.747	5.417	3182.6***
자기효능감	4.098	4.786	5.454	3418.1***
평생학습역량	4.051	4.723	5.446	5294.7***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3.088	3.501	3.812	714.7***

주) * p<.05, ** p<.01, *** p<.001

3) 집단별 예측 요인 분석

- 잠재 프로파일 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음. 집단 1과 집단 2를 각각 준거집단으로 분석하였으며 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음($\chi^2=8650.803$, $p<.001$)(〈표 2-18〉 참고).
- 집단을 구분해 주는 예측 요인은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가구 형태, 월 소득, 주관적 건강 상태, 주관적 경제 상태,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평생학습역량,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으로 나타났음.
 - 먼저, 연령이 50~54세, 55~59세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 졸업자에 비해 대학원 졸업자인 경우, 가구 형태가 2세대로 구성된 경우, 주택점유 형태가 전세 또는 월세 및 기타인 경우, 회복탄력성 및 자기효능감, 평생학습역량,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경우 집단 1보다 집단 2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음.

- 연령이 50~54세, 55~59세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 졸업자에 비해 대학원 졸업자인 경우, 가구 형태가 2세대로 구성된 경우, 주택점유 형태가 전세 또는 월세 및 기타인 경우, 회복탄력성 및 자기효능감, 평생학습역량,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경우 집단 1보다 집단 2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음.
- 반면,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1명 또는 2명인 경우,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경우, 주관적 경제 상태가 보통 또는 좋은 경우는 집단 2보다 1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음.
- 집단 1보다 집단 3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특성으로는, 성별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에서는 40~44세, 45~49세, 50~54세가,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보다 대학원 졸업인 경우, 1인 가구에 비해 1세대로 구성된 가구 형태인 경우, 월 소득이 300~499만원, 500~699만원, 1,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나타남.
- 반면, 1인 가구에 비해 2세대, 3세대 및 기타로 구성된 가구 형태인 경우, 주택점유 형태가 전세인 경우, 자기효능감과 평생학습역량,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경우 집단 3보다 집단 1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음.
- 마지막으로 집단 2를 준거집단으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원 졸업인 경우, 1인 가구와 비교하여 1세대, 2세대, 3세대 및 기타 가구 형태인 경우, 주택 점유 형태가 월세 및 기타인 경우,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 평생학습역량,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높은 경우 집단 2보다 집단 3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음. 반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와 월 소득이 700~999만원인 경우,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경우, 주관적 경제 상태가 좋은 경우는 집단 3보다 집단 2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음.

〈표 2-18〉 생애설계준비 집단 구분 예측 요인 분석 결과: 사업 미참여자

구분			준거집단: 집단 1 (생애설계 노력필요형)						준거집단: 집단 2 (생애설계 자율노력형)		
			집단 2(생애설계 자율노력형)			집단 3(생애설계 자율완성형)			집단 3(생애설계 자율완성형)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개인 특성	성별(기준: 여성)	남성	-0.038	0.069	0.962	1.011***	0.095	2.749	0.024	0.064	1.024
	나이 (기준: 60세 이하)	40~44세	0.023	0.118	1.023	0.739***	0.103	2.094	-0.045	0.109	0.956
		45~49세	0.196	0.112	1.217	4.614***	0.123	100.858	0.089	0.106	1.093
		50~54세	0.281*	0.109	1.325	0.712***	0.068	2.037	0.094	0.104	1.099
		55~59세	0.316**	0.112	1.371	-0.014	0.091	0.986	-0.027	0.104	0.973
	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 졸업	-0.114	0.100	0.892	-0.022	0.155	0.979	-0.025	0.096	0.975
		4년제 대학교 졸업	0.061	0.086	1.062	0.285	0.149	1.330	0.090	0.083	1.094
		대학원 졸업	0.392**	0.143	1.480	0.375*	0.145	1.455	0.517***	0.132	1.677
	월 소득 (기준: 300만원 미만)	300~499만원	0.135	0.110	1.144	0.998***	0.220	2.712	-0.163	0.134	0.850
		500~699만원	0.042	0.118	1.043	0.773**	0.281	2.166	-0.134	0.137	0.875
		700~999만원	0.127	0.130	1.136	0.179	0.103	1.196	-0.367*	0.143	0.693
		1,000만원 이상	0.224	0.191	1.252	0.965***	0.187	2.625	-0.246	0.171	0.782
	재직 경험	현 재직자	0.010	0.088	1.010	-0.028	0.167	0.972	-0.094	0.090	0.910
	주관적 건강 상태 (기준: 나쁜 편)	보통	-0.145	0.103	0.865	-0.092	0.174	0.912	-0.057	0.131	0.944
		좋은 편	-0.305**	0.109	0.737	-0.240	0.186	0.787	-0.451***	0.129	0.637
	주관적 경제 상태 (기준: 나쁜 편)	보통	-0.552***	0.083	0.576	-0.022	0.247	0.978	-0.180	0.098	0.835
좋은 편		-0.894***	0.104	0.409	-0.084	0.121	0.919	-0.250*	0.105	0.778	

〈표 계속〉

〈표 2-18〉 표 계속

구분			준거집단: 집단 1 (생애설계 노력필요형)						준거집단: 집단 2 (생애설계 자율노력형)		
			집단 2(생애설계 자율노력형)			집단 3(생애설계 자율완성형)			집단 3(생애설계 자율완성형)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가정 환경 특성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118	0.135	0.889	0.288	0.147	1.334	-0.391**	0.148	0.676
	자녀 유무	1명	-0.519***	0.119	0.595	-0.139	0.134	0.870	-0.061	0.124	0.941
		2명	-0.476***	0.124	0.621	0.150	0.115	1.162	0.014	0.126	1.015
	가구 형태 (기준: 1인가구)	1세대	-0.205	0.164	0.815	0.909***	0.187	2.482	0.411*	0.184	1.508
		2세대	0.541***	0.151	1.717	-0.509**	0.193	0.601	0.457**	0.173	1.579
		3세대 및 기타	0.317	0.194	1.373	-0.580***	0.166	0.560	0.456*	0.218	1.578
	주택점유 형태 (기준: 자가)	전세	0.162*	0.077	1.176	-0.462**	0.171	0.630	0.017	0.075	1.017
		월세 및 기타	0.462***	0.128	1.587	0.206	0.237	1.229	0.503**	0.147	1.654
심리적 자원 특성	회복탄력성		0.466***	0.069	1.593	-0.203	0.160	0.817	0.546	0.070	1.726
	자기효능감		0.353***	0.075	1.424	-0.756***	0.161	0.470	0.385***	0.077	1.470
	평생학습역량		2.068***	0.089	7.906	-0.732***	0.123	0.481	2.546***	0.089	12.757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0.368***	0.055	1.444	-1.145***	0.141	0.318	0.344***	0.044	1.411

주) * p<.05, ** p<.01, *** p<.001

4) 집단별 특성 종합

- 중장년 생애설계준비지표를 기반으로 분류한 집단별 특성은 아래 표와 같음(〈표 2-19〉 참고).

〈표 2-19〉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잠재 프로파일 집단별 특성 요약: 재단 사업 미참여자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명	생애설계 노력필요형	생애설계 자율노력형	생애설계 자율완성형
비율	22.5%	45.5%	32.0%
생애설계준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설계준비의 모든 지표가 낮은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설계준비의 모든 지표가 중위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설계준비의 모든 지표가 높은 수준
개인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49세(23.3%), 50~54세(23.1%) ↑ • 고등학교 졸업 이하(29.1%), 전문대학 졸업(19.8%) ↑ • 과거 재직 경험(21.0%) ↑ • 월 소득: 300만원 미만(19.4%), 300~499만원(31.5%) ↑ • 주관적 건강 상태 보통(40.1%) ↑ • 주관적 경제 상태 나쁨(37.6%), 보통(44.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49세(21.9%), 50~54세(21.9%), 60~64세(19.0%) ↑ • 4년제 대학교 졸업(47.8%) ↑ • 월 소득: 500~699만원(34.4%) ↑ • 주관적 건강 상태 좋음(55.6%) ↑ • 주관적 경제 상태 보통(48.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44세(20.4%), 45~49세(22.3%), 50~54세(22.1%) ↑ • 4년제 대학교 졸업(48.6%), 대학원 졸업(10.3%) ↑ • 현재 재직중(85.9%) ↑ • 월 소득: 700~999만원(28.8%), 1,000만원 이상(11.8%) ↑ • 주관적 건강 상태 좋음(72.6%) ↑ • 주관적 경제 상태 좋음(45.2%) ↑
가정 환경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없음(24.2%) ↑ • 자녀 2명 이상(37.6%), 자녀 없음(33.0%) ↑ • 다른 집단 대비 1인가구(12.6%), 3세대 가구 및 기타 가구 형태(6.1%) ↑ • 다른 집단 대비 전세(28.3%), 월세 및 기타(1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2명 이상(40.7%) ↑ • 다른 집단 대비 1인가구(20.6%) ↑ • 주택점유 형태가 자가(68.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있음(89%) ↑ • 자녀 2명 이상(40.7%) ↑ • 2세대 가구(74.7%) ↑ • 주택점유 형태가 자가(69.8) ↑
심리적 자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탄력성 낮음(4.06) • 자기효능감 낮음(4.10) • 평생학습역량 낮음(4.05)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낮음(3.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탄력성 보통(4.75) • 자기효능감 보통(4.79) • 평생학습역량 보통(4.72)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보통(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탄력성 높음(5.42) • 자기효능감 높음(5.45) • 평생학습역량 높음(5.45)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높음(3.81)

제4절 고용가능성 및 삶의 만족도 분석

1. 고용가능성 영향 요인 탐색

- 재단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고용가능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유사한 생애설계준비 특성을 지닌 두 개의 집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결합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1) 생애설계준비 하위 집단: 생애설계 참여노력형, 생애설계 노력필요형

- 생애설계준비 유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두 집단, 즉 생애설계 참여노력형(사업 참여)과 생애설계 노력필요형(사업 미참여)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고용가능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결합 회귀분석을 실시함(〈표 2-20〉 참고).
 - 분석 결과, 생애설계유형 중 생애설계 참여노력형 집단($B=0.87$, $p<.05$)이 고용가능성에 유의하게 나타남. 즉, 생애설계 참여노력형은 사업 미참여 집단인 생애설계 노력필요형에 비해 고용가능성이 높았음.
 - 통제 변수 중 개인 특성에서는 성별과 연령, 재직 경험이, 가정환경 특성에서는 주택 점유 형태가, 심리적 자원 특성에서는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 평생학습역량,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음.
 - 개인 특성은 남성($B=-.078$, $p<.001$)이 여성에 비해 고용가능성이 낮았고, 60대 이상에 비해 40~44세($B=-.103$, $p<.01$), 45~49세($B=-.097$, $p<.01$)인 경우 고용가능성이 낮게 나타났음. 또한 현재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B=.162$, $p<.001$)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고용가능성이 높았음.
 - 가정환경 특성에서는 자가에 비해 전세에 거주하는 경우($B=.062$, $p<.01$) 고용가능성이 높았음.
 - 심리적 자원 특성에서는 회복탄력성($B=.107$, $p<.001$), 자기효능감($B=.174$, $p<.001$), 평생학습역량($B=.474$, $p<.00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B=.032$, $p<.05$)이 높은 경우 고용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음.

〈표 2-20〉 고용가능성 결합회귀분석: 생애설계 참여노력형, 생애설계 노력필요형

변인		B	S.E.	Exp(B)	
독립변인	생애설계 참여노력형_사업 참여자 (기준: 생애설계 노력필요형_사업 미참여자)	.087*	.044	.030	
개인 특성	성별	남성	-.078***	.021	-0.060
	나이 (기준: 60세 이상)	40~44세	-.103**	.036	-.063
		45~49세	-.097**	.034	-.062
		50~54세	-.059	.033	-.038
		55~59세	-.030	.034	-.017
	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 졸업	.015	.029	.009
		4년제 대학교 졸업	.033	.026	.025
		대학원 졸업	-.050	.043	-.020
	월 소득 (기준: 300만원 미만)	300~499만원	.024	.030	.017
		500~699만원	.024	.033	.016
		700~999만원	-.010	.038	-.006
		1,000만원 이상	.085	.058	.025
	재직 경험	현 재직자	.162***	.025	.102
	주관적 건강 상태 (기준: 나쁜 편)	보통	.031	.027	.023
		좋은 편	.063	.031	.046
	주관적 경제 상태 (기준: 나쁜 편)	보통	.039	.024	.029
좋은 편		.015	.033	.009	
가정 환경 특성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42	.038	-.027
	자녀 유무	1명	-.017	.036	-.012
		2명	.027	.037	.020
	가구 형태 (기준: 1인가구)	1세대	.008	.045	.005
		2세대	.017	.040	.012
		3세대 및 기타	.052	.053	.019
	주택점유 형태 (기준: 자가)	전세	.062**	.023	.043
		월세 및 기타	-.021	.033	-.010
심리적 자원 특성	회복탄력성	.107***	.019	.124	
	자기효능감	.174***	.020	.202	
	평생학습역량	.474***	.022	.432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032*	.015	.032	

주) * p<.05, ** p<.01, *** p<.001

2) 생애설계준비 중위 집단: 생애설계 참여적극형, 생애설계 자율노력형

- 생애설계준비 유형이 중위 수준인 두 집단, 즉 생애설계 참여적극형(사업 참여)과 생애설계 자율노력형(사업 미참여)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고용가능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결합 회귀분석을 실시함(〈표 2-21〉 참고).
 - 분석 결과, 두 가지 생애설계유형은 고용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통제 변수 중 개인 특성에서는 성별과 학력, 월 소득, 재직 경험이, 심리적 자원 특성에서는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 평생학습역량,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음.
 - 개인 특성은 남성($B=-.068, p<.001$)이 여성에 비해 고용가능성이 낮았고,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B=.076, p<.05$)가 고등학교 졸업에 비해 고용가능성이 높았음. 또한 월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B=.070, p<.05$) 3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고용가능성이 높았으며 현재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B=.142, p<.001$)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고용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음.
 - 심리적 자원 특성에서는 회복탄력성($B=.115, p<.001$), 자기효능감($B=.116, p<.001$), 평생학습역량($B=.458, p<.001$)이 높은 경우 고용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B=-.024, p<.05$)이 높은 경우 고용가능성이 낮게 나타났음.

〈표 2-21〉 고용가능성 결합회귀분석: 생애설계 참여적극형, 생애설계 자율노력형

변인		B	S.E.	Exp(B)	
독립변인	생애설계 참여적극형_사업 참여자 (기준: 생애설계 자율노력형_사업 미참여자)	-.016	.027	-.007	
개인 특성	성별	남성	-.068***	.012	-.066
	나이 (기준: 60세 이상)	40~44세	-.033	.021	-.026
		45~49세	-.024	.020	-.019
		50~54세	-.015	.019	-.012
		55~59세	-.015	.020	-.011
	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 졸업	.032	.018	.024
		4년제 대학교 졸업	.027	.016	.026
		대학원졸업	.076**	.025	.040
	월 소득 (기준: 300만원 미만)	300~499만원	.025	.022	.022
		500~699만원	.023	.023	.022
		700~999만원	.047	.025	.038
		1,000만원 이상	.070*	.033	.033
	재직 경험	현 재직자	.142***	.016	.105
	주관적 건강 상태 (기준: 나쁜 편)	보통	-.002	.021	-.002
좋은 편		.035	.021	.034	
주관적 경제 상태 (기준: 나쁜 편)	보통	-.010	.017	-.009	
	좋은 편	-.011	.019	-.010	
가정 환경 특성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09	.026	-.006
	자녀 유무	1명	.030	.021	.028
		2명	.027	.022	.026
	가구 형태 (기준: 1인가구)	1세대	-.014	.032	-.011
		2세대	-.035	.030	-.032
		3세대 및 기타	.033	.038	.014
	주택점유 형태 (기준: 자가)	전세	.017	.014	.014
월세 및 기타		.000	.025	.000	
심리적 자원 특성	회복탄력성	.115***	.013	.133	
	자기효능감	.116***	.015	.127	
	평생학습역량	.458***	.016	.41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024*	.009	-.030	

주) * p<.05, ** p<.01, *** p<.001

3) 생애설계준비 상위 집단: 생애설계 참여완성형, 생애설계 자율완성형

- 생애설계준비 유형이 상위 수준인 두 집단, 즉 생애설계 참여완성형(사업 참여)과 생애설계 자율완성형(사업 미참여)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고용가능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결합회귀분석을 실시함(표 2-22) 참고.
 - 분석 결과, 생애설계유형 중 생애설계 참여완성형 집단($B=.083, p<.01$)이 고용가능성에 유의하게 나타남. 즉, 생애설계 참여완성형은 사업 미참여 집단인 생애설계 자율완성형에 비해 고용가능성이 높았음.
 - 통제 변수 중 개인 특성에서는 성별과 학력, 월 소득, 재직 경험이, 가정환경 특성에서는 주택점유 형태가, 심리적 자원 특성에서는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 평생학습역량,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음.
 - 개인 특성은 남성($B=-.067, p<.001$)이 여성에 비해 고용가능성이 낮았고, 학력에서는 대학교 졸업($B=.040, p<.05$), 대학원 졸업($B=.099, p<.001$)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고용가능성이 높았음. 또한 월 소득에서는 소득이 300~499만원인 경우($B=.1064, p<.05$), 500~699만원인 경우($B=.055, p<.01$), 700~999만원인 경우($B=.087, p<.001$), 1,000만원 이상인 경우($B=.133, p<.01$)에 월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고용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B=.072, p<.001$)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고용가능성이 높았음.
 - 가정환경 특성에서는 자가에 비해 전세에 거주하는 경우($B=.038, p<.05$)와 월세 및 기타 형태($B=.108, p<.01$)인 경우 자사에 비해 고용가능성이 높았음.
 - 심리적 자원 특성에서는 회복탄력성($B=.108, p<.01$), 자기효능감($B=.174, p<.001$), 평생학습역량($B=.526, p<.00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B=.025, p<.01$)이 높은 경우 고용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음.

〈표 2-22〉 고용가능성 결합회귀분석: 생애설계 참여완성형, 생애설계 자율완성형

변인		B	S.E.	Exp(B)	
독립변인	생애설계 참여완성형_사업 참여자 (기준: 생애설계 자율완성형_사업 미참여자)	.083**	.031	.034	
개인 특성	성별	남성	-.067***	.014	-.062
	나이 (기준: 60세 이상)	40~44세	-.040	.024	-.031
		45~49세	.036	.023	.027
		50~54세	-.005	.023	-.003
		55~59세	.007	.022	.005
	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 졸업	.014	.022	.010
		4년제 대학교 졸업	.040*	.019	.037
		대학원 졸업	.099***	.027	.058
	월 소득 (기준: 300만원 미만)	300~499만원	.064*	.032	.048
		500~699만원	.055**	.032	.048
		700~999만원	.087***	.033	.074
		1,000만원 이상	.133**	.037	.080
	재직 경험	현 재직자	.072***	.020	.048
	주관적 건강 상태 (기준: 나쁜 편)	보통	.010	.031	.008
좋은 편		-.023	.030	-.019	
주관적 경제 상태 (기준: 나쁜 편)	보통	-.007	.022	-.006	
	좋은 편	.022	.023	.020	
가정 환경 특성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56	.034	.032
	자녀 유무	1명	.030	.028	.026
		2명	-.011	.028	-.010
	가구 형태 (기준: 1인가구)	1세대	-.008	.043	-.005
		2세대	.013	.042	.011
		3세대 및 기타	.051	.051	.020
주택점유 형태 (기준: 자가)	전세	.038*	.016	.031	
	월세 및 기타	.108**	.034	.042	
심리적 자원 특성	회복탄력성		.035**	.015	.040
	자기효능감		.174***	.017	.183
	평생학습역량		.526***	.018	.498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025**	.008	.041

주) * p<.05, ** p<.01, *** p<.001

2.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탐색

- 재단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유사한 생애설계준비 특성을 지닌 두 개의 집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결합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1) 생애설계준비 하위 집단: 생애설계 참여노력형, 생애설계 노력필요형

- 생애설계준비 유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두 집단, 즉 생애설계 참여노력형사업 참여)과 생애설계 노력필요형(사업 미참여)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결합회귀분석을 실시함(〈표 2-23〉 참고).
 - 분석 결과, 두 가지 생애설계유형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통제 변수 중 개인 특성에서는 성별과 나이, 월 소득, 재직 경험, 주관적 건강 상태와 주관적 경제 상태가, 가정환경 특성에서는 배우자 유무와 자녀 유무, 주택점유 형태가, 심리적 자원 특성에서는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음.
 - 개인 특성은 남성($B=.073, p<.05$)이 여성에 비해, 연령에서는 40~44세($B=.160, p<.01$)가 60세 이상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음. 월 소득이 700~999만원($B=.138, p<.05$)인 경우가 3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현재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B=-.127, p<.01$)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주관적 건강 상태가 보통($B=.194, p<.001$), 좋을 경우($B=.341, p<.001$), 주관적 경제 상태가 보통($B=.540, p<.001$), 좋을 경우($B=.774, p<.001$) 삶의 만족도가 높았음.
 - 가정환경 특성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B=.380, p<.001$)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자녀가 1명인 경우($B=-.120, p<.05$)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았음. 주택점유 형태는 자가에 비해 전세($B=-.104, p<.01$)와 월세 및 기타($B=-.473, p<.001$)인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심리적 자원 특성에서는 회복탄력성($B=.442, p<.001$), 자기효능감($B=.113, p<.0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B=.123, p<.001$)이 높은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표 2-23〉 삶의 만족도 결합회귀분석: 생애설계 참여노력형, 생애설계 노력필요형

변인		B	S.E.	Exp(B)	
독립변인	생애설계 참여노력형_사업 참여자 (기준: 생애설계 노력필요형_사업 미참여자)	.053	.074	.011	
개인 특성	성별	남성	.073*	.035	.034
	나이 (기준: 60세 이상)	40~44세	.160**	.060	.059
		45~49세	.113	.058	.044
		50~54세	.020	.056	.008
		55~59세	.053	.057	.019
	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 졸업	-.032	.050	-.012
		4년제 대학교 졸업	-.064	.044	-.030
		대학원 졸업	.009	.072	.002
	월 소득 (기준: 300만원 미만)	300~499만원	.019	.051	.008
		500~699만원	.097	.056	.040
		700~999만원	.138*	.064	.049
		1,000만원 이상	.101	.098	.018
	재직 경험	현 재직자	-.127**	.043	-.049
	주관적 건강 상태 (기준: 나쁜 편)	보통	.194***	.046	.089
		좋은 편	.341***	.053	.154
	주관적 경제 상태 (기준: 나쁜 편)	보통	.540***	.041	.250
좋은 편		.774***	.056	.276	
가정 환경 특성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80***	.064	.151
	자녀 유무 (기준: 자녀 없음)	1명	-.120*	.061	-.051
		2명	-.113	.062	-.051
	가구 형태 (기준: 1인가구)	1세대	-.090	.076	-.032
		2세대	-.075	.068	-.033
		3세대 및 기타	-.118	.089	-.027
	주택점유 형태 (기준: 자가)	전세	-.104**	.039	-.044
		월세 및 기타	-.473***	.056	-.139
심리적 자원 특성	회복탄력성	.442***	.033	.314	
	자기효능감	.113**	.033	.080	
	평생학습역량	-.071	.037	-.040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123***	.026	.077	

주) * p<.05, ** p<.01, *** p<.001

2) 생애설계준비 중위 집단: 생애설계 참여적극형, 생애설계 자율노력형

- 생애설계준비 유형이 중위 수준인 두 집단, 즉 생애설계 참여적극형(사업 참여)과 생애설계 자율노력형(사업 미참여)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결합회귀분석을 실시함(〈표 2-24〉 참고).
 - 분석 결과, 두 가지 생애설계유형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통제 변수 중 개인 특성에서는 성별과 나이, 주관적 건강 상태와 주관적 경제 상태가, 가정환경 특성에서는 배우자 유무와 자녀 유무, 가구 형태, 주택점유 형태가, 심리적 자원 특성에서는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 평생학습역량,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음.
 - 개인 특성은 남성($B=.050, p<.05$)이 여성에 비해, 연령에서는 40~44세($B=.105, p<.01$)가 60세 이상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음. 주관적 건강 상태가 보통($B=.201, p<.001$), 좋은 경우($B=.305, p<.001$), 주관적 경제 상태가 보통($B=.529, p<.001$), 좋은 경우($B=.847, p<.001$) 삶의 만족도가 높았음.
 - 가정환경 특성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B=.484, p<.001$)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자녀가 1명인 경우($B=-.164, p<.001$)와 자녀가 2명인 경우($B=-.240, p<.001$)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았음. 가구 형태의 경우 1세대 가구($B=-.193, p<.01$)가 1인 가구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았고, 주택점유 형태는 자가에 비해 전세($B=-.129, p<.001$)와 월세 및 기타($B=-.404, p<.001$)인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심리적 자원 특성에서는 회복탄력성($B=.353, p<.001$), 자기효능감($B=.230, p<.001$)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평생학습역량($B=-.064, p<.05$),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B=-.077, p<.001$)이 높은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표 2-24〉 삶의 만족도 결합회귀분석: 생애설계 참여적극형, 생애설계 자율노력형

변인		B	S.E.	Exp(B)	
독립변인	생애설계 참여적극형_사업 참여자 (기준: 생애설계 자율노력형_사업 미참여자)	-.038	.055	-.008	
개인 특성	성별	남성	.050*	.025	.026
	나이 (기준: 60세 이상)	40~44세	.105**	.041	.044
		45~49세	.017	.039	.007
		50~54세	.035	.038	.015
		55~59세	.020	.039	.008
	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 졸업	-.040	.036	-.016
		4년제 대학교 졸업	-.043	.031	-.023
		대학원 졸업	-.053	.051	-.015
	월 소득 (기준: 300만원 미만)	300~499만원	-.057	.044	-.026
		500~699만원	-.069	.046	-.034
		700~999만원	-.075	.049	-.033
		1,000만원 이상	-.039	.065	-.010
	재직 경험	현 재직자	.002	.032	.001
	주관적 건강 상태 (기준: 나쁜 편)	보통	.201***	.042	.100
좋은 편		.305***	.043	.158	
주관적 경제 상태 (기준: 나쁜 편)	보통	.529***	.034	.275	
	좋은 편	.847***	.038	.418	
가정 환경 특성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84***	.051	.177
	자녀 유무	1명	-.164***	.042	-.080
		2명	-.240***	.044	-.123
	가구 형태 (기준: 1인가구)	1세대	-.193**	.063	-.081
		2세대	-.142	.060	-.070
		3세대 및 기타	-.147	.075	-.034
	주택점유 형태 (기준: 자가)	전세	-.129***	.028	-.058
		월세 및 기타	-.404***	.051	-.102
심리적 자원 특성	회복탄력성	.353***	.026	.218	
	자기효능감	.230***	.030	.135	
	평생학습역량	-.064*	.032	-.03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077***	.019	-.051	

주) * p<.05, ** p<.01, *** p<.001

3) 생애설계준비 상위 집단: 생애설계 참여완성형, 생애설계 자율완성형

- 생애설계준비 유형이 상위 수준인 두 집단, 즉 생애설계 참여완성형(사업 참여)과 생애설계 자율완성형(사업 미참여)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결합회귀분석을 실시함(〈표 2-25〉 참고).
 - 분석 결과, 생애설계유형 중 생애설계 참여완성형 집단($B=.131, p<.015$)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나타남. 즉, 생애설계 참여완성형은 사업 미참여 집단인 생애설계 자율완성형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음.
 - 통제 변수 중 개인 특성에서는 학력과 주관적 건강 상태, 주관적 경제 상태가, 가정환경 특성에서는 배우자 유무와 자녀 유무, 주택점유 형태가, 심리적 자원특성에서는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음.
 - 개인 특성은 학력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 전문대학 졸업($B=.132, p<.01$)이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주관적 건강 상태가 보통($B=.409, p<.001$), 좋은 경우($B=.431, p<.001$), 주관적 경제 상태가 보통($B=.408, p<.001$), 좋은 경우($B=.822, p<.001$) 삶의 만족도가 높았음.
 - 가정환경 특성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B=.432, p<.001$)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자녀가 1명인 경우($B=-.155, p<.05$)와 자녀가 2명인 경우($B=-.300, p<.001$)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았음. 주택점유 형태는 자가에 비해 월세 및 기타($B=-.298, p<.001$)인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심리적 자원 특성에서는 회복탄력성($B=.406, p<.001$), 자기효능감($B=.245, p<.001$)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B=-.072, p<.001$)이 높은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표 2-25〉 삶의 만족도 결합회귀분석: 생애설계 참여완성형, 생애설계 자율완성형

변인		B	S.E.	Exp(B)	
독립변인	생애설계 참여완성형_사업 참여자 (기준: 생애설계 자율완성형_사업 미참여자)	.131*	.074	.027	
개인 특성	성별	남성	.053	.034	.024
	나이 (기준: 60세 이상)	40~44세	-.033	.057	-.012
		45~49세	.003	.056	.001
		50~54세	.007	.054	.003
		55~59세	-.091	.054	-.033
	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 졸업	.132**	.053	.046
		4년제 대학교 졸업	-.012	.045	-.005
		대학원 졸업	.074	.066	.021
	월 소득 (기준: 300만원 미만)	300~499만원	.010	.076	.004
		500~699만원	-.036	.077	-.015
		700~999만원	-.032	.079	-.013
		1,000만원 이상	.012	.089	.004
	재직 경험	현 재직자	-.023	.047	-.007
	주관적 건강 상태 (기준: 나쁜 편)	보통	.409***	.075	.155
		좋은 편	.431***	.072	.177
	주관적 경제 상태 (기준: 나쁜 편)	보통	.408***	.054	.186
좋은 편		.822***	.056	.378	
가정 환경 특성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32***	.081	.121
	자녀 유무	1명	-.155*	.067	-.068
		2명	-.300***	.067	-.138
	가구 형태 (기준: 1인가구)	1세대	-.014	.104	-.005
		2세대	.112	.100	.045
		3세대 및 기타	.045	.122	.009
주택점유 형태 (기준: 자가)	전세	-.048	.039	-.020	
	월세 및 기타	-.298***	.081	-.057	
심리적 자원 특성	회복탄력성	.406***	.036	.227	
	자기효능감	.245***	.041	.128	
	평생학습역량	.015	.043	.007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072***	.020	-.058	

주) * p<.05, ** p<.01, *** p<.001

제5절 생애설계준비도 영향 요인 탐색

- 재단 사업이 생애설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빈도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함¹⁾.
- 재단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536명으로, 사업별 참여 비율은 <표 2-26>과 같음.
 -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비율이 29.3%로 가장 많았고, 사회공헌 일자리(26.7%), 생애설계진단 및 상담(26.1%), 생애·경력설계 교육 프로그램(25.6%), 경력 전환 지원(16.0%), 직업역량강화교육(15.5%) 등의 순이었음.

<표 2-26> 재단 사업 참여 현황

사업명	참여	미참여	사업명	참여	미참여
생애설계진단 및 상담	140	396	창업 지원	69	467
	(26.1)	(73.9)		(12.9)	(87.1)
생애·경력설계 교육 프로그램	137	399	직업역량강화교육	83	453
	(25.6)	(74.4)		(15.5)	(84.5)
취업지원서비스	157	379	디지털전환교육	58	478
	(29.3)	(70.7)		(10.8)	(89.2)
경력 전환 지원	86	450	40대 특화 직업전환 전문교육	32	504
	(16.0)	(84.0)		(6.0)	(94.0)
사회공헌 일자리	143	393	커뮤니티 활동	83	453
	(26.7)	(73.3)		(15.5)	(85.5)

- 재단 사업이 생애설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사업프로그램을 독립변수로, 개인 특성과 가정환경 특성, 심리적 자원 특성을 통제 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함 (<표 2-27> 참고).
 - 분석 결과, 전체 사업 중 생애설계진단 및 상담($B=.111, p<.05$)과 생애·경력설계 교육 프로그램($B=.123, p<.01$)이 생애설계준비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1) 분석에 활용한 사업 구분은 '23년 5월 기준이며, 현재는 사업이 개편됨

- 통제 변수에서는 월 소득과 재직 경험, 주택점유 형태,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평생 학습역량이 유의한 결과로 나타남.
- 월 소득이 300~499만원인 경우(B=-.141, p<.05)는 3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생애 설계준비도가 낮았으며, 현재 재직자(B=-.101, p<.05)*는 과거 재직 경험을 보유한 경우보다 생애설계준비도가 낮았음.
- 주택점유 형태에서는 월세 및 기타 형태에서 거주하는 경우(B=-.202, p<.01)가 자가인 경우보다 생애설계준비도가 낮게 나타남.
- 심리적 변인 중 회복탄력성(B=.069, p<.05), 자기효능감(B=.129, p<.01), 평생학습 역량(B=.626, p<.001)은 생애설계준비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7〉 생애설계준비도 영향 요인 탐색

변인		B	S.E.	Exp(B)	
독립변인	생애설계진단 및 상담	.111*	.045	.056	
	생애·경력설계 교육 프로그램	.123**	.044	.062	
	취업지원서비스	.016	.042	.008	
	경력 전환 지원	-.081	.053	-.034	
	사회공헌 일자리	.085	.045	.044	
	창업 지원	.022	.058	.008	
	직업역량강화교육	-.031	.054	-.013	
	디지털전환교육	.045	.062	.016	
	40대 특화 직업전환 전문교육	.057	.081	.016	
통제변인	성별	남성	-.014	.042	-.008
	나이 (기준: 60세 이상)	40~44세	.003	.067	.001
		45~49세	-.055	.068	-.022
		50~54세	-.045	.057	-.022
		55~59세	-.098	.055	-.048
	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 졸업	-.008	.064	-.004
		4년제 대학교 졸업	.022	.056	.012
		대학원 졸업	.012	.070	.005
	월 소득 (기준: 300만원 미만)	300~499만원	-.141*	.065	-.069
		500~699만원	-.016	.069	-.008
		700~999만원	.053	.074	.026
		1,000만원 이상	.119	.089	.041
재직 경험	현 재직자	-.101*	.044	-.053	

〈표 계속〉

〈표 2-27〉 표 계속

변인		B	S.E.	Exp(B)	
통제변인	주관적 건강 상태 (기준: 나쁜 편)	보통	.030	.065	.016
		좋은 편	.104	.068	.060
	주관적 경제 상태 (기준: 나쁜 편)	보통	.021	.056	.012
		좋은 편	.031	.062	.01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063	.075	.025
	자녀 유무	1명	.034	.066	.019
		2명	-.043	.066	-.025
	가구 형태 (기준: 1인가구)	1세대	.096	.099	.045
		2세대	.120	.096	.066
		3세대 및 기타	.090	.110	.028
	주택점유 형태 (기준: 자가)	전세	-.011	.044	-.006
		월세 및 기타	-.202**	.074	-.062
	회복탄력성		.069*	.035	.078
	자기효능감		.129**	.041	.141
	평생학습역량		.626***	.038	.64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010	.023	.011

주) * $p < .05$, ** $p < .01$, *** $p < .001$

제6절 결론 및 제언

1. 결론

- 이 연구는 중장년의 생애설계준비를 유형화하고 중장년의 고용가능성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통합적으로 고찰하였음. 또한 재단 사업이 생애설계준비에 효과성이 있는지 검증하였음.
-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음.
 - 재단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는 생애설계준비 정도에 이질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함. 분석 결과 생애설계준비도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여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 대상을 분리하여 단계별 분석을 실시하였음.
 - 생애설계준비를 유형화하기 위해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고, 통계적 기준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하였음.
 - 잠재 프로파일 분석으로 분류한 생애설계준비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개인 특성, 가정환경 특성, 심리적 자원 특성을 중심으로 일원분산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음. 또한 각 집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 재단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 간 고용가능성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유사한 생애설계준비 특성을 지닌 두 개의 집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결합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재단 사업 중 생애설계준비에 효과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 먼저, 재단 사업 참여자 53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생애설계준비를 유형화한 결과, 생애설계준비의 모든 지표가 낮은 수준을 보이는 ‘생애설계 참여노력형’, 생애설계준비 모든 지표가 전반적으로 중위 수준의 양상을 띠고 있는 ‘생애설계 참여적극형’, 생애설계준비의 모든 지표가 높은 수준인 ‘생애설계 참여완성형’의 3개의 유형이 도출되었음.

- ‘생애설계 참여노력형’은 전체의 23.7%로, 다른 집단 대비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전문대학 졸업자가 많았으며, 월 소득이 300만원 미만과 300~499만원인 경우가 많았음. 주관적 건강 상태와 경제 상태가 나쁨 또는 보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고, 회복탄력성 및 자기효능감, 평생학습역량,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 같은 심리적 자원 수준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생애설계 참여적극형’은 전체의 42.9%로, 4년제 대학교 졸업자가 많았고, 월 소득이 500~699만원인 경우가 많았음. 주관적 건강 상태를 보통 또는 좋은 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관적 경제 상태는 보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음. 또한 회복탄력성 및 자기효능감, 평생학습역량,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 같은 심리적 자원 수준이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 ‘생애설계 참여완성형’은 전체의 33.4%로, 대학교 졸업과 대학원 졸업자가 많았고, 월 소득이 700~999만원,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았음. 주관적 건강 상태 및 경제 상태를 좋은 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리적 자원 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재단 사업 미참여자 10,29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생애설계준비를 유형화한 결과, 생애설계준비의 모든 지표가 낮은 수준을 보이는 ‘생애설계 노력필요형’, 생애설계준비 모든 지표가 전반적으로 중위 수준의 양상을 띠고 있는 ‘생애설계 자율노력형’, 생애설계준비의 모든 지표가 높은 수준인 ‘생애설계 자율완성형’의 3개의 유형이 도출되었음.
 - ‘생애설계 노력필요형’은 전체의 22.5%로, 다른 집단 대비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전문대학 졸업자가 많았으며, 월 소득이 300만원 미만과 300~499만원인 경우가 많았음. 또한 주관적 건강 상태를 보통, 주관적 경제 상태를 나쁨 또는 보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음. 다른 집단 대비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1인 가구와 3세대 및 기타 가구 형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다른 집단 대비 전세와 월세 및 기타의 비율이 높았고, 회복탄력성 및 자기효능감, 평생학습역량,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 같은 심리적 자원 수준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생애설계 자율노력형’은 전체의 45.5%로, 4년제 대학교 졸업자가 많았으며, 월 소득이 500~699만원인 경우가 많았음. 주관적 건강 상태를 좋음, 주관적 경제 상태를 보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고, 다른 집단 대비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으며, 주택점유

형태가 자가인 경우가 많았음. 마지막으로 심리적 자원 특성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 '생애설계 자율완성형'은 전체의 32.0%로,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대학원 졸업자가 많았음. 현재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와 월 소득이 700-999만원,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았으며, 주관적 건강 및 경제 상태를 좋은 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음. 2세대 가구로 구성된 비율이 높았으며,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인 경우가 많았음. 마지막으로 심리적 자원 특성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재단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고용가능성과 삶의 만족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유사한 생애설계준비 특성을 지닌 두 개의 집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결합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 고용가능성의 경우, 생애설계준비 유형이 하위 수준인 집단에서는 생애설계 참여 노력형(사업 참여)이 생애설계 노력필요형(사업 미참여)에 비해 고용가능성이 높았고, 생애설계준비 유형이 중위 수준인 집단에서는 생애설계 참여적극형(사업 참여), 생애설계 자율노력형(사업 미참여)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또한 생애설계준비 유형이 상위 수준인 집단에서는 생애설계 참여완성형(사업 참여)이 생애설계 자율완성형(사업 미참여)에 비해 고용가능성이 높았음.

- 삶의 만족도의 경우 생애설계준비 유형이 하위 수준인 집단과 중위 수준인 집단에서는 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반면, 생애설계준비 유형이 상위 수준인 집단에서는 생애설계 참여완성형(사업 참여)이 생애설계 자율완성형(사업 미참여)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음.

- 마지막으로 재단 사업 중 생애설계준비에 효과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음.

- 분석 결과, 전체 9개의 프로그램 중 생애설계진단 및 상담과 생애·경력설계 교육 프로그램이 생애설계준비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통제 변수에서는 월 소득과 재직 경험, 주택점유 형태,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평생 학습역량이 유의한 결과로 나타남.

2. 제언

- 재단 사업 참여자가 미참여자보다 생애설계준비도가 높게 나타난 만큼 다양한 계층의 중장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참여자 확대를 위한 홍보가 필요함.
- 재단 사업 중 경력설계 지원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즉 ‘경력설계 T.R.I.P 프로그램’, ‘경력설계 상담’, ‘직업역량강화 교육’의 내실화와 고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상담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강소량 외(2020)의 연구에 따르면, 50+세대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에는 공공기관에서의 상담이 큰 영향을 미치며, 상담 후 이어지는 교육훈련 또는 일자리 정보 습득 등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유럽의 NICE(Network for Innovation in Career Guidance and Counselling in Europe)는 고용서비스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커리어 정보 및 검사, 커리어 교육, 커리어 상담, 프로그램 및 서비스 관리, 사회제도 개입 및 개발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음.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상담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상담 인력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직업상담 자격을 보유한 전문 상담 인력을 채용하거나, 컨설턴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 기반 교육훈련 체계를 수립하고, 직무교육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체계적인 핵심역량 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뿐만 아니라, 컨설턴트 간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컨설턴트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거나, 유형별·대상별 우수 상담기법에 대한 워크북을 발간하여 제공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생애설계준비 유형별로 개인 특성, 가정환경 특성, 심리적 자원 특성의 차이가 있었으며, 따라서 생애설계준비 유형에 따른 표적화된 정책 설계가 필요함.
 - 생애설계준비도가 낮은 ‘생애설계 참여노력형’과 ‘생애설계 노력필요형’은 저학력, 저임금 등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으므로 생애설계준비에 현실적 장애물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이들 집단에 속해 있는 중장년들이 적극적으로 생애설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실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예컨대 국민연금공단 또는 서민진흥원을 통한 재무설계 연계를 고려해 볼 수 있음. 또한 공공근로사업이나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같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를 포함하여 분야별 전문 기관과의 적극적인 MOU 체결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들 집단은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평생학습역량,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심리적 자원을 높일 수 있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연계도 필요함. 예컨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장(성실)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성취 프로그램 등은 구직 기술 향상과 함께 취업 자신감 제고, 자존감 회복, 사회성(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생애설계준비도가 높은 ‘생애설계 참여완성형’과 ‘생애설계 자율완성형’은 다른 집단 대비 경제적 상태 및 건강 상태, 심리적 자원 등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므로, 생애설계준비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함.
- 생애설계준비는 고용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재단 내 다른 프로그램 또는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함.
 -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단 사업 중 취업 지원 서비스, 경력 전환 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사업 중 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중장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임소현, 2023).
 - 또한 직업훈련 관련 프로그램 참여시 생애설계에 대한 고려 없이, 평소의 관심 분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취업지원 서비스 또는 40대 특화 직업전환 전문교육 등에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생애진로사정을 고려한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직무 수행 능력 강화 및 직업 경험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활성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중장년의 생애설계준비 관련 정부 차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현재 중장년 중 고용취약계층의 생애설계준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중년 특화과정 등이 있음(박지원 외, 2022).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지원제도와 중복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원 대상의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훈련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다른 대출 지원제도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제도 개선을 통해 고용 취약계층의 생계비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 중장년 채용 기업의 지원금 확대 및 사회공헌일자리 제공 등의 제도적 연계가 필요함. 장년 인턴 취업지원제의 경우 약정 임금 및 지원 금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제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사업의 예산 배분이 다른 정책 대상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재취업지원서비스 및 생애경력설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중년 적합 직무 장려금, 생애경력경력설계서비스,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 관련 제도의 성과 검토를 통해 예산 배분을 늘릴 필요가 있음.

제3장

서울시 중장년 경력적응성 모형 검증: 40대를 중심으로



제3장

서울시 중장년 경력적응성 모형 검증: 40대를 중심으로

제1절 연구 추진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 인구고령화, 무한경쟁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체계의 전환으로 인한 중장년층의 적응적 삶을 위한 생애설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위한 학문적 이해와 기반이 요구되는 상황임.
 - 중장년층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면서 경제적 역할의 축소를 경험하고, 신체적 노화를 당면하며 증첩되는 어려움을 겪음.
 - 불확실성과 가변성이 증폭되는 현대 직업 세계에서 국내 중장년층은 경력 및 진로 설계와 관련된 다양한 과제를 요구받는 상황임. 급변하는 미래 사회와 직업 환경은 중장년층의 직업 및 생애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도전임. 중장년층은 발달적으로 신체적·인지적 쇠퇴를 경험하기 시작하며 이에 따른 감정적·심리적 동요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함.
- 진로 심리 및 상담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직업 세계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다변화되는 직업 환경에서 요구되는 개인의 역량·기술인 경력적응성 (career adaptability)을 제안함.
 - 경력적응성은 Savikas의 진로구성이론에 바탕을 둔 개념으로 주관적인 자신과 직업에 대한 관점을 형성해 나가고, 예측할 수 있는 혹은 예측 가능하지 않은 다양한 진로와 관련된 과제 혹은 문제를 수행하는데 적절하게 대처하고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역량으로 정의됨(Hirisch, Hermann, & Keller, 2015; Savickas, 2002; 2005; 2013).
 - 진로구성이론에 따르면 경력적응성의 예측 요인은 성격, 자기존중감, 미래에 대한 태도와 같은 적응 준비(adaptive readiness)인데, 적응 자원(adaptability resources)은

직업탐색, 계획, 실행을 포함한 일련의 적응 행동(adapting responses)을 촉진하며 그 결과 진로 및 직업 만족, 주관적 삶의 만족 등의 다양한 적응 관련 결과(adaptation results)들을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가정함.

- 중장년에 대한 직업·진로 지도, 상담, 및 교육은 자기이해나 의사결정을 돕는 전통적인 방식의 개입보다는 연속적인 과정으로서 중장년이 미래 직업 환경의 변화와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로·직업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
 - 이러한 도전과 과제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논의되는 경력적응성(career adaptability)의 선행 및 결과 변인에 대한 국내의 논의가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국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경력적응성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한 경험적 논의는 전무한 상태임.
 - 성인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다수의 경험적 연구에서 경력적응성이 진로결정 효능감, 진로 및 직업 만족, 직업·진로 관련 의지, 고용가능성 등 다양한 진로 및 심리 영역의 적응적 변인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보고하며 적응에 대한 진로구성주의 모형의 타당성을 지지함.
 -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적응에 대한 진로구성주의 모형을 적용할 필요성을 시사함.
-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실태조사(임소현, 2023)」 데이터를 분석하여 중장년층의 적응적 생애설계 준비와 행동, 진로·직업에 대한 만족, 삶의 만족과 같은 긍정적 결과의 예측 요인으로서 진로적응성의 기제를 검토하고자 함.
 -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직업세계(world of work)에서 중장년층의 일과 삶에 대한 적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초점을 두어, 불확실성이 경력적응성, 경력적응적 반응(예시: 생애영역 설계 관리, 자기효능감)이라는 매개 요인을 통해 주관적인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함.
- 연구 대상 집단의 경험 및 환경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연구 결과의 적용 가능성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40대 성인 집단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음.
 - 최근 빠른 퇴직과 실직으로 인해 40대부터 자발적으로나 비자발적으로 경력 전환을 준비하거나 경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40대부터 생애설계준비를 효과적으로 조력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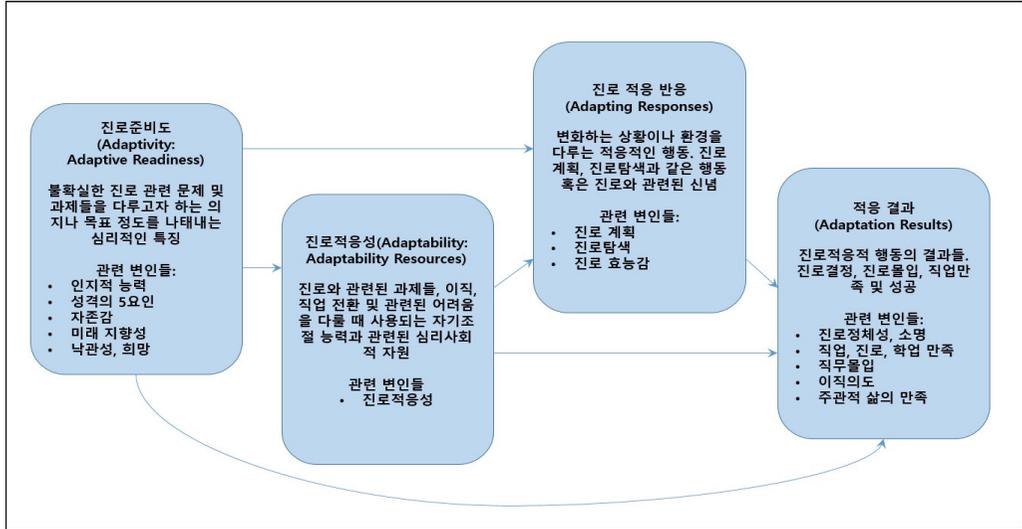
2. 선행연구 검토

- 경력적응성(career adaptability)은 Savickas의 진로구성주의 이론에 바탕을 둔 개념으로 인공지능의 발달 등 기술의 빠른 발전은 직업 시장의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렇게 다변화되는 직업 세계 내에서 요구되는 개인의 기술 및 역량으로 경력적응성이 주목 받고 있음.
 - 경력적응성은 주관적인 자신과 직업에 대한 관점을 형성해 나가고, 예측할 수 있는 혹은 예측 가능하지 않은 다양한 진로와 관련된 과제 혹은 문제를 수행해 나가는데 적절하게 대처하고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역량임(Hirisch, Hermann, & Keller, 2015; Savickas, 2002; 2005; 2013).
- 진로구성이론에서 제시한 적응 모형에 따르면(그림 3-1 참조), 경력적응성은 개인의 심리적 자원과 행동을 연결시키는 주요한 변인임.
 - 경력적응성은 성격, 인지적 능력, 미래지향성, 자기존중감, 낙관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으로서 적응 준비(adaptive readiness)에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경력적응성은 적응 자원(adaptability resources)으로서 직업탐색, 경력 개발 계획 및 실행을 포함한 일련의 적응적 반응(adapting responses)을 촉진하며 그 결과 진로 및 직업 만족, 직무몰입, 주관적 삶의 만족 등의 다양한 적응적 결과(adaptation results)를 야기한다고 가정함.
- 경력적응성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심(concern), 호기심(curiosity), 통제(control), 자신감(confidence)의 네 가지 속성 진로 적응성의 주요 하위 요인임이 여러 문화권 내에서 확인됨(Savickas & Porfeli, 2012; Tak, 2012).
 - 관심은 미래 진로 및 경력에 대한 관심을 말하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함. 이 연구에서는 40대 경력 및 경력 전환을 고려하여 관심을 생애설계준비를 포함하여 미래 진로 및 경력에 대한 관심으로 조작적 정의하였음.
 - 통제는 경력 및 진로에 대해 조절할 수 있는 통제력으로 자신의 경력에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의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함. 이 연구에서는 40대 경력 및 경력 전환을 고려하여 통제를 생애설계준비를 포함하여 미래 진로 및 경력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책임감을 가지려는 태도로 조작적 정의하였음.

- 호기심이란 외적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의미하며 자신과 직업 세계 간에 적합성을 탐색하려는 태도임. 이 연구에서는 40대 경력 및 경력 전환을 고려하여 호기심을 생애 설계준비를 포함하여 미래 진로 및 경력에 대한 탐색과 개방성으로 조작적 정의하였음.
- 자신감은 자신의 진로·직업적 미래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데, 도전적인 문제 혹은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포함함. 이 연구에서는 40대 경력 및 경력 전환을 고려하여 자신감을 생애설계준비를 포함하여 미래 진로 및 경력을 탐색하고 설계하는 경험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감으로 조작적 정의하였음.
- 40대 및 중년(40~50대) 대상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주로 남녀를 구분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진로전환이 주요한 주제임(예: 중년여성의 진로전환 연구, 이시현, 이제경, 2023; 박선영, 2023; 김미령, 2022; 이기쁨, 김희수, 2022, 김희선, 왕은자, 2022 등, 중년 남성 대상 진로전환 연구, 이은주, 이지연, 2020, 안후남, 김연홍, 2019, 박선영, 유현실 등).
 - 연구는 주로 질적 연구이거나 매개효과 등 상관 기반 연구임.
 - 중년 성인 연구에서 다른 이론보다 진로구성주의 입장의 연구가 많은 경향을 보임(예: 안후남, 이제경, 2016, 2017; 배선희, 손은령, 2022 등).
 - 이러한 연구들은 각 집단의 진로 및 진로전환 경험을 풍부하게 묘사하고, 구체화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정책적 차원에서 각 집단의 특성을 유의미하게 비교하거나 차별점을 시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미취업집단과 재직 집단 등 재직상태와 성별에 따른 서로 다른 경험을 비교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경력적응성을 중심으로 한 진로구성주의 모형인 진로적응모형을 다룬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 대학생 혹은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강혜정, 2021; 신운정, 이은설, 2018),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소수 있음(김나래, 2022; 박현미, 유나현, 2023). 진로적응모형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지지되고 있음.
 -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진로적응모형에 대한 문헌 고찰 연구가 있었으나(임도영, 김성길, 2020), 국내에서 경험적 연구로는 수행된 바 없음.
-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현재 경력 전환을 논의하는 핵심 이론이 되는 진로구성주의를 적용하여 서울시 40대 성인 대상으로 경력적응성 모형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성별을 주요 변인으로 한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음.

-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40대 성인 대상으로 경력적응성 모형을 검증하고, 구체적으로 성별 및 고용 상태를 고려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그림 3-1] 적응에 대한 진로구성모형 이론(Rudolph et al., 2017)

3.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진로구성주의 이론의 경력적응성 모형을 토대로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 준비 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울시 40대 성인 남녀의 경력적응성 및 관련 요인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임.

- 첫째, 기초분석으로 주요 변인의 기초통계결과를 중심으로 성별 및 재직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둘째,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직업세계(world of work)에서 중장년층의 일과 삶에 대한 적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초점을 두어, 불확실성이 경력적응성, 경력적응적 반응(예시: 생애영역 설계관리, 자기효능감)이라는 매개 요인을 통해 주관적인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함.

- 다집단분석을 통해 성별 및 재직상태에 따라 경력적응성 모형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함.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분석개요

- 이 연구는 서울시 40대 성인남녀가 직면한 경력개발 및 경력적응을 조력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 및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음.
 - 중장년 경력개발 및 경력적응, 경력적응성 모형 등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하여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함
 - 문헌분석 결과에 입각하여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실태조사 문항을 검토하여 패널 조사 문항 중 경력적응성 측정하는데 타당한 문항을 선정하였음. 이어 선정된 경력적응성 측정 문항에 대한 전문가 평정을 통해 그 타당성을 확보함.
 - 기초분석으로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실태조사의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 모형인 경력적응성 모형의 주요 변인을 대상으로 성별 및 재직 유형 특성을 중심으로 평균 간 차이를 살펴보았음.
 -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실태조사의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모형인 경력적응성 모형을 검증하였음.
 - 이러한 연구모형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40대 성인남녀 및 재직 유형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음.

2. 연구대상

- 이 연구는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실태조사에 데이터 중 40대에 해당하는 4,719명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음.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3-1>과 같음.
 - 전반적으로 성별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남성 51.8%, 여성 48.2%), 현재 재직자가 3,910명으로 전체 연구 대상의 82.7%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재직 중은 아니나 과거 재직 경험 보유자가 621명(13.2%), 과거 재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197명(4.2%)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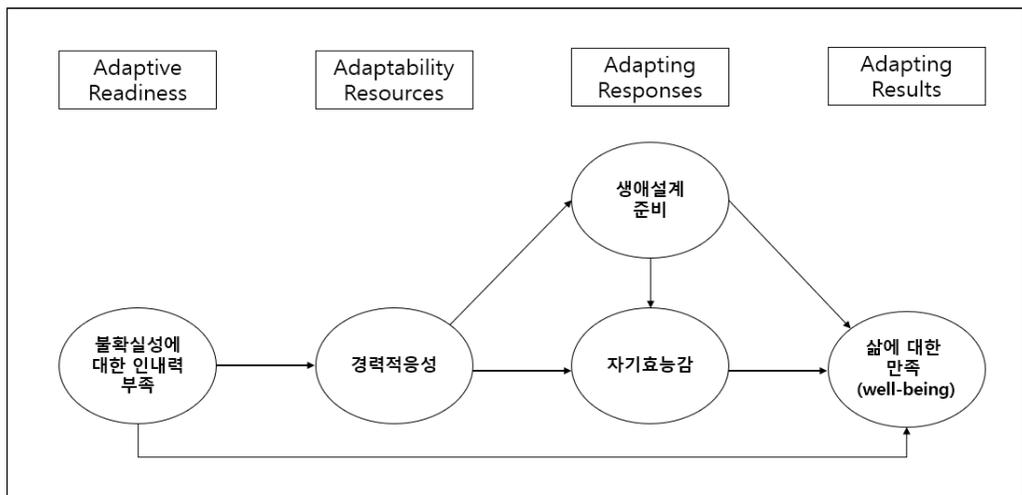
- 혼인상태의 경우, 연구 대상의 80.7%인 3,810명이 기혼이었으며 미혼이 810명 (17.2%), 별거 및 이혼이 93명(2%), 사별이 6명(0.1%)인 것으로 확인됨.
-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2명, 고등학교 졸업이 553명(11.7%), 2~3년제 대학교 졸업이 1,036명(22.0%), 4년제 대학교 졸업이 2,710명(57.2%), 대학원 졸업이 427명 (17.2)으로 확인되었음.
- 가구 형태를 살펴보면 자가 전체 54.5%로 가장 많았으며 전세(38.0%), 월세(7.0%)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월 소득의 경우 100만원 미만부터 1,0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해서 고려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소득 구간은 500만원에서 599만원으로 전체 연구 대상의 18.7%가 해당했으며 전체의 50%가 400만원에서 699만원의 월 소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관적 경제 상태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5.6%가 '보통이다'로 응답했으며 전체 중 78%가 주관적 경제 상태를 보통 이상('매우 좋다' 응답 포함)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N=4,719)

내용	구분	빈도	%	내용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2,445	51.8	월 소득	100만원 미만	65	1.4
	여성	2,274	48.2		100만원 ~ 149만원	23	0.5
재직경험	재직자	3,901	82.7		150만원 ~ 199만원	39	0.8
	재직경험 보유	621	13.2		200만원 ~ 249만원	121	2.6
	재직경험 없음	197	4.2		250만원 ~ 299만원	179	3.8
서울권 인식여부	들어본적 있음	1,304	27.6		300만원 ~ 399만원	569	12.1
	들어본적 없음	3,415	72.4		400만원 ~ 499만원	797	16.9
재단사업 참여경험	있음	149	3.2		500만원 ~ 599만원	882	18.7
	없음	4,570	96.8		600만원 ~ 699만원	739	15.7
거주지역	강남구	312	6.6		700만원 ~ 799만원	499	10.6
	강동구	252	5.3	800만원 ~ 899만원	333	7.1	
	강북구	131	2.8	900만원 ~ 999만원	166	3.5	
	강서구	257	5.4	1,000만원 이상	307	6.5	
	관악구	208	4.4	매우 나쁘다	143	3.0	
	광진구	155	3.3	2	219	4.6	
	구로구	202	4.3	3	672	14.2	
	금천구	120	2.5	4. 보통이다	2,153	45.6	
	노원구	252	5.3	5	1,139	24.1	
	도봉구	130	2.8	6	358	7.6	
	동대문구	160	3.4	7. 매우 좋다	35	0.7	
	동작구	196	4.2	1. 매우 나쁘다	52	1.1	
	마포구	186	3.9	2	105	2.2	
	서대문구	133	2.8	3	363	7.7	
	서초구	232	4.9	4. 보통이다	1,396	29.6	
	성동구	122	2.6	5	1,423	30.2	
	성북구	218	4.6	6	1,130	23.9	
	송파구	345	7.3	7. 매우 좋다	250	5.3	
	양천구	229	4.9	중학교 졸업 이하	2	0.0	
영등포구	184	3.9	고등학교 졸업	553	11.7		
용산구	132	2.8	2·3년제 대학교 졸업	1,036	22.0		
은평구	245	5.2	4년제 대학교 졸업	2,701	57.2		
종로구	74	1.6	대학원 졸업	427	9.0		
중구	57	1.2	미혼	810	17.2		
중랑구	187	4.0	기혼(사실혼 포함)	3,810	80.7		
거주유형	아파트	2,771	58.7	별거 및 이혼	93	2.0	
	단독주택	322	6.8	사별	6	0.1	
	다세대주택	539	11.4	1인가구	459	9.7	
	오피스텔 등	1,073	22.7	1세대 가구	617	13.1	
	기타	14	0.3	2세대 가구	3,383	71.7	
주택점유형태	자가	2,571	54.5	3세대 가구	246	5.2	
	전세	1,791	38.0	비혈연 가구	14	0.3	
	월세	334	7.0				
	무상	23	0.5				

3. 연구모형

- 이 연구는 크게 네 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졌음.
 - 이 연구에서는 진로구성주의 이론의 적응 모형을 토대로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40대 중장년의 경력적응성 및 관련 요인과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함([그림 3-2] 참조).
 - 보다 구체적으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직업세계(world of work)에서 중장년층의 일과 삶에 대한 적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초점을 두어, 불확실성이 경력적응성, 경력적응적 반응(예시: 생애영역 설계관리, 자기효능감)이라는 매개 요인을 통해 주관적인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함.



[그림 3-2] 연구모형

4.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 이 연구는 크게 네 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졌음.
- 첫째, 진로구성주의 이론에서 제안하는 경력적응성의 개념에 기초하여 이를 측정하는 문항을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실태조사]의 조사 문항에서 추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평정을 하고 문항 분석을 통하여 경력적응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구성하였음. 또한, 이 과정을 통해

구성된 경력적응성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검토하였음.

- 둘째, 연구모형에서 포함된 주요 측정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간 상관 등의 통계를 산출하여 기술적 경향을 파악하고 상관분석을 통해 측정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음. 또한, 이 과정에서 성별, 채용 형태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음.
-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음. 이때, Kline(2011)이 제안한 두 단계 검증 방법에 따라 측정 모형을 검토한 후 구조모형을 분석하였음.
 - 계수의 추정 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음.
 -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Chi-square, Comparative Fit Index(CFI), Incremental Fit Index(IFI), Tucker-Lewis Index(TL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및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SRMR)을 고려하였음. CFI, IFI, TLI의 경우 .90 이상일 때 모형이 적합함을 제안하며 RMSEA, SRMR의 경우 .08이하인 경우 모형의 적합도를 제안함(Hu & Benter, 1999; Loehlin, 2004).
 - 측정 모형 검증에 앞서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삶에 대한 만족, 자기효능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변인을 측정하는 척도에 대해 Item-to-Construct Balance 방식(Little, Cunningham, Shalar, & Widaman, 2002)을 이용하여 문항 꾸러미(item parceling) 제작하였음.
 - 또한,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검증법을 통해 연구모형인 구조모형에서 검증된 변인 간의 직접적인 경로 이외에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음. 1,000개의 표본을 원자료로부터 생성하여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음.
- 넷째, 성별과 재직상태(예: 경력 및 재직 여부) 등으로 분류한 집단에 따라 연구모형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즉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각 경로를 성별 및 재직상태가 조절하는지의 효과를 검토하였음.

5. 조사도구

- 경력적응성 측정을 위해 기존 조사 문항을 재구성하였으며, 통계분석을 거쳐 최종 16문항을 선정하여 활용하였음.
 - 이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모형에 포함되는 연구 변인인 경력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해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실태조사]에서 추출한 문항을 바탕으로 측정 개념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평정 및 문항 분석을 하였음.
 - 경력적응성 개념의 경우 기존에 사용되는 척도가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실태 조사]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으나, 해당 조사에 포함된 다양한 문항들이 기존 경력적응성 측정 도구(예: 김민선, 고은영, 2020)에서 사용되는 하위 요인 및 문항에 상응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문항 선정 후 전문가 평정 및 문항 분석을 거쳐 사용하였음.
 - 전문가 자문 및 평정
 - 전문가 자문을 위해 연구진은 한국에서 타당화를 거쳐 활용되고 있는 경력적응성 및 진로적응성 측정 도구를 정리하고 하위 요인과 문항을 검토하였음. 구체적으로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타당화된 총 5개의 척도(김민선, 고은영, 2020; Tak, 2012; 탁진국, 이은주, 임그린, 2015; 이미애, 탁진국, 2022; 장계영, 김봉환, 2011)를 확인하였으며, 경력적응성을 측정하는 총 137문항이 포함됨.
 - 기존 경력적응성 척도의 하위 요인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았으며, 하위 요인의 명칭에도 차이는 있었음. 그러나 모든 척도가 Savickas(2005)의 경력적응성 (career adaptability) 개념 및 하위 요인인 관심, 통제, 호기심, 확신의 개념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기존 척도 중 3개 척도가 이 4개의 하위 요인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의 문항 추출도 Savickas(2005)의 4개 하위 요인을 기준으로 하였음.
 - 1차 문항 추출은 연구진이 각자 패널 조사 설문지를 검토하고 하위 요인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문항을 선정하여 목록을 만드는 과정으로 수행되었으며 21문항이 추출되었음.
 - 2차 문항 추출은 각자 작업한 문항 목록을 합친 후, 하위 요인별 문항을 분류하고 검토하면서 다시 문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하위 요인을 변경하는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이 과정에서 6문항이 추가되고, 2문항이 하위 요인을 수정

되었음. 연구진은 4개 하위 요인에 대하여 최종 27문항(관심 8문항, 통제 7문항, 호기심 6문항, 자신감 6문항)을 추출하였음.

- 추출된 문항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내용타당도 검토와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구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음.
 - 내용타당도 확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에는 총 5인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음. 전문가 집단은 경력적응성 및 진로구성주의를 주제로 경험적 연구를 출판한 경험을 기준으로 전문가를 선정하였음.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5인은 상담심리, 상담 교육, 학교 상담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이자 대학교수로서, 평균 12.6년의 진로연구 경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됨.
 - 전문가들은 우선 각 하위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검토하고 각 문항의 적절성을 5점 Likert 척도(1=매우 부적절하다, 5=매우 적절하다)를 사용하여 평정하였으며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음. 전문가 평정을 위해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실태조사]에서 각 하위 요인에 대한 Savickas(2005)의 정의와 기존 척도의 문항을 패널 추출 문항과 함께 제시하여 전문가가 패널 추출 문항을 기존 척도의 문항과 비교하여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 전문가 평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문항에 대한 적절성 평균은 관심 하위 요인 4.3(범위 3.4~4.8), 통제 하위 요인 3.6(범위 2.6~4.4), 호기심 하위 요인 3.23(범위 2.4~3.8), 자신감 하위 요인 4.3(범위 4.0~4.8)으로 나타났음. 문항 중 적절성에 대한 5인의 평균이 3점 미만인 경우 삭제하였으며, 총 2문항이 제거되었다. 따라서 관심 8문항, 통제 6문항, 호기심 5문항, 자신감 6문항으로 총 25문항을 문항 분석에 사용하였음.
- 문항 양호도 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 경력적응성 측정을 위한 25문항에 대해 각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범주별 반응 빈도와 하위척도에 해당하는 문항의 문항-총점 간 상관을 기준으로 하여 문항의 적절성을 판단하였음. 문항-총점 간 상관이 .30인 문항은 다른 문항과 동일한 수준에서 경력적응성의 심리적 속성을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용을 검토한 후 삭제하였음. 또한, 각 하위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문항 간 상관을 살펴보고 상관이 높은 문항에 대해 의미가 중복되는지 검토하여 삭제하였음.

-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4요인 및 각 요인에 대한 문항 부하량을 검토하여 문항을 삭제하였음. 그 결과 총 13문항이 제거되었음. 문헌분석, 전문가 평정, 문항 분석을 통해 구성된 경력적응성 척도의 최종 문항은 각 하위 요인당 4문항으로 <표 3-2>와 같음.
- 경력적응성을 측정하는 최종 16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chi^2(98, N=4719) = 1960.535, p < .001, CFI = .946, IFI = .946, TLI = .926, RMSEA = .063, 90\% \text{ confidence interval (CI) } [.062, .066]$ 으로 나타나 측정 모형이 적절한 것을 확인함. 또한, 각 하위 요인을 측정하는 개별 문항(측정 변인)의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력적응성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전체 문항이 .93, 관심 하위 요인은 .80, 자신감 하위 요인은 .77, 통제 하위 요인은 .78, 호기심 하위 요인은 .79로 나타남.

<표 3-2> 경력적응성 하위 요인 및 문항

하위 요인명	문항
관심 (concern)	앞으로의 인생의 새로운 도전과 전환을 위해 평생학습에 참여할 것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삶(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 습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나 자신이 평생 동안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평생학습자로 인식한다.
자신감 (confidence)	내가 하려는 일과 관련하여 최신의 지식과 기술 동향에 대해 알고 있다.
	일을 할 때 나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내가 직면한 다양한 상황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처리할 수 있다.
통제 (control)	비록 장애물이 있더라도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내가 접한 지식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생각이다.
	나의 생활 및 일과 관련된 과제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하우(지식)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호기심 (curiosity)	일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알고 있다.
	과거의 지식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려고 노력한다.
	삶(생활)과 관련된 지식을 어디에서 습득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객관적인 분석 결과(적성, 흥미, 성격검사 등)를 기반으로 나에게 대해 알고 있다.
	새로운 지식,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Freeston et al.(1994)이 개발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척도(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의 12문항을 통해 측정되었음.
 -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7점 리커트식 평정(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에 못 견디는 성향이 많음을 의미함.
 - 문항의 예시로는 “예측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매우 당황한다”, “확신이 없을 때, 나는 일을 진행할 수 없다”, “예측하지 못한 일을 피하려면 항상 앞일을 생각해야 한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항상 알고 싶다” 등이 있음.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측정하는 12문항 전체에 대한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89로 확인됨.
- 생애영역 설계관리는 임소현, 이승엽, 이영광(2022) 개발한 생애설계준비 가운데 20문항을 사용하였음.
 - 생애영역 설계관리를 측정하는 20문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설계관리, 재무 설계관리, 생애역할 설계관리, 일(경제활동) 설계관리, 여가활동 설계관리의 다섯 가지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하위 요인당 4개 문항을 포함함.
 - 문항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면 신체적·정신적 건강 설계관리에 해당하는 “나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재무 설계 관리의 경우 “경제적 관리(소득, 부채, 재산, 부동산 등)를 위한 목표가 있다”, 생애역할 설계관리에 해당하는 “변화하는 생애역할을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일(경제활동) 설계관리에 해당하는 “일(경제활동)하기 위한 구직 과정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여가활동 설계관리 하위 요인을 측정하는 “여가활동(취미활동, 친목활동, 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등)을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를 포함함.
 -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7점 리커트식 평정(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에 대한 생애설계 계획, 목표, 실천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 생애영역 설계관리 척도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전체 문항이 .95, 신체적·정신적 건강 설계관리 .89, 재무 설계관리 .86, 생애역할 설계관리 .86, 일(경제활동) 설계관리 .85, 여가활동 설계관리 .90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자기효능감은 Chen et al(2001)의 8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음.
 - 문항의 예시로는 “어려운 일에 직면해도 그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일을 효과적으로 해낼 자신이 있다”, “내가 정한 일에 노력을 기울이면 대체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등이 있음.
 -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7점 리커트식 평정(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경력 등의 임무나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기대와 신념이 높음을 의미함.
 -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총 8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90으로 확인됨.
- 삶의 만족도는 Diener, Emmons, Larson과 Criffin(1985)이 개발 및 타당화한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이 사용하여 측정하였음.
 - SWLS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단일요인의 5문항으로 구성됨(예: 대체로 내 삶은 나의 이상적인 생각에 가깝다, 내 삶에 만족한다).
 -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7점 리커트식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응답하게 되어 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 SWLS 5문항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90으로 확인됨.

제3절 연구 결과

1. 연구 변인 기초통계

- 중장년 경력적응성 및 경력적응성 예측요인(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및 결과 변인(생애영역 설계관리, 자기효능감, 삶에 대한 만족)에 대한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3-3>에 제시함.

<표 3-3> 연구 변인 간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N=4,719)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27	1												
3	.26	.68	1											
4	.24	.70	.71	1										
5	.30	.79	.71	.73	1									
6	.29	.89	.87	.88	.91	1								
7	.27	.50	.57	.57	.55	.61	1							
8	.24	.53	.59	.60	.56	.64	.62	1						
9	.29	.55	.63	.65	.61	.68	.65	.68	1					
10	.27	.55	.61	.63	.60	.67	.61	.66	.78	1				
11	.27	.45	.54	.55	.51	.57	.67	.59	.65	.66	1			
12	.31	.60	.69	.70	.66	.74	.84	.83	.88	.87	.85	1		
13	.28	.67	.80	.69	.70	.80	.57	.60	.62	.62	.55	.69	1	
14	.16	.30	.46	.36	.35	.41	.41	.36	.44	.42	.47	.49	.52	1
M	40.36	19.92	19.29	19.56	19.45	78.40	18.76	19.51	18.75	18.08	18.59	93.71	38.43	21.03
SD	7.76	3.37	3.29	3.34	3.41	11.87	3.91	3.79	3.77	4.29	3.91	16.76	6.52	5.64
왜도	-.32	-.29	-.38	-.31	-.31	-.33	-.51	-.55	-.61	-.64	-.65	-.56	-.66	-.50
첨도	.16	.77	.68	.64	.69	.78	.96	1.18	.99	.85	1.12	1.00	1.65	.12

주1) 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2. 경력적응성_관심 3. 경력적응성_자신감 4. 경력적응성_통제 5. 경력적응성_호기심 6. 경력적응성_전체 7. 생애영역 설계관리_신체적·정신적 건강 설계관리 8. 생애영역 설계관리_재무설계관리 9. 생애영역 설계관리_생애역할 설계관리 10. 생애영역 설계관리_일(경제활동)설계관리 11. 생애영역 설계관리_여가활동 설계관리 12. 생애영역 설계관리_총점 13. 자기효능감 14. 삶의 만족도

주2) 모든 상관이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음.

- 각 변인 간 상관관계는 모두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적 상관을 보였음. 특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경력적응성 등 연구 변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음.

- 측정 변인의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한 결과 왜도는 -.29에서 -.66, 첨도는 .12에서 1.65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 절대값이 왜도 2이상 혹은 첨도 7 이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하였음(West, Finch, & Curran, 1995).

● 연구 변인의 성별 집단 간 차이는 경력적응성의 자신감 요인에서 유의미하게 높았음(〈표 3-4〉 참고).

- 성별에 따라 경력적응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생애영역 설계관리,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와 각 연구 변인의 하위 요인의 평균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검토하였음.

- 그 결과, 경력적응성의 자신감 요인에서 40대 남성의 평균($m=19.39$)이 여성의 평균($m=19.19$)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다른 연구 변인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3-4〉 성별에 따른 연구 변인의 평균 비교 (N=4,719)

구분	t	유의확률 (양쪽)	평균차	남성 평균	여성 평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1.74	.081	-.489	54.47	54.96
경력적응성_관심	-0.43	.665	-.043	19.90	19.94
경력적응성_자신감	2.07	.038*	.199	19.39	19.19
경력적응성_통제	0.45	.653	.045	19.58	19.53
경력적응성_호기심	-0.70	.483	-.070	19.41	19.48
경력적응성_총점	-0.02	.983	-.007	78.39	78.40
생애영역_신체적·정신적 건강	-1.86	.062	-.213	18.66	18.87
생애영역_재무	1.45	.148	.160	19.59	19.43
생애영역_생애역할	-0.08	.933	-.009	18.75	18.76
생애영역_일	1.47	.141	.167	18.67	18.50
생애영역_여가	-0.53	.598	-.066	18.05	18.12
생애영역 설계관리	0.08	.936	.039	93.72	93.68
자기효능감	1.75	.080	.332	38.59	38.26
삶의 만족도	-1.80	.073	-.296	20.89	21.19

주) $p < .05$

- 재직상태 집단 간 연구 변인의 평균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경력적응성, 생애영역 설계관리,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의 경우 차이가 확인되었음(〈표 3-5〉 참조).
 - 재직상태에 기반하여 분류한 집단에 따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경력적응성, 생애영역 설계관리,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의 평균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음.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경력적응성, 생애영역 설계관리,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의 경우 재직자, 재직 경험 있는 미취업자, 재직 경험 없는 미취업자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경우 재직상태에 다른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됨. 구체적으로, 재직자 집단의 자기효능감($m=38.70$)이 현재 재직 경험이 있는 미취업자($m=37.23$), 재직 경험이 없는 미취업자 집단($m=36.69$)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음. 미취업자의 재직 경험 여부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삶의 만족도는 재직자, 재직 경험이 없는 미취업자, 재직 경험이 있는 미취업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재직자의 삶에 대한 만족 수준($m=21.18$)이 재직 경험이 있는 미취업자($m=20.23$)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음. 그러나 미취업자의 재직 경험 여부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생애영역 설계관리 변인의 모든 하위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재직자 집단이 총점 및 모든 하위 요인의 평균이 두 미취업자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력적응성의 경우 관심, 자신감, 통제, 호기심 및 전체 경력적응성에 대한 재직자 집단의 평균이 두 미취업자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음. 호기심 하위 요인의 경우 재직 경험 없는 미취업자 집단의 평균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됨.

〈표 3-5〉 재직상태에 따른 연구 변인의 평균 비교(N=4,719)

변인	F	유의 확률 (양쪽)	사후검증 (Scheffe)	재직자(A) 평균	재직경험 미취업자 (B) 평균	재직경험 없는 미취업자 (C) 평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16	.851	A>B, A>C	40.36	40.25	40.62
경력적응성_관심	29.07	.000***	A>C	20.03	19.81	18.17
경력적응성_자신감	29.05	.000***	A>B, A>C	19.45	18.68	18.08
경력적응성_통제	15.91	.000***	A>B	19.63	19.05	19.56
경력적응성_호기심	15.92	.000***	A>B>C	19.54	19.26	18.19
경력적응성_총점	13.02	.000***	A>B	78.65	76.80	78.39
생애영역_신체적· 정신적 건강	21.29	.000***	A>B, A>C	38.70	37.23	36.69
생애영역_재무	8.28	.000***	A>B	21.18	20.23	20.61
생애영역_생애역할	8.028	.000***	A>C	18.85	18.55	17.79
생애영역_일	24.060	.000***	A>B, A>C	19.68	18.85	18.29
생애영역_여가	21.960	.000***	A>B>C	18.89	18.37	17.24
생애영역_설계관리	35.061	.000***	A>B, A>C	18.80	17.66	17.28
자기효능감	9.014	.000***	A>B, A>C	18.21	17.54	17.42
삶의 만족도	23.615	.000***	A>B, A>C	94.43	90.95	88.01

주) $p^{***} < .001$, $p^{**} < .01$, $p^* < .05$

- 성별 및 재직상태에 따른 연구 변인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음(〈표 3-6〉 참조).
 - 40대 집단을 성별 및 재직상태에 따른 6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 변인 간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6개 집단의 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6〉 성별 및 재직상태에 따른 6개 집단의 구성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G1 재직자 × 남	2335	49.5	49.5	49.5
G2 재직 경험 있는 미취업자 × 남	84	1.8	1.8	51.3
G3 재직 경험 없는 미취업자 × 남	26	.6	.6	51.8
G4 재직자 × 여	1566	33.2	33.2	85.0
G5 재직 경험 있는 미취업자 × 여	537	11.4	11.4	96.4
G6 재직 경험 없는 미취업자 × 여	171	3.6	3.6	100.0
합계	4719	100.0	100.0	-

- 6개 집단에 따른 경력적응성 및 경력적응성 하위 요인에 대한 평균 비교 결과 모든 하위 요인 및 경력적응성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현재 재직 중인 여성 집단의 관심, 통제, 호기심, 경력적응성 총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3-7〉 참조).

〈표 3-7〉 6개 집단의 경력적응성 총점 및 하위 요인별 평균 비교

요인	F	유의 확률 (양쪽)	사후검증 결과 (Scheffe)	G1	G2	G3	G4	G5	G6
경력적응성_ 관심	16.14	.000***	G1)G2, G2)G3, G4)G2G4)G3, G4)G6G5)G6	19.98	18.83	15.96	20.09	19.96	18.51
경력적응성_ 자신감	16.62	.000***	G1)G2, G1)G3G1)G5, G1)G6G4)G2, G4)G5G4)G6, G5)G2G5)G3	19.49	17.49	16.12	19.39	18.86	18.38
경력적응성_ 통제	6.56	.000***	G1)G2, G1)G5G4)G2, G4)G5	19.62	18.42	-	19.66	19.16	-
경력적응성_ 호기심	10.77	.000***	G1)G3, G1)G6G4)G3, G4)G6, G5)G3	19.48	18.61	15.65	19.62	19.36	18.57
경력적응성_ 총점	7.19	.000***	G1)G2, G4)G2G5)G2	78.58	73.35	-	78.76	77.34	-

주) $p^{***} < .001$

- 유의할 점은 재직 경험이 없는 미취업 남성 집단에서 관심, 자신감, 호기심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 점임. 또한 재직 경험이 있는 미취업 남성의 경우 남·녀 재직자 집단 뿐 아니라 재직 경험이 있는 미취업 여성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경력적응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표 3-8〉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의 경우 남성 재직자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은 한편 ($m=38.80$), 재직 경험이 없는 미취업 남성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m=31.96$).

- 삶의 만족도 수준은 재직 중인 여성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m=21.32), 재직 경험 없는 여성, 재직 중인 남성, 과거 재직 경험 있는 여성, 과거 재직 경험 없는 남성의 순으로 이어짐.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경우 6개 집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현재 재직 중인 여성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m=54.93).

〈표 3-8〉 6개 집단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평균 비교

요인	F	유의 확률 (양쪽)	사후검증 결과 (Scheffe)	G1	G2	G3	G4	G5	G6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6.333	.000***	G1>G3, G2>G3, G3<G4, G3<G5, G3<G6	54.59	54.07	44.85	54.98	54.65	55.82
자기효능감	14.513	.000***	G1>G2, G1>G3, G1>G5, G4>G2, G4>G3, G5>G2, G5>G3, G6>G3	38.80	34.89	31.96	38.58	37.59	37.42
삶의 만족도	14.918	.000***	G1>G2, G1>G3, G4>G2, G4>G3, G5>G2	21.09	16.36	17.35	21.32	20.83	21.11

주) p*** < .001

- 생애영역 설계관리 변인의 경우 여성 재직자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재직 경험이 없는 남성 집단의 경우 총점 및 모든 하위 요인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임(〈표 3-9〉 참조). 또한, 여성 재직자 집단과 남성 재직자 집단의 경우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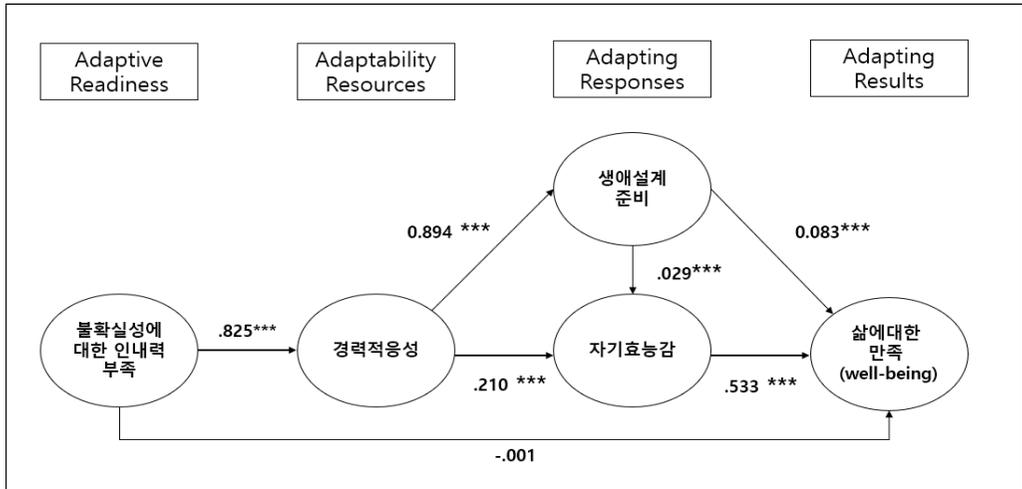
〈표 3-9〉 6개 집단의 생애영역 설계관리 총점 및 하위 요인별 평균 비교

요인	F	유의 확률 (양쪽)	사후검증 결과 (Scheffe)	G1	G2	G3	G4	G5	G6
신체적·정신적 건강 설계관리	8.49	.000***	G1)G2, G1)G3, G4)G2, G5)G2, G4)G3, G5)G3	18.75	17.06	15.69	18.99	18.78	18.11
재무 설계관리	14.85	.000***	G1)G2, G1)G3, G1)G5, G1)G6, G4)G2, G4)G3, G4)G6, G5)G2, G5)G3	19.71	17.31	16.19	19.64	19.08	18.61
생애역할 설계관리	16.22	.000***	G1)G2, G1)G3, G1)G6, G4)G2, G4)G3, G4)G6, G5)G2, G5)G3, G5)G6	18.87	16.58	14.61	18.92	18.64	17.81
일(경제활동) 설계관리	16.17	.000***	G1)G2, G1)G3, G1)G5, G1)G6, G4)G2, G4)G3, G4)G5	18.77	16.63	15.96	18.84	17.81	17.47
여가 설계관리	11.25	.000***	G1)G2, G1)G3, G4)G2, G4)G3, G5)G2, G6)G2	18.19	15.20	15.08	18.23	17.90	17.77
생애영역 설계관리 총점	16.65	.000***	G1)G2, G1)G3, G1)G6, G4)G2, G4)G3, G4)G6, G5)G2	16.57	21.86	15.43	16.41	16.70	16.27

주) $p^{***} < .001$

2. 중장년 경력적응성 모형 검증

- 이 연구의 연구모형인 40대 서울시 성인의 경력적응성 모형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 Anderson과 Gerbing(1988) 및 Kline(2011)의 제안에 따라 측정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성격을 가진 측정 모형의 검토 후 잠재 변인 간에 이론적 관계를 검증하는 구조모형을 검토하는 2단계 방식을 사용하였음.
- 측정모형 검증 결과, 모형 적합성을 확인함.
 - 측정모형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경력적응성, 생애영역 설계관리, 자기효능감, 삶에 대한 만족을 포함하는 다섯 개의 잠재 변인과 각 잠재 변인을 추정하는(예시: 각 3~5개의 측정변수) 총 21개의 측정변수로 구성됨.
 -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179, N = 4719) = 2459.997, p < .001, CFI = .968, IFI = .967, TLI = .962, RMSEA = .054, 90\% \text{ confidence interval } [.052, .056], SRMR = .030$ 으로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절한 수준을 나타내어 측정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또한, 측정 모형의 요인부하량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구조모형 검증 결과, 모형 적합성을 확인함.
 - [그림 3-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설정한 경력적응성의 구조모형을 검증하였음. 모형의 검증 결과 적합도가 $\chi^2(182) = 2649.142, p < .001, CFI = .965, IFI = .961, TLI = .960, RMSEA = .054, 90\% \text{ confidence interval } [.052, .055], SRMR = .035$ 로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절한 수준을 나타내어 측정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다음으로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본 결과 총 7개의 가설경로 중 1개를 제외한(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 삶의 만족도)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됨.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보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서 경력적응성, 경력적응성에서 생애영역 설계관리와 자기효능감, 생애영역 설계관리에서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 자기효능감에서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3-3]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

주) $p < .001$

● 간접효과 검증 결과,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함.

- 구조모형에서 검증된 변인 간의 직접적인 경로 이외에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을 이용하여 간접효과 검증을 실시하였음.
- 그 결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 경력적응성 → 생애영역 설계관리 → 삶의 만족도 경로의 표준화계수가 .086으로(95% confidence interval mean indirect effect [.056, .115])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 경력적응성 → 자기효능감 → 삶의 만족도 간접 경로의 표준화계수가 .142로(95% confidence interval mean indirect effect [.096, .189])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서 경력적응성, 생애영역 설계관리, 자기효능감의 간접 경로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가 .015로(95% confidence interval mean indirect effect [.003, .027])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이 연구모형에서 가정한 변인 간 직접 경로뿐만 아니라 경력적응성, 생애영역 설계관리, 자기효능감을 포함하는 매개 변인을 통한 모든 간접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는 이 연구에서 설정한 진로구성주의 이론에 바탕을 둔 경력적응성 모형이 서울시 40대 성인 남녀의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경력개발 및 적응을 설명하는 모형임을 지지하는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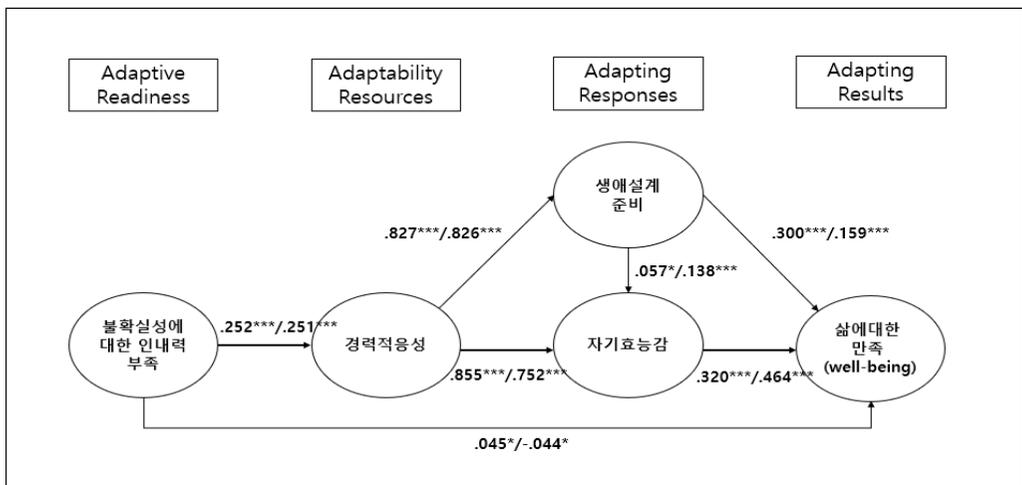
3. 성별 및 재직상태에 따른 중장년 경력적응성 모형의 차이: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 성별에 따른 형태동일성 및 측정동일성 검증하였으며,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이 만족되었음.
 - 이 연구에서는 성별 집단에 따라 연구모형의 형태가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남성, 여성에 따른 두 집단을 따로 분석하여 적합도가 수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음.
 - 남성 집단 $\chi^2(182, N=2445) = 1576.157, p < .001, CFI = .965, IFI = .965, TLI = .955, RMSEA = .056, 90\% \text{ confidence interval (CI) } [.053, .059]$, 여성집단 $\chi^2(182, N=2274) = 1550.482, p < .001, CFI = .961, IFI = .961, TLI = .951, RMSEA = .058, 90\% \text{ confidence interval (CI) } [.055, .060]$ 의 적합도를 보임. 이와 같이 두 집단 모두에서 모형적합도가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어 형태동일성이 만족되었음.
 - 이어 두 집단에서 측정 변인이 동일한 잠재 변인을 구인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두 집단에 요인부하량이 동일하다고 제약을 가한 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을 비교하였음. $\Delta\chi^2$ 뿐만 아니라 CFI, TLI, IFI 지수의 변화를 고려하였음. $\Delta\chi^2(16, N=4719)=28.532, p=.027$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CFI의 경우 제약을 가한 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 모두 .963으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TLI와 IFI의 경우 제약 모형에서 적합도가 소폭이지만 더 좋아짐을 확인했음. 또한, 두 모형의 적합도가 모두 적절한 값을 나타냈으므로 이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 집단에 가정한 측정 변인이 동일한 잠재 변인을 구인한다고 가정하였음.
- 구조동일성을 검증하였으며, 남녀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확인함.
 - 구조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에서 경로계수가 모두 같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과 모두 제약을 가하지 않은 자유 모형을 비교하였음. 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Delta\chi^2(7, N=4719)=32.226, p<.001$).
 - 또한,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의 CFI, TLI, IFI가 소폭이지만 감소하였음. 어느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로를 하나씩 제약한 부분 구조 동일성 모형을 설정하여 자유 모형과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음. 그 결과 <표 3-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력적응성에서 생애영역 설계관리에 이르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χ^2 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0〉 성별 집단에 따른 경로계수 비교

제약 경로		df	Δx^2	P
경로1제약	경력적응성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1	9.847	0.002
경로2제약	생애영역 설계관리 ← 경력적응성	1	0.065	0.799
경로3제약	자기효능감 ← 경력적응성	1	8.03	0.005
경로4제약	자기효능감 ← 생애영역 설계관리	1	5.061	0.024
경로5제약	삶의 만족도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1	4.326	0.038
경로6제약	삶의 만족도 ← 자기효능감	1	7.828	0.005
경로7제약	삶의 만족도 ← 생애영역 설계관리	1	10.149	0.001

- 성별에 따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차이는 [그림 3-4]에서 제시하였음.
- 여성과 남성 모든 집단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경력적응성과 긍정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경력적응성 부적인 직접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한 바와 반대되는 결과이나,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측정하는 문항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대비 행동에 대한 응답자의 승인 정도를 묻는 내용을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됨.
- 이 연구에서 가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경력적응성은 생애영역 설계관리,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직접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계수

주) 남성 집단의 경로계수를 앞에, 여성집단의 경로계수를 뒤에 제시하였음. $p < .05$, $p^{***} < .001$

4. 성별 및 재직상태에 따른 중장년 경력적응성 모형의 차이: 재직상태에 따른 다집단 분석

- 재직상태에 따른 형태동일성 및 측정동일성 검증하였으며,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이 만족되었음.
 - 재직상태에 따라(예시: 현재 재직자 집단, 재직 경험 있는 미취업자 집단) 연구모형의 형태가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재직자와 미취업자 두 집단을 따로 분석하여 적합도가 수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음.
 - 재직자 집단에서는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가 $\chi^2(182, N=3901) = 2372.372, p < .001, CFI = .965, IFI = .965, TLI = .959, RMSEA = .056, 90\% \text{ confidence interval (CI) } [.054, .058]$ 로 나타났으며, 과거 재직 경험이 있는 미재직자 집단은 $\chi^2(182, N=621) = 727.105, p < .001, CFI = .944, IFI = .944, TLI = .936, RMSEA = .070, 90\% \text{ confidence interval (CI) } [.064, .075]$ 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두 집단 모두에서 모형적합도가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어 형태동일성이 만족되었음.
 - 이어 두 집단에서 측정변인들이 동일한 잠재변인을 구인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두 집단에 요인부하량이 동일하다고 제약을 가한 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을 비교하였음. $\Delta\chi^2$ 뿐 아니라 CFI, TLI, IFI 지수의 변화를 고려하였음.
 - $\Delta\chi^2(16, N=4552)=27.401, p=.037$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CFI의 경우 제약을 가한 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 모두 .962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TLI와 IFI의 경우 제약 모형에서 적합도가 소폭이지만 더 좋아짐을 확인하였음. TLI의 경우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에서 .956, 제약을 가한 모형에서 .958로 확인됨).
 - 또한, 두 모형의 적합도가 모두 적절한 값을 나타냈으므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변인들이 재직자 집단과 미취업자 집단에 동일한 잠재 변인을 구인한다고 가정하였음.
- 구조동일성 검증 결과,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확인함.
 - 구조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에서 경로계수가 모두 같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과 모두 제약을 가하지 않은 자유 모형을 비교하였음. 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Delta\chi^2(7, N=4552)=29.959, p<.001; \Delta CFI = -.001; \Delta IFI = -.001$). 어느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로를 하나씩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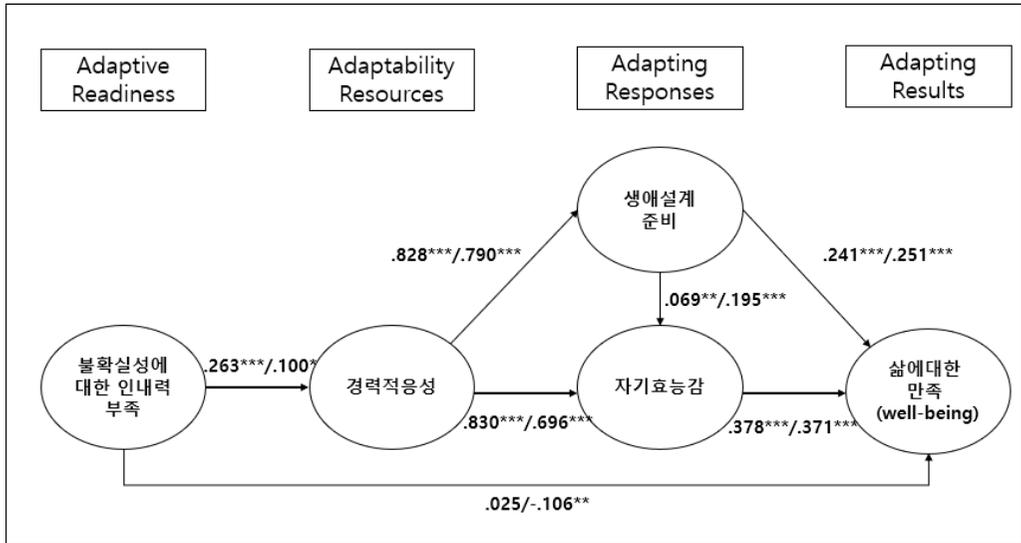
약한 부분 구조 동일성 모형을 설정하여 자유 모형과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음.

- 그 결과 <표 3-1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에서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와 생애영역 설계관리에서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이 두 경로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경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1> 재직자 집단과 재직 경험이 있는 미취업자 집단의 경로계수 비교

제약 경로				df	$\Delta\chi^2$	P
경로1제약	경력적응성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1	9.935	0.002
경로2제약	생애영역 설계관리	←	경력적응성	1	8.935	0.003
경로3제약	자기효능감	←	경력적응성	1	6.543	0.011
경로4제약	자기효능감	←	생애영역 설계관리	1	4.674	0.031
경로5제약	삶의 만족도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1	4.379	0.036
경로6제약	삶의 만족도	←	자기효능감	1	0.023	0.881
경로7제약	삶의 만족도	←	생애영역 설계관리	1	0.073	0.787

- 재직형태에 따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차이는 [그림 3-5]에서 제시하였음.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재직자 및 미취업자 집단 모두에서 경력적응성과 정적인 직접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의 경우 재직자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에 미취업자 집단에서는 부적으로 유의한 직접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음.
- 경력적응성의 경우 재직자 및 미취업자 집단 모두에서 생애영역 설계관리와 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직접 효과를 보였음. 그러나 직접 경로의 크기가 재직자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남.
- 생애영역 설계관리의 경우, 재직자 집단과 미취업자 집단 모두에서 자기효능감에 직접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취업자 집단에서 더 큰 효과 크기를 보였음.



[그림 3-5] 재직상태에 따른 집단별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계수

주) 재직자 집단, 미재직자 집단 순으로 경로계수를 제시하였음, $p < .05$, $p^{***} < .001$

5. 성별 및 재직상태에 따른 중장년 경력적응성 모형의 차이: 성별 및 재직상태로 구분한 네 집단에 대한 다집단 분석

- 성별 및 재직상태에 따른 형태동일성 및 측정동일성을 확인함.
 - 성별 및 재직상태에 따라 네 집단을 구성하여 연구모형인 경력적응성 모형의 경로계수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토하였음.
 - 구성된 집단은 재직 중인 남성 집단, 과거 재직 경험이 있는 남성 집단, 재직 중인 여성 집단, 과거 재직 경험이 있는 여성 집단의 네 집단임.
 - 재직 중인 남성 집단에서는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가 $\chi^2(182, N=2335) = 1491.432$, $p < .001$, CFI = .965, IFI = .965, TLI = .959, RMSEA = .056, 90% confidence interval (CI) [.053, .058]로 나타났으며, 과거 재직 경험이 있는 미재직자 남성 집단은 $\chi^2(182, N=84) = 354.881$, $p < .001$, CFI = .891, IFI = .893, TLI = .874, RMSEA = .107, 90% confidence interval (CI) [.090, .123]로 나타났음.
 - 또한, 재직 중인 여성 집단에서는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가 $\chi^2(182, N=1566) = 1211.540$, $p < .001$, CFI = .959, IFI = .959, TLI = .953, RMSEA = .060, 90%

confidence interval (CI) [.057, .063]로 나타났으며, 과거 재직 경험이 있는 미재직자 여성 집단은 $\chi^2(182, N=537) = 684.960, p < .001, CFI = .938, IFI = .938, TLI = .928, RMSEA = .072, 90\% \text{ confidence interval (CI) [.066, .078]}$ 로 나타났음.

- 과거 재직 경험이 있는 미재직자 남성 집단의 경우 표본의 수가 너무 작은 점을 고려하면 네 집단 모두에서 모형적합도가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형태 동일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함.

- 이어 네 집단에서 측정변인들이 동일한 잠재변인을 구인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두 집단에 요인부하량이 동일하다고 제약을 가한 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을 비교하였음. $\Delta\chi^2$ 뿐만 아니라 CFI, TLI, IFI 지수의 변화를 고려하였음. $\Delta\chi^2(48)=91.393, p < .001$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CFI의 경우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 모두 .958에서 제약을 가한 모형의 경우 .957로 소폭 감소했으며, IFI도 같은 경우로 나타났음. 또한, 두 모형의 적합도가 모두 적절한 값을 나타냈으므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변인들이 성별 및 재직상태로 구분한 네 집단에 동일한 잠재 변인을 구인한다고 가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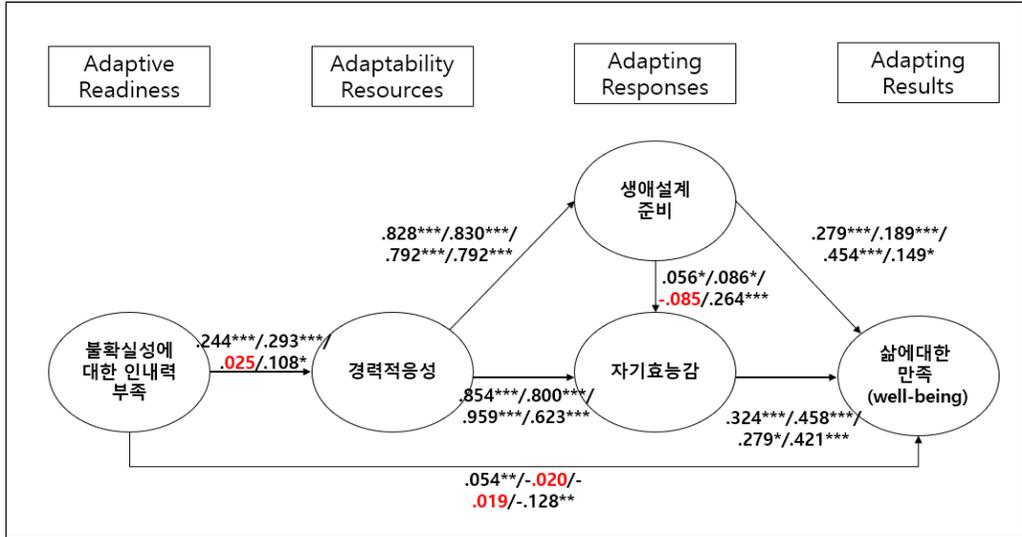
● 구조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함.

- 구조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에서 경로계수가 모두 같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과 모두 제약을 가하지 않은 자유 모형을 비교하였음. 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Delta\chi^2(21)=66.907, p < .001$). 어느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로를 하나씩 제약한 부분 구조 동일성 모형을 설정해, 자유 모형과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음. 그 결과 <표 3-1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에서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2〉 재직상태와 성별에 대한 구조동일성 검증

제약 경로		df	$\Delta\chi^2$	P
경로1제약	경력적응성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3	16.393	0.001
경로2제약	생애영역 설계관리 ← 경력적응성	3	12.813	0.005
경로3제약	자기효능감 ← 경력적응성	3	18.609	0.000
경로4제약	자기효능감 ← 생애영역 설계관리	3	10.187	0.017
경로5제약	삶의 만족도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3	12.269	0.007
경로6제약	삶의 만족도 ← 자기효능감	3	5.521	0.137
경로7제약	삶의 만족도 ← 생애영역 설계관리	3	8.745	0.033

- 재직상태와 성별에 따라 구분한 집단별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3-6]에서 제시하였음.
- 40대 성인의 경력 및 진로 적응을 설명하기 위한 이 연구의 모형에서 설정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재직 경험이 있는 미취업 남성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직접 경로들이 다수 확인되었음.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경력적응성으로 이어지는 경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삶의 만족도 간 직접적인 경로, 생애영역 설계관리가 자기효능감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이에 해당함. 그러나 경력적응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재직 경험이 있는 미취업 남성 집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 한편, 경력적응성으로부터 생애영역 설계관리에 이르는 직접 경로는 여성 재직자, 남성 재직자 순으로 큰 경로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 경로의 경우 여성 재직자, 여성 미취업자 순으로 큰 경로계수를 보였음.



[그림 3-6] 재직상태 및 성별에 대한 연구모형 경로계수

주) 재직자 남성 집단, 재직자 여성 집단, 미취업 남성 집단, 미취업 여성 집단의 순으로 경로계수를 제시하였음.
 $p^* < .05$, $p^{**} < .01$, $p^{***} < .001$,

제4절 결론 및 제언

1. 결론

- 이 연구는 서울시 40대 성인남녀가 직면한 경력개발 및 경력적응을 조력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 및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경력적응성 모형을 검증하고 향후 개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수행되었음.
 - 기초 조사로서 40대 성인남녀의 재직상태 유무를 기준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경력적응성, 생애영역 설계관리와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음.
 - 경력적응성 모형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적응적 준비), 경력적응성(적응성 자원), 생애영역 설계관리와 자기효능감(적응적 반응), 삶의 만족도(적응적 결과)로 구성되었으며, 측정모형과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함.
 - 마지막으로 40대 성인 남녀의 재직상태를 기준으로 4집단으로 구분하고 경력적응성 모형에 대한 다집단분석을 수행하였음.
- 서울시 40대 성인의 성별을 기준으로 주요 변인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주요 연구 변인 중 경력적응성의 자신감 요인에서 40대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변인(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생애영역 설계관리,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 서울시 40대 성인의 현재 재직상태를 기준으로 주요 변인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주요 연구 변인 특히, 경력적응성, 생애영역 설계관리,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에서 재직상태에 따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음.
 - 구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모든 지표에서 현재 재직 중인 집단이 재직 경험이 있는 미취업 집단 및 재직 경험이 없는 미취업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음. 생애영역 설계관리는 총점을 비롯해서 신체적·정신적 건강, 재무, 역할, 일, 여

가 등 하위 요인에서 재직 중인 집단이 재직 경험이 있는 미취업 집단 및 재직 경험이 없는 미취업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임.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에서 재직 중인 집단은 재직 경험이 있는 미취업 집단 및 재직 경험이 없는 미취업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임.

- 서울시 40대 집단을 성별과 재직 상태를 기준으로 6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 변인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남성의 경우, 여성과 비교했을 때 재직상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점수 차이를 보임.
- 한편, 재직자의 경우, 남성과 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그러나, 40대 미취업자 집단의 경우, 진로적응성, 생애영역 설계관리,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에서 성별로 차이가 있었음.

- 경력적응성 모형 검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적합도 지수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모형이 자료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특히 모든 경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서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특이한 점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할수록 경력적응성이 높아지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온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 사용된 문항이 단순히 불확실성을 참지 못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해보고자 하는 시도와 노력을 측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다루는데 있어 경력적응성을 높이는 것이 생애영역 설계관리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유의한 매개 변인으로 밝혀진 것은 생애영역 설계관리를 하거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자원으로 경력적응성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생애영역 설계관리가 삶의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높이기보다는 생애영역 설계관리가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간접 경로를 확인함.

- 성별과 재직상태를 기준으로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모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만 차이가 없고, 다른 경로는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성별과 재직상태를 둘 다 고려한 개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 재직자는 남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만,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 재직자의 경우, 남성 재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고, 생애영역 설계관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 재직자가 여성 재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긴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보기는 어려움.
 - 재직 경험이 있는 미취업 남성 집단의 경우 모형의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남. 유의하지 않은 경로계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경력적응성의 관계, 생애영역 설계관리와 자기효능감의 관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삶의 만족도의 직접 경로임.
 - 이 결과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음. 우선, 재직 경험이 있는 미취업 남성 집단의 표본(84명)이 충분히 크지 않아 유의한 결과가 나오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평균 비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집단의 점수는 모든 지표에서 낮은 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연구에서 검토하지 않은 다양한 심리적 변인의 영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음.
 - 재직 경험이 있는 미취업 남성의 경우, 경력적응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고, 생애영역 설계관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음.
 - 재직 경험이 있는 미취업 여성(경력보유여성)의 경우, 생애영역 설계관리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을 볼 수 있음.
- 이 연구 결과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진로적응모형을 서울시 40대 자료를 활용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의의가 있음.
 - 국내 중년 대상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연구만 존재하였으나, 이 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40대에 대한 진로구성주의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함.
- 이 연구 결과는 중장년 연구에서 특히 강조됐던 성별 및 재직상태의 주 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서울시 40대 자료를 활용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의의가 있음.

- 국내 중년 대상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경력 전환에서의 특수한 요구 및 경험에 주목해 왔으나 이 연구에서는 성별의 주 효과는 경력적응성의 자신감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음.
- 이 연구에서 성별과 재직상태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미취업과 취업, 재직 상태가 성별에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음.

2. 실천적 제언

- 경력적응성 향상을 조력하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확인함. 경력적응성 모형 검증 결과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다룰 때 생애영역 설계관리와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경력적응성의 역할을 보여줌. 따라서 생의 전환기 등 본격적으로 생애영역 설계관리를 하기 전에 경력적응성 향상을 조력하는 프로그램은 40대 집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에서 제공되는 <경력설계 상담>은 취업 컨설턴트가 내담자의 경력 목표에 맞춰 상담을 제공하고 심층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내담자 상황과 요구를 고려하고 있음. 특히 경력 전환을 준비 중이거나 경력목표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40대 내담자의 경우, 경력설계 T.R.I.P. 연계를 통해 경력적응성의 주요 요소 중 관심, 통제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찾아가는) 경력설계 프로그램>이나 <경력설계 기초 진단 및 맞춤 상담>은 40대 내담자에게 보다 접근성이 높은 방법이며, 내담자가 경력 전환에 대한 준비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경력설계 관련 프로그램과 경력설계 상담에서 생애영역 설계관리와 함께 자기효능감 증진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임. 경력적응성 모형 검증 결과, 생애영역 설계관리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해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따라서 프로그램과 상담에서는 경력 전환이나 후반기 생애설계를 잘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함.
 - 자기효능감은 언어적 설득, 포래모델링, 성공 경험을 통해 효과적으로 증진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음. 따라서 상담자나 프로그램 리더의 명시적인 언어적 설득(지지, 격려 등)을 강조하고, 40대 중심으로 생애설계 및 경력 전환 성공 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재단에서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한 <40대 직업전환 지원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 관련 기사와 사례집 등은 이런 점에서 효과적인 개입이라고 볼 수 있음.

- <경력설계 상담>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취업 컨설팅>은 이력서 작성, 면접 시뮬레이션, 채용설명회, 인턴십 등의 제도 등을 통해 내담자에게 실제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는 요소를 단계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접근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연구 결과는 성별과 재직상태를 둘 다 고려한 개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특히, 남성 집단은 재직상태에 따라 주요 변인에서 상대적으로 큰 점수 차이를 보이고 모형에서 주요 변인 간 관계의 강도 및 유의미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러한 결과는 남성에게 있어 현재 무직(미취업)인 상태가 사회문화적으로 전통적 남성의 성 역할 기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혹은 주부양자에 반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내적 갈등이 이와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재단의 <이·전직을 준비하는 40대 직업전환 프로그램>을 재직자, 구직자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설계하고 있는데, 매우 적절한 개입 방안으로 보임.
- 재직자 집단은 주요 변인에서 성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경력적응성 모형 경로에서 우세한 경로에는 차이가 있었음. 따라서 40대 재직자 집단은 교육이나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성별 구분을 별도로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성별 우세 경로를 고려한 노련한 진행과 피드백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여성 재직자 집단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언어적 격려와 지지, 경력 전환 및 경력설계에 성공한 또래모델 제시, 구체적인 성공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경험 제공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면 효과적일 것임.
 - 남성 재직자 집단은 생애영역 설계관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생애영역 설계관리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조하고, 생애영역 설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연구 결과는 재직 경험이 있는 미취업 집단은 성별을 고려한 차별적인 조력이 유용하며, 이를 가능하게 할 국가 및 지역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 40대 미취업 집단의 경우, 진로적응성, 생애영역 설계관리,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해서는 성별로 차이가 있었으므로 성별을 고려한 개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각각의 성별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 결과는 특히 재직 경험이 있는 미취업 40대 남성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함. 40대 남성 중 재직 경험 있는 미취업 집단은 모형의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경력적응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고, 생애영역 설계관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음. 표본크기가 크지 않음을 고려하더라도 주요 변인의 평균 점수가 낮은 편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개입이 필요함. 이 집단은 경력적응성에서도 자신감이 낮았으며 자기효능감도 낮은 수준임.
 - 재직 경험이 있는 미취업 4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경력설계 상담>과 <취업 컨설팅>은 자기효능감 및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조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전통적 성 역할 기대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부분을 민감하게 고려하여 개입하는 중요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재직 경험이 있는 미취업 40대 남성의 경우, 경력적응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고, 생애영역 설계관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 같음. 특히 생애영역 설계관리 조력이 필요하고, 경력적응성 개입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재직 경험이 있는 미취업 40대 여성(경력보유여성)의 경우, 생애영역 설계관리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을 볼 수 있어 생애영역 설계관리 조력이 필요함.

3. 학술적 제언

- 이 연구의 결과는 경력적응성 모형을 서울시 4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진로구성주의 이론의 연구 대상의 확대와 적용에 기여하였음.
 - 특히 40대 성인의 성별과 경력 유형에 따른 차이와 모형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경력적응성 모형 및 주요 변인 간 관계의 양상을 구체화하였음.

- 향후 연구에서는 경력적응성 모형에서 차이가 드러난 집단별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함.
 - 40대 남성 미취업자 집단은 모형의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남. 따라서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개입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함. 예를 들어 요구조사 분석이나 이 연구에서 검토하지 않은 다양한 심리적 변인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여성 집단은 선행연구에서 현재 근로 상황 뿐만 아니라 혼인 및 자녀양육 등이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분석이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제4장

경력전환기 중장년 재직자 및 퇴직자 집단별 경력지원 방안



제4장

경력전환기 중장년 재직자 및 퇴직자 집단별 경력지원 방안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문제

1. 연구의 필요성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중장년의 체계적인 생애설계를 돕기 위해 2022년 [중장년 생애설계준비지표 개발], 2023년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실태조사] 및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심층분석 I]을 실시함.
 - 중장년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고 생애설계를 돕고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성한 경력 전환기의 핵심생애지표에 따라 하위 집단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고 집단별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서울런4050, 전환기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2022.12)에서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 및 생애설계 지원을 중요 사업으로 제시함.
 - 서울런4050에서는 경력전환기를 맞고 있는 중장년들이 경력을 꾸준히 개발하고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중장년 일자리 지원과 직업 역량 교육을 강화함.
 - 이에, 경력 전환경험을 이미 겪었거나, 현재 경력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이들이 본 재단의 경력지원 사업의 가장 핵심 수요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즉, 경력이 중단된 퇴직자, 혹은 자발적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이직준비 재직자를 핵심 수요자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중장년 경력전환기 이직 및 재취업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지원이 필요함.
 - 중장년기는 제2의 직업을 위해 자기 주도적 경력설계 및 경력관리가 매우 필요한 시기임(Hall & Mirvis, 1996). 제2의 진로 준비 및 경력전환이란 생애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장년기 경력전환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이들이 잘 갖춰

성공적으로 재취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지원이 필요함.

- 중장년 시기 퇴직은 이후 낮은 질의 일자리로 이직, 경력단절, 재취업 준비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른 구직의사 단념 등으로 이어져, 개인의 심리적 안녕을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함(Mendolia, 2014).
 - 개인적으로는 일을 계속하고 싶은 근로 의사가 있으나, 외부 상황적 여건으로 인해 경력이 중단되거나, 현재의 일자리가 더 이상 개인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니어서 이직을 고려하는 이들만을 특정하여,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세분화하고 맞춤형 지원전략을 제안한 시도는 거의 전무함.
 - 중장년 시기의 경력전환은 정리해고, 명예퇴직, 구조조정, 폐업 등과 같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어나기도 하며, 혹은 개인의 여건과 사정에 맞춰 더 좋은 보수나 근무조건에 맞춰 자발적으로 이뤄지기도 함.
 - 아울러, 현재 경력을 유지하면서 제2의 진로를 모색하거나, 혹은 경력이 단절된 상태로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을 모색하는 경우가 있음. 특히 현재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과 직업세계 밖으로 물러나 있는 경우는 이들이 처한 현실적 여건, 진로전환 과정에서의 심리적 충격, 제2의 진로를 위한 준비도 등이 서로 상이할 수 있어, 이 둘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음.
 - 이에 이 연구는 현재 재직자 그리고 퇴직자들 가운데, 재취업 의사가 있어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이들에 주목하고, 재직자 집단과 퇴직자 집단을 구분하여 심층 조망하고자 함. 즉, 이직에 대한 의사가 있으나 현재 재직 중인 재직자, 그리고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퇴직상태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을 구분하여, 각 집단의 핵심 특성 및 세부 유형을 확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시도가 필요함.
- 중장년 경력전환기 복잡다단한 생애요소들을 포괄한 통합적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개입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중장년기에 접어들면 퇴직, 재고용, 가족부양, 건강 상태, 경제 수준 등 여러 발달 과제가 교착되어 개인별로 처한 여건이 다양해지며, 이러한 복잡다단한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경력지원 및 생애설계 지원이 필요함.
 - 중장년기는 신체적 노화 및 체력 저하가 체감되기 시작하는 시기임. 아울러, 재취업 활동이 실패할 시, 생계유지가 불안정해지며 낮은 소득 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미래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심리적 불안이 높아지는 시기임(윤미, 김형빈, 2021).

- 선행연구에서도 노화와 체력 고갈을 경험하는 중장년기는 신체적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관리 역량,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 역량, 급변하는 직업세계 및 미래 불확실성을 감내할 수 있는 심리 역량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음(이현주, 박진영, 2020). 이에, 신체적 건강 수준, 경제 수준, 불확실성을 감내할 수 있는 심리적 유연성은 중장년기 재취업 여부를 좌우하는 주요 생애 지표가 됨.
- 한편, Super(1980)의 진로발달이론에 의하면 40~50대는 자신이 확립한 경력에서의 정점을 경험하고, 안정적인 성과를 내면서도 동시에,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경력을 갱신하고 혁신하는 시기임.
- 중장년기는 Super가 제안한 확립기(25~44세), 그리고 유지기(45~64세)에 해당하는데,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공고히 하면서도, 동시에 지금까지 일궈온 경력에 대한 재평가와 조정이 일어나는 시기임(Super, 1980). 공고화와 갱신이 함께 일어나는 시기로, 자신이 쌓아온 경력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 정체성에 수렴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경력 탐색이나 경력 전환을 모색하게 됨. 이에, 그간 쌓아온 일 경험을 통합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적 만족에 보다 일치되는 방향으로 경력정체성의 명맥을 이어가는 게 중요한 발달 과업임.
- 종합하자면, 중장년 경력전환기에는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제 2의 진로에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지표(경제 역량), 물리적 노화에 대한 대처 지표(건강관리 역량), 그리고 경력전환기의 불확실성 감내와 관련된 심리지표(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마지막으로 자신의 지난 경력을 통합하며 보다 자신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경력 갱신을 지속해 나가는 경력지표(경력정체성)가 이들의 경력전환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다양한 하위조합이 가능함. 즉 이 지표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높을수록 재취업 역량이 높은 집단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높을수록 재취업 역량이 낮은 위기 집단으로, 이 가운데 다양한 하위 집단이 도출될 수 있음.
- 중장년 경력전환기 다양한 하위 집단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함.
 - 일의 심리학 이론(Psychology of Working Theory; PWT, Duffy, Blustein, Diemer, & Autin, 2016)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경력설계에 운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금전적, 신체적, 심리적)과 경력자원을 높게 가지고 있을 때, 이들은 괜찮은 일자리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결과적으로 일터 내 안녕감 및 삶의 만족도로 이어진다고 제안하고 있음.

- 국내·외 다수의 선행연구는 개인이 경력설계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높을수록 이들이 미래 괜찮은 일자리를 획득할 가능성, 경력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Blustein, Lysova, & Duffy, 2022; Kim, Kim, Duffy, & Lee, 2024). 또한, 개인이 경력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높을수록 이들의 직무만족, 삶의 만족도는 높고, 이직 의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안진아, 2022; 이슬아, 표소휘, 남보라, 이유영, 양은주, 2023).
- 이에, 이 연구는 중장년 경력전환의 핵심생애지표로 경제, 건강관리, 심리, 경력지표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이들의 조합으로 인해 재직자 집단과 퇴직자 집단에서 어떤 하위 집단들이 발생하는지, 각 하위 집단의 심리적 안녕감 및 경력발달 수준들이 어떠한지 심층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함. 이로 인해, 중장년 경력전환 과정에서 어떤 집단이 특히 집중지원이 필요한 취약·위기 집단인지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집단별 어떤 프로그램 지원을 요구하는지 추가 분석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중장년기의 성인 중에서 경력설계 상담과 취업컨설팅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 서비스 이용 집단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자 함. 이에,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재직자, 퇴직자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에게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첫째, 집단별로 경제, 건강관리, 심리(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경력(경력정체성)지표 수준에 따라, 어떤 하위 집단들이 도출되는지 확인하고자 함.
- 둘째, 재직자, 퇴직자 각각 어떤 하위 집단들이 도출되는지 파악하고, 도출된 하위 집단별 심리적 안녕감과 경력 및 긍정 발달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심리적 안녕감으로는 삶의 의미와 삶의 만족도를 고려하고, 경력발달 긍정 결과로는 경력지속가능성과 폐기학습 수준을 고려함.

- 셋째, 이들의 경력개발 및 경력전환을 장려하고자 집단별로 어떤 정책적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야 하는지 재단의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필요하다고 평정하는지 확인하고자 함.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한 연구 물음은 아래와 같음.
 - 연구 물음 1. 재직자 집단, 그리고 퇴직자 집단 각각에서 중장년 진로전환기 핵심생애 지표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 유형은 몇 개로 나타나며,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어떠한가?
 - 연구 물음 2. 재직자 집단과 퇴직자 집단 각각에서 도출된 잠재 프로파일 유형별로 삶의 의미, 삶의 만족도, 폐기학습, 그리고 경력지속가능성(재직자 집단), 고용가능성(퇴직자 집단) 수준은 어떻게 나타나며, 재단에 대한 인식, 참여도, 서비스 필요도는 어떠한가?
 - 연구 물음 3. 재직자 집단과 퇴직자 집단에서 도출된 잠재 프로파일 유형별로 가장 핵심 연령층은 어떻게 나타나며, 이들의 주요 특성은 무엇인가?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재단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경력지원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제2절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 이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11,5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2023년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실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음. 이 가운데, ‘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란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재직자 1,287명, 그리고 과거 재직자(퇴직자) 534명을 선택하여 분석을 실시함.
- 재직자 1,287명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기초 통계량은 다음과 같음(〈표4-1〉참조).
 - 성별은 퇴직자 집단에 비해 남성이 800명(62.2%)으로 더 많았으며, 혼인상태는 기혼 및 사실혼이 970명(75.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최종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731명(56.8%)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 졸업 218명(16.9%), 전문대학 졸업 188명(14.6%),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150명(11.7%) 순으로 나타남.
 - 주택점유 형태는 자가 776명(60.3%), 전세 351명(27.3%), 그리고 월세 및 기타 160명(12.4%) 순으로 나타남.
 - 연령은 45세~49세 이하가 348명(27.0%)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으며, 40세 이상~54세 이하가 958명(74.4%)으로 퇴직자 집단 대비 중년기 연령 비율이 높았음.
 - 자녀 유무의 경우, 2명 이상인 경우가 509명(39.5%), 1명이 392명(30.5%), 자녀 없음이 386명(30.0%)이었음.
 - 가구 형태는 2세대 가구가 806명(62.6%)으로 가장 많았으며, 1세대 가구 202명(15.7%), 1인 가구 163명(12.7%), 3세대 이상 및 기타 116명(9.0%) 순으로 나타남.

〈표 4-1〉 재직자의 일반적 특성 (n=1,287)

구분	응답값	빈도수	비율(%)	구분	응답값	빈도수	비율(%)
성별	여성	487	37.8	연령	40세 이상 44세 이하	340	26.4
	남성	800	62.2		45세 이상 49세 이하	348	27.0
혼인 상태	미혼	251	19.5		50세 이상 54세 이하	270	21.0
	기혼, 사실혼	970	75.4		55세 이상 59세 이하	194	15.1
	별거, 이혼, 사별	66	5.1		60세 이상 64세 이하	135	10.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50	11.7		자녀 유무	자녀 없음	386
	전문대학 졸업 (2-3년제)	188	14.6	자녀 1명		392	30.5
	4년제 대학 졸업	731	56.8	자녀 2명 이상		509	39.5
	대학원 졸업	218	16.9	가구 형태*	1인 가구	163	12.7
주택 점유 형태	자가	776	60.3		1세대 가구	202	15.7
	전세	351	27.3		2세대 가구	806	62.6
	월세 및 기타	160	12.4		3세대 또는 비혈연 가구	116	9.0
합계		1,287	100.00	합계		1,287	100.00

주) 1세대 가구: 부부끼리 살거나 혹은 형제·자매와 거주
 2세대 가구: 부모세대 혹은 자녀세대와 거주
 3세대 가구: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다 같이 거주
 비혈연 가구: 친구 혹은 동료와 거주

- 퇴직자 534명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기초 통계량은 〈표 4-2〉와 같음.
 - 성별은 재직자 집단에 비해, 여성이 328명(61.4%)으로 더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혼인상태는 기혼 및 사실혼이 402명(75.2%)으로 가장 높았음. 연령은 재직자 집단에 비해 장년층인 60세 이상이 135명(25.3%)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함.
 - 최종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235명(44.0%)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학 졸업 124명(23.2%), 고등학교 졸업 97명(18.2%), 그리고 대학원 졸업 78명(14.6%) 순으로 나타남.

- 주택점유 형태는 자가 325명(60.9%), 전세 124명(23.2%), 그리고 월세 및 기타 85명(15.9%) 순으로 나타남.
- 연령은 재직자 집단에 비해, 60세~64세 이하가 135명(25.3%)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으며, 이외에는 연령대 빈도수가 고르게 나타남.
- 자녀 유무의 경우, 2명 이상인 경우가 248명(46.4%), 자녀 없음 147명(27.5%), 자녀 1명 139명(26.1%) 순으로 나타남.
- 가구 형태는 2세대 가구가 335명(62.7%)으로 가장 많았으며, 1세대 가구 88명(16.5%), 1인 가구 61명(11.4%), 3세대 이상 및 기타 50명(9.4%) 순으로 나타남.

〈표 4-2〉 퇴직자의 일반적 특성 (n=534)

구분	응답값	빈도수	비율(%)	구분	응답값	빈도수	비율(%)
성별	여성	328	61.4	연령	40세 이상 44세 이하	94	17.6
	남성	206	38.6		45세 이상 49세 이하	111	20.8
혼인 상태	미혼	82	15.4		50세 이상 54세 이하	111	20.8
	기혼, 사실혼	402	75.2		55세 이상 59세 이하	83	15.5
	별거, 이혼, 사별	50	9.4		60세 이상 64세 이하	135	25.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7	18.2		자녀 유무	자녀 없음	147
	전문대학 졸업 (2-3년제)	124	23.2	자녀 1명		139	26.1
	4년제 대학 졸업	235	44.0	자녀 2명 이상		248	46.4
	대학원 졸업	78	14.6	가구 형태*	1인 가구	61	11.4
주택 점유 형태	자가	325	60.9		1세대 가구	88	16.5
	전세	124	23.2		2세대 가구	335	62.7
	월세 및 기타	85	15.9		3세대 또는 비혈연 가구	50	9.4
합계		534	100.00	합계		534	100.00

주) 1세대 가구: 부부끼리 살거나 혹은 형제·자매와 거주
 2세대 가구: 부모세대 혹은 자녀세대와 거주
 3세대 가구: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다 같이 거주
 비혈연 가구: 친구 혹은 동료와 거주

2. 조사도구

- 중장년 경력발달에 관한 선행연구 및 진로이론을 토대로, 경력전환기 핵심생애지표로 경제 수준, 건강관리 수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그리고 경력정체성을 고려하였음. 각 지표를 구인하는데 활용된 척도에 대한 설명과 세부 정보는 <표 4-3>과 같음.
 - 경제지표는 경제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지위 지표와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사회경제적 수준을 모두 고려함이 타당하다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구성함(Liu et al., 2004). 총 2문항으로, 월 소득이라는 객관적 사회지표와 자신의 경제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측정도구로 함.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해 7점 리커트(1: 매우 나쁘다~7: 매우 좋다)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함. 월소득 형태는 13점 리커트(1: 100만원 미만~13: 1,000만원 이상) 사이 응답하게 하여 측정함.
 - 건강관리지표는 총 5문항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더불어, 생애 설계준비 척도(임소현, 이승엽, 이영광, 2022)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설계관리’ 영역의 4문항을 사용함.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7점 리커트(1:매우 나쁘다~7: 매우 좋다)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함. ‘신체적·정신적 건강 설계관리’에 해당하는 4문항도 7점 리커트(1:전혀 그렇지 않다~7:매우 그렇다) 척도상에 응답하게 하여 측정함.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부족(Freeston et al, 1994)과 경력정체성(Verbruggen, 2008)은 모두 7점 리커트(1:전혀 그렇지 않다~7:매우 그렇다)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함.
- 중장년 경력전환기 심리적 안녕감 및 경력발달 긍정 결과변인은 아래와 같음.
 - 상기 기술된 4개의 핵심생애지표에 따라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하위 집단별로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경력발달 수준을 비교하고자 함.
 - 이에 심리적 안녕감 지표로는 삶의 의미와 삶의 만족도를 고려함. 경력발달 관련 긍정적인 결과 변인으로서는 폐기학습, 경력지속가능성(재직자 집단), 그리고 고용가능성(퇴직자 집단) 수준을 비교하였음.

〈표 4-3〉 중장년 경력전환기 핵심생애지표 문항 수 및 신뢰도

변인(지표)	문항 내용	문항 수	신뢰도	출처
경제	1. 귀하의 현재 경제 상태에 대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2. 월소득 형태	2	.43 (.51)	-
건강관리	1. 귀하의 평소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2.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운동, 식단관리, 영양제 섭취, 금연, 금주, 상담, 명상 등)를 위한 목표가 있다. 3.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운동, 식단관리, 영양제 섭취, 금연, 금주, 상담, 명상 등)를 위한 계획이 있다. 4.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운동, 식단관리, 영양제 섭취, 금연, 금주, 상담, 명상 등)를 실천하고 있다. 5.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5	.87 (0.85)	임소현, 이승엽, 이영광(2022)
심리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부족)	1. 예측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매우 당황한다. 2.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답답하다. 3.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소한 일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 4. 계획되지 않거나 예측하지 않아 놀라는 상황에 놓이는 것을 참을 수 없다. 5. 확실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나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한 적도 있다. 6. 상황이 불확실할 경우,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7. 확신이 없을 때, 나는 일을 진행할 수가 없다. 8.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일을 추진하기 어렵다. 9. 모든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	9	.86 (.86)	Freeston et al (1994)
경력 (경력정체성)	1. 일과 관련된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있다. 2. 나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3. 나의 경력을 개발하는데 있어 긍정 또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알고 있다. 4. 나의 경력과 삶(인생)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알고 있다. 5. 나의 삶에서 나에게 에너지와 동기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6. 내가 직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6	.90 (.92)	Verbruggen (2008)

주) 괄호 안은 퇴직자 집단에 대한 신뢰도 수치임.

-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상에 응답하도록 함.
- 활용된 척도에 대한 설명과 세부 정보는 <표 4-4>와 같음.

<표 4-4> 중장년 경력전환기 심리적 안녕감 및 경력발달 긍정 결과변인 문항 수 및 신뢰도

변인(지표)		문항 예시	문항 수	신뢰도	출처
심리적 안녕감	삶의 의미	1.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의미를 이해한다. 2. 나의 인생은 목적이 분명하다.	5	.76 (.81)	Steger et al(2006)
	삶의 만족도	1. 대체로 내 삶은 나의 이상적인 생각에 가깝다. 2. 현재 내 삶은 매우 훌륭하다.	5	.93 (.92)	Diener et al(1985)
경력발달 긍정 결과변인	폐기 학습	1. 더 이상 나에게 쓸모없거나 잘못된 지식은 버린다. 2. 기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삶의 방식이라면 변화를 준다.	5	.79 (.84)	권정언(2011)
	경력 지속 가능성	1. 지금까지 나의 경력은 좋은 혹은 괜찮은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2.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지식, 능력 등)을 잘 사용할 수 있어서 나의 경력은 나를 행복하게 한다.	12	.95 (재직자만)	Chin et al(2022)
	고용 가능성	1. 내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2. 효과적인 자기소개 방법을 알고 있다.	25	(.97) (퇴직자만)	서현주(2022)

주) 괄호 안은 퇴직자 집단에 대한 신뢰도 수치임.

● 재단 사업 필요도

- 상기 기술된 4개의 핵심생애지표에 따라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하위 집단별로 재단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가운데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비교하고자 함.
- 총 10개의 사업명을 제시하고(예: 생애설계진단 및 상담), 사업별 필요도를 7점 리커트 척도(1: 전혀 필요하지 않음 ~ 7: 매우 필요함)상에 응답하도록 함.

3. 분석 방법 및 절차

- (분석 방법) 사람 중심 접근(Person-oriented approach)을 취하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 채택함.
 - 변수 간 단일한 선형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주는 변수 중심 접근법(Variable-oriented approach)과 달리, 사람 중심 접근은 개별 응답자들의 반응경향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몇 개의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설문 표본을 분류할 수 있음(Bergman & Magnusson, 1997).
 - LPA는 연속형 지표로 측정된 설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재 유형을 분류할 때 사용되는 통계 기법임.
 - 즉 해당 표본 내에 복잡한 이질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며, 잠재적인 하위 집단을 추출함으로써, 집단별로 보다 맞춤형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의한 통찰을 제공함. 이에, 중장년 경력전환기에 있는 다양한 하위 집단들을 파악하고, 집단별 맞춤형 지원을 조력하고자 하는 이 연구 목적에는 LPA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함.
 - 이 연구는 경제 수준, 건강관리 수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경력정체성을 분류 변인으로 설정하고, 재직자 집단과 퇴직자 집단에 대해 각각 LPA 분석을 실시하여, 몇 개의 하위 집단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였음.
 - 재직자 집단과 퇴직자 집단 각각에 대해 LPA 분석을 통해 하위 집단을 도출하고, 각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검토하고, 집단별 심리적 안녕감 및 경력발달 긍정 결과 변인들의 수준이 어떠한지 비교함. 아울러, 집단별 재단에서 제공하는 사업 서비스 수요도를 분석함.
 - 마지막으로, 재직자 집단과 퇴직자 집단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분포된 하위 집단을 검토하였을 때, 40대가 각 집단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40대가 재직자, 그리고 퇴직자 집단 모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연령대이자, 경력전환의 핵심 연령대인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어떠한지,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추가 분석 실시함.
- (분석 절차) 이 연구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5.0과 Mplus 7.0을 사용하였으며, 세부 연구 절차는 다음의 <표 4-5>와 같음.

〈표 4-5〉 자료 분석 단계

단계	설명	분석 방법
1	•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빈도분석 및 상관분석
2	• 분류의 질, 정보지수, 모형비교 검증을 통해 최종 모형 선택 • 최종 확정된 잠재 프로파일 분류 시각화	잠재 프로파일 분석
3	• 유형화 결과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이 검증: 성별, 연령, 퇴직 사유, 중장년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참여경험 • 추정된 잠재 계층별로 종속변수들의 평균 및 분산 차이 유의성 검증	빈도분석, 교차분석, Wald χ^2 검증(DU3STEP)
4	• 재직자, 퇴직자 집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연령대로 추산되는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서비스 수요도 추가 분석	빈도분석, 교차분석

- 첫째,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재직자, 퇴직자 집단 각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연구 변인들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함.
- 둘째, 중장년 경력전환기에 있는 재직자, 퇴직자 집단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Mplus 7.0을 활용하여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함.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잠재 프로파일을 분류하고, 모형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여 집단 수를 결정함.
 - 집단 수 결정에 사용된 모형적합도 지수로는 AIC, BIC, SABIC, LMR, BLRT, Entropy가 있음.
 - 정보적합도 지수인 AIC, BIC, SABIC는 수치가 낮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함(노언경, 정송, 홍세희, 2014).
 - 잠재 프로파일 수 K 와 $K-1$ 개를 비교할 때 고려하는 비교 지수로는 LMR-LRT와 BLRT가 있음. 이들 p 값이 유의할 경우, 대개 잠재 프로파일 개수가 K 개인 모형을, 유의하지 않으면 $K-1$ 개의 잠재 계층 모형을 채택함(노언경 외, 2014).
 - Entropy 지수는 분류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로, 0-1사이의 수치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함을 의미(Kreuter, Yan, & Tourangeau, 2008).
 - 또한, 추출된 프로파일들 가운데, 최소 잠재 프로파일 비율이 5% 미만일 경우, 우연히 발생한 잠재 계층인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제안을 집단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함(Berlin, Williams, & Parra, 2014).
- 셋째, 도출된 잠재 프로파일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비교하고, 하위 집단별 결과 변인에서의 차이 비교함.

- 재직자와 퇴직자 집단 각각에서, 도출된 잠재 프로파일 하위 집단별로 주요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이 어떠한지 분석함. 하위 집단별 성별, 연령, 퇴직 사유, 중장년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참여경험을 확인함.
- 재직자와 퇴직자 집단 각각에서 도출된 잠재 프로파일 하위 집단별로 심리적 안녕감(삶의 의미와 삶의 만족도) 및 경력발달 긍정 결과 변인(폐기학습, 경력지속가능성, 고용가능성) 수준이 어떤지 비교함. 아울러, 하위 집단별로 재단 사업 중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비교 검토함.
- 집단별 종속측정치의 차이분석을 위해서는 DU3STEP 분석을 실시함. 이 분석은 총 3단계의 분석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인데, 먼저 종속변수가 없는 기본 혼합모형을 1단계로 추정하고, 각 개인이 가장 높은 확률로 분류되는 잠재 계층을 2단계에서 추정 후, 분류 오류를 고려한 상태에서 종속변수에서의 유의한 차이를 3단계에서 추정하는 방법임(Asparouhov & Muthén, 2014). 분류 오류를 고려하여 종속변수 측정치에서의 유의한 차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홍세희, 2020).
- 넷째, 재직자, 퇴직자 집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연령대로 추산되는 40대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사업 필요도 추가 분석함.
 - 재직자, 퇴직자 집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연령대로 추산되는 참여자들의 주요 특성 및 사업 필요도 추가 분석하여, 향후 중장년 경력전환기 정책적 시사점 도출하고자 함.

제3절 연구 결과

1. 중장년 경력전환기 핵심생애지표 특성

- 중장년 경력전환기의 재직자 핵심생애지표 간의 상관관계와 표준화된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음(〈표 4-6〉 참조).
 - 경제수준, 건강관리,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경력정체성을 모두 표준화하여 분석했을 때, 평균은 $-.03 \sim .20$ 이었음.
 - 각 핵심생애지표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하였고, 변인 간 상관계수는 $.06 \sim .53$ 을 나타냄. 건강관리 수준과 경제수준($r=.40, p<.01$), 건강관리 수준과 경력정체성($r=.53, p<.01$) 간의 상관지수가 높은 편임.

〈표 4-6〉 재직자 핵심생애지표 간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n=1,287$)

핵심생애지표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경제	건강관리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경력 정체성
경제지표	-4.46	4.29	.20(1.56)	1			
건강관리지표	-3.62	2.40	-.03(1.01)	.40**	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심리지표)	-3.54	2.96	.01(.99)	.06**	.12**	1	
경력정체성 (경력지표)	-4.21	2.27	-.00(.98)	.27**	.53**	.06**	1

주1) $p^{**} < .01$

주2) 심리지표에 해당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음을 의미함.

- 중장년 경력전환기의 퇴직자 핵심생애지표 간의 상관관계와 표준화된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음(〈표 4-7〉 참조).
 - 경제, 건강관리,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경력정체성을 모두 표준화하여 분석했을 때, 평균은 $-.06 \sim .49$ 이었음. 재직자 집단과 비교할 때, 평균이 낮았음.
 - 각 핵심생애지표 간의 상관관계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경력정체성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유의하였고, 변인 간 상관관계 계수는 $-.10 \sim .54$ 를 나타냄. 건강관

리 수준과 경제수준($r=.33, p<.01$), 건강관리 수준과 경력정체성($r=.54, p<.01$) 간의 상관지수가 높은 편이었음.

〈표 4-7〉 퇴직자 핵심생애지표 간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n=534$)

핵심생애지표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경제	건강관리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경력 정체성
경제지표	-4.46	4.29	.49(1.84)	1			
건강관리지표	-3.62	2.40	-.06(.97)	.33**	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심리지표)	-3.29	2.96	.03(1.01)	-.10*	-.13**	1	
경력정체성 (경력지표)	-3.85	2.27	-.00(1.03)	.23**	.54**	.00	1

주1) $p^{**}<.01$

주2) 심리지표에 해당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음을 의미함.

2. 재직자 집단과 퇴직자 집단의 잠재 프로파일 분석

1) 재직자 집단 잠재 프로파일 모형 지수 및 분류율 비교

- 재직자 집단(1,287명)에 대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하여 적합한 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모형적합도 지수와 집단 분류율을 확인함. 집단의 개수를 2개에서 5개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모형적합도 지수를 산출함(〈표 4-8〉 참조).

- AIC, BIC, SABIC 모두 집단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Entropy값은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정확도가 양호함을 나타내는데(Collins & Ianza, 2010), 4개의 집단과 5개의 집단이 동일함.

〈표 4-8〉 재직자 집단 모형적합도 지수 비교(n=1,287)

Class	entropy	AIC	BIC	SABIC	LMR	BLRT
2	.54	15338.82	15405.90	15364.61	.00	.00
3	.74	15129.90	15222.78	15165.60	.12	.00
4	.76	15037.66	15156.34	15083.28	.23	.00
5	.76	14941.63	15086.12	14997.17	.31	.00

● 모형마다 집단별 분류율을 확인하였음(〈표 4-9〉 참조).

- 3개의 집단으로 분류 시, 상-중-하 집단으로 분류되며, 한 집단의 분포율이 3%로 나타났다.
- 5개의 집단의 경우 한 집단의 분포율이 2%로, 우연적으로 발생한 집단일 가능성 있어 보임.
- 결과적으로, 4개의 집단으로 분류 시, Entropy값도 양호하고, 다른 비교 지수들도 집단 분류를 3개로 할 때에 비해 양호함. 아울러, 집단 분포율이 4%인 하위 집단이 발생하나, 이 집단은 재직상태에서 경제, 건강, 심리, 경력자원이 모두 최저 집단으로, 재직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모든 자원이 최저일 가능성은 드물 것으로 예상됨. 즉, 4%인 하위 집단 발생 가능성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져, 최종 4개 집단 분류결과 채택함.

〈표 4-9〉 재직자 집단 집단분류 분류율 비교(n=1,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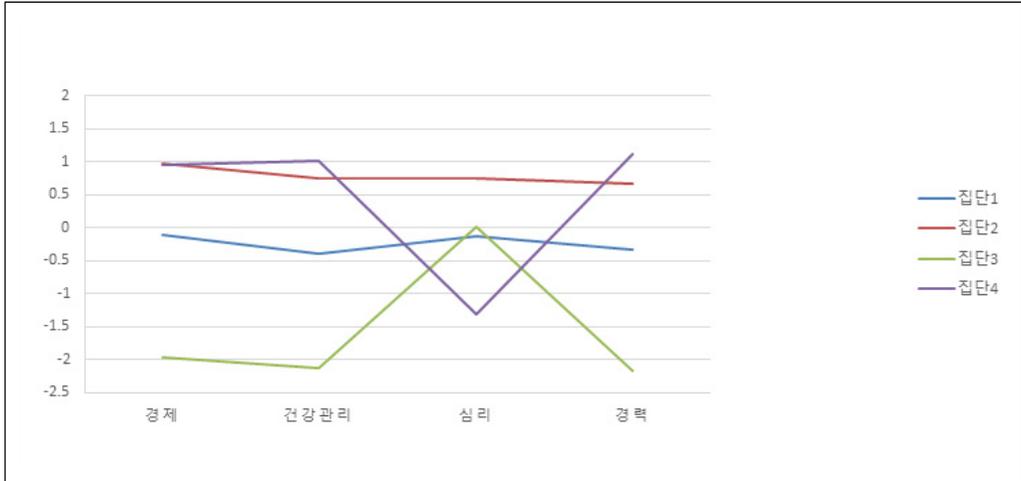
Class	집단비율				
2	.46	.54			
3	.34	.63	.03		
4	.63	.25	.04	.08	
5	.02	.09	.62	.07	.20

2) 재직자 집단 잠재 프로파일 모형 결과

- 재직자 집단에 대해 최종 4개의 집단을 도출하고 각 집단에 대한 표준화된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하였으며, 집단별 차이를 검증함(〈표 4-10〉 참조). 또한, 표준화된 평균을 기준으로 최종 모형의 잠재 프로파일은 [그림 4-1]에 제시됨. 그림에서 X축은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서 사용한 각 지표를 의미하며, Y축은 각 지표에 대한 표준화된 추정 평균을 의미함.
 - 집단 1은 경제, 건강관리, 심리, 경력지표 변인들의 값들이 평균 수준에 위치하며, 전체 1,287명 가운데, 63%인 814명이 포함되어 있음.
 - 집단 2는 경제, 건강, 경력지표 변인들의 값은 높으나, 동시에 불확실성에 대한 취약성도 높음. 전체 1,287명 가운데, 25%인 327명이 포함되어 있음.
 - 집단 3의 경우, 경제, 건강, 경력지표 변인들의 값이 전체 집단 통틀어 가장 낮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평균 수준을 보임. 전체 1,287명 가운데 4%에 해당하는 46명이 포함되어 있음.
 - 집단 4는 경제, 건강, 경력지표 변인들의 값이 전체 집단 통틀어 가장 높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가장 낮아, 긍정 자원은 모두 높고, 부정적인 심리 경향성은 낮게 나온 이상적인 집단임. 전체 1,287명 가운데 8%에 해당하는 100명이 포함되어 있음.

〈표 4-10〉 재직자 잠재 집단별 기술통계(n=1,287)

구분	집단1 (N=814, 63%)	집단2 (N=327, 25%)	집단3 (N=46, 4%)	집단4 (N=100, 8%)	프로파일 유형 간 차이 (Scheffe)
	M(SD)	M(SD)	M(SD)	M(SD)	
경제지표	-.11(.11)	.98(.13)	-1.97(.37)	.95(.28)	2, 4 > 1 > 3
건강관리지표	-.39(.10)	.76(.10)	-2.13(.16)	1.02(.20)	4 > 2 > 1 > 3
심리지표	-.12(.04)	.75(.13)	.01(.33)	-1.31(.13)	2 > 3, 1 > 4
경력지표	-.32(.09)	.67(.08)	-2.17(.92)	1.12(.11)	4 > 2 > 1 > 3



[그림 4-1] 중장년 경력전환기 재직자 집단 최종 잠재 프로파일(표준화된 척도)

3) 재직자 잠재 집단 기초분석

- 도출된 4개 잠재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중장년 정책에 대한 인식과 경험 수준을 비교 하였음.
- 경력전환기 핵심생애지표에 따른 4개의 재직자 잠재 집단의 성별과 연령 특성은 <표 4-11> 과 같음.
 - 집단 1의 경우 여성 64.5%로 여성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집단 3의 경우 여성 47.8%, 남성 52.2%로 남성의 비중이 높았음. 연령 분포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사후검정 결과 구체적으로 집단 1과 집단 3($\chi^2=5.23, p < .05$), 집단 1과 집단 4($\chi^2=4.23, 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집단 1과 집단 2, 집단 2와 집단 3, 집단 2와 집단 4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표 4-11〉 재직자 잠재 집단별 성별 및 연령 차이(n=1,287)

개인 특성		집단 1 (63%)	집단 2 (25%)	집단 3 (4%)	집단 4 (8%)	Total	χ^2		
성별	여성	525	199	22	54	800	8.97*		
		64.5%	60.9%	47.8%	54.0%	62.2%			
	남성	289	128	24	46	487			
		35.5%	39.1%	52.2%	46.0%	37.8%			
연령	40~44세	226	77	17	20	340	49.81		
		27.8%	23.5%	37.0%	20.0%	26.4%			
	45~49세	220	91	10	27	348			
		27.0%	27.8%	21.7%	27.0%	27.0%			
	50~54세	177	59	10	24	270			
		21.7%	18.0%	21.7%	24.0%	21.0%			
	55~59세	119	52	3	20	194			
		14.6%	15.9%	6.5%	20.0%	15.1%			
	60~64세	72	48	6	9	135			
		8.8%	14.7%	13.0%	9.0%	10.5%			
	Total		814	327	46	100		1,287	

- 4개의 재직자 잠재 집단의 중장년 정책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의 차이는 〈표 4-12〉와 같음.
 - 4개 잠재 집단별 중장년 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을 비교했을 때, 집단 4와 집단 2의 경우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를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2.0%로 높았고, 집단 3의 경우 32.6%로 낮은 비율을 나타냄.
 - 사후검정 결과 구체적으로 집단 1과 집단 2($\chi^2 = 18.85, p < .01$), 집단 1과 집단 4($\chi^2 = 7.35, p < .05$), 집단 2과 집단 3($\chi^2 = 6.06, p < .05$), 그리고 집단 3과 집단 4($\chi^2 = 4.78, 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됨. 집단 1과 집단 3, 집단 2와 집단 3, 집단 2와 집단 4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재단 사업의 참여 경험에 대해서도 집단 4의 경우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21.0%로 높은 편이었고, 집단 3과 집단 1은 각각 10.9%, 10.0%로 낮은 비율을 나타냄.
 - 사후검정 결과 구체적으로 집단 1과 집단 4($\chi^2 = 10.97, p < .05$), 집단 2와 집단 4($\chi^2 = 5.66, 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집단 1과 집단 2, 집단 1과 집단 3, 집단 2와 집단 3, 집단 3과 집단 4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표 4-12〉 재직자 잠재 집단별 중장년 정책에 대한 인식과 참여 경험(n=1,287)

재단 중장년 정책		집단 1 (63%)	집단 2 (25%)	집단 3 (4%)	집단 4 (8%)	Total	χ^2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들어본 적 있다.	309 38.0%	170 52.0%	15 32.6%	52 52.0%	546 42.4%	24.45***
	들어본 적 없다.	505 62.0%	157 48.0%	31 67.4%	48 48.0%	741 57.6%	
재단 사업	참여 경험 있다.	81 10.0%	38 11.6%	5 10.9%	21 21.0%	145 11.3%	10.93**
	참여 경험 없다.	733 90.0%	289 88.4%	41 89.1%	79 79.0%	1,142 88.7%	
Total		814	327	46	100	1,287	

4) 재직자 잠재 집단별 결과변인 차이분석

● 4개의 집단별 결과변인의 차이를 〈표 4-13〉과 같이 분석함.

- 심리적 안녕감 지표 중 삶의 만족도의 경우, 4개의 집단별 차이가 유의했음. 구체적으로 삶의 만족도 점수는 집단 2, 집단 4, 집단 1, 집단 3 순으로 높았음.
- 심리적 안녕감 지표 중 삶의 의미의 경우, 4개의 집단별 차이가 유의하였음. 구체적으로 삶의 의미 점수는 집단 4, 집단 2, 집단 1, 집단 3 순으로 높았음.
- 긍정적 경력발달 결과 변인인 경력지속가능성의 경우, 4개의 집단별 차이가 유의했음. 구체적으로 경력지속가능성 점수는 집단 4, 집단 2, 집단 1, 집단 3 순으로 높았음.
- 긍정적 경력발달 결과 변인인 폐기학습의 집단별 차이도 유의하였음. 구체적으로 폐기학습 점수는 집단 2와 집단 4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두 집단은 집단 1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집단 1은 집단 3 보다 높은 폐기학습 점수를 나타냄.

〈표 4-13〉 재직자 잠재 집단별 결과 변인 차이(n=1,287)

구분	집단1 (N=814, 63%)	집단2 (N=327, 25%)	집단3 (N=46, 4%)	집단4 (N=100, 8%)	프로파일 유형 간 차이 (Scheffe)
	M(SD)	M(SD)	M(SD)	M(SD)	
삶의 만족도	17.45(.22)	26.24(.44)	8.76(.76)	20.92(1.03)	2) 4) 1) 3
삶의 의미	20.64(.18)	25.41(.25)	11.21 (.94)	28.20(.64)	4) 2) 1) 3
경력지속가능성	52.33(.31)	66.63(.42)	29.88(2.12)	72.11(1.16)	4) 2) 1) 3
폐기학습	22.01(.12)	27.29(.22)	17.07(.80)	25.81(.74)	2, 4) 1) 3

- 4개의 잠재 집단별 재단 사업의 필요도를 분석하고 차이를 <표 4-14>와 같이 분석함.
 - 4개의 재직자 잠재 집단별 생애설계진단 및 상담, 생애 경력설계 교육 프로그램, 취업 지원서비스, 경력 전환 지원, 사회공헌 일자리, 창업 지원, 직업 역량 강화교육, 디지털전환교육, 40대 특화 직업전환 전문교육,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필요도를 7점 리커트 척도(1: 전혀 필요하지 않음-7: 매우 필요함)로 응답하도록 하고 집단별 비교함.
 - 집단 2의 경우 취업서비스와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 가장 필요성을 높게 응답하였음.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집단 4가 가장 필요성을 높게 응답하였음.
 - 집단 1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그 필요도를 가장 낮게 응답하였음.

<표 4-14> 재직자 잠재 집단별 프로그램 필요도 차이(n=1,287)

구분	집단1 (N=814, 63%)	집단2 (N=327, 25%)	집단3 (N=46, 4%)	집단4 (N=100, 8%)	프로파일 유형 간 차이 (Scheffe)
	M(SD)	M(SD)	M(SD)	M(SD)	
생애설계진단 및 상담	4.67(.05)	5.59(.09)	4.77(.24)	5.49(.35)	2) 3, 1 4) 1
생애 경력설계 교육 프로그램	4.77 (.05)	5.64(.09)	5.15(.26)	5.72(.18)	4, 2) 1
취업지원서비스	5.26(.08)	6.08(.11)	5.50(.20)	5.73(.88)	2) 3, 1
경력 전환 지원	5.10 (.05)	5.94(.09)	5.44(.22)	6.25(.10)	4) 2) 3, 1
사회공헌 일자리	4.84(.05)	5.78(.09)	5.08(.23)	6.16(.28)	4, 2) 3, 1
창업 지원	4.71(.05)	5.79(.12)	4.52(.27)	5.28(.24)	2, 4) 1, 3
직업 역량 강화교육	4.98(.04)	5.78(.08)	4.98(.24)	6.52(.29)	4) 2) 3, 1
디지털전환교육	5.05(.04)	5.86(.08)	5.24(.22)	6.35(.21)	4) 2) 3, 1
40대 특화 직업전환 전문교육	4.97(.05)	5.67(.07)	5.31(.21)	6.55(.13)	4) 2, 3, 1 2) 1
커뮤니티 활동	4.61(.05)	5.62(.08)	4.92(.23)	4.91(.30)	2) 3, 4, 1

5) 퇴직자 집단 잠재 프로파일 모형 지수 및 분류율 비교

- 퇴직자 집단(534명)에 대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하여 적합한 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모형적합도 지수와 집단 분류율을 확인함. 집단의 개수를 2개에서 4개까지 점진적으로 증가 시키면서 모형적합도 지수를 산출함(<표 4-15> 참조).

- AIC, BIC, SABIC 모두 집단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Entropy값은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정확도가 양호하며(Collins & Ianza, 2010), 4개의 집단의 경우 가장 높음.

〈표 4-15〉 퇴직자 집단 모형적합도 지수 비교(n=534)

Class	entropy	AIC	BIC	SABIC	LMR	BLRT
2	.56	6595.21	6650.85	6609.58	.05	.00
3	.70	6524.69	6601.74	6544.60	.008	.00
4	.75	6497.65	6596.10	6523.09	.686	.00

- 모형마다 집단별 분류율을 확인하였음(〈표 4-16〉 참조).
 - 3개의 집단으로 분류 시, 상-중-하 집단으로 분류되며, 모든 집단의 분포 비율은 5% 이상임.
 -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할 경우, 한 집단의 분포율이 2%로, 우연적으로 발생한 집단일 가능성 있어 보임. 아울러, LMR 지수도 유의하지 않아, k-1개의 집단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게 여겨짐. 이에, 3개의 집단으로 분류되는 결과를 채택함.

〈표 4-16〉 퇴직자 집단 집단분류 분류율(n=534)

Class	집단비율			
2	.35	.65		
3	.15	.15	.69	
4	.02	.21	.14	.63

6) 퇴직자 집단 잠재 프로파일 모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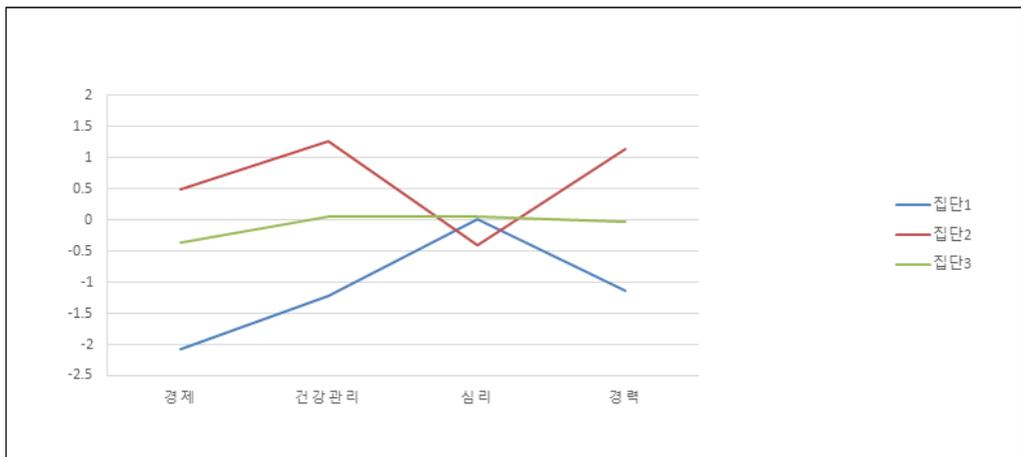
- 퇴직자 집단에 대해 최종 3개의 집단을 도출하고 각 집단에 대한 표준화된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하였으며, 집단별 차이를 검증함(〈표 4-17〉 참조). 또한, 표준화된 평균을 기준으로 최종 모형의 잠재 프로파일은 [그림 4-2]에 제시됨. 그림에서 X축은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서 사용한 각 지표를 의미하며, Y축은 각 지표에 대한 표준화된 추정 평균을 의미함.
 - 집단 1은 경제, 건강관리, 경력지표 값이 전체 집단 통틀어 가장 낮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평균 수준을 보임. 집단 1에는 전체 534명 가운데 15.4%에 해당

하는 82명이 포함되어 있음.

- 집단 2는 경제, 건강관리, 경력지표 값이 전체 집단 통틀어 가장 높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수준은 가장 낮음. 긍정 지표는 모두 높고, 부정적인 심리지표는 낮게 나온 이상적인 집단임. 집단 2에는 전체 534명 가운데 15.4%에 해당하는 82명이 포함되어 있음.
- 집단 3은 경제, 건강관리, 심리, 경력 모든 지표 값들이 평균 수준에 있음. 집단 3에는 전체 534명 가운데, 69.2%인 370명이 포함되어 있음.

〈표 4-17〉 퇴직자 잠재 집단별 기술통계(n=534)

구분	집단1 (N=82, 15.4%)	집단2 (N=82, 15.4%)	집단3 (N=370, 69.2%)	프로파일 유형 간 차이 (Scheffe)
	M(SD)	M(SD)	M(SD)	
경제지표	-2.07(.32)	.50(.27)	-.37(.15)	2 > 3 > 1
건강관리지표	-1.22(.20)	1.27(.15)	.06(.10)	2 > 3 > 1
심리지표	.01(.14)	-.40(.19)	.06(.06)	3, 1 > 2
경력지표	-1.13(.23)	1.13(.12)	-.02(.10)	2 > 3 > 1



〔그림 4-2〕 중장년 경력전환기 퇴직자 집단 최종 잠재 프로파일(표준화된 척도)

7) 퇴직자 잠재 집단 기초분석

- 퇴직자 잠재 집단별 개인 특성 및 중장년 정책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차이를 검증하였음.
- 퇴직자 잠재 집단의 성별과 연령 특성은 <표 4-18>과 같음.
 - 3개의 잠재 집단에서 성별 분포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후검정 결과 구체적으로 집단 1과 집단 2($\chi^2=4.36$, $p < .05$)의 차이는 유의하였음. 3개의 잠재 집단의 연령 분포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표 4-18> 퇴직자 잠재 집단별 성별 및 연령 차이(n=534)

개인 특성		집단 1 (15.4%)	집단 2 (15.4%)	집단 3 (69.2%)	Total	χ^2		
성별	여성	38	25	143	206	4.35		
		46.3%	30.5%	38.6%	38.6%			
	남성	44	57	227	328			
		53.7%	69.5%	61.4%	61.4%			
연령	40~44세	13	15	66	94	7.37		
		15.9%	18.3%	17.8%	17.6%			
	45~49세	16	13	82	111			
		19.5%	15.9%	22.2%	20.8%			
	50~54세	22	12	77	111			
		26.8%	14.6%	20.8%	20.8%			
	55~59세	13	15	55	83			
		15.9%	18.3%	14.9%	15.5%			
	60~64세	18	27	90	135			
		22.0%	32.9%	24.3%	25.3%			
	Total		82	82	370		534	

- 퇴직자 잠재 집단의 퇴직 사유는 <표 4-19>와 같음.
 - 퇴직자 잠재 집단별 퇴직 사유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집단 2의 경우 정년퇴직 24.4%, 직장 조건 불만족 15.7%로 자발적 퇴직 사유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음.
 - 집단 1의 경우 정년퇴직(6.1%)의 비중은 낮고 건강상의 이유(19.5%), 부모 돌봄(13.4%), 가족 돌봄(15.9%), 직장의 휴업 및 폐업(13.4%)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의 비중이 높은 편임.

- 사후검정 결과 구체적으로 집단 1과 집단 2($\chi^2=24.12$, $p < .01$), 집단 1과 집단 3 ($\chi^2=32.01$, $p < .01$), 집단 2와 집단 3($\chi^2=24.82$, $p < .01$)의 차이가 유의하였음.

〈표 4-19〉 퇴직자 잠재 집단별 퇴직 사유(n=534)

개인 특성		집단 1 (15.4%)	집단 2 (15.4%)	집단 3 (69.2%)	Total	χ^2
퇴직 사유	정년퇴직	5	20	44	69	56.76***
		6.1%	24.4%	11.9%	12.9%	
	정년퇴직 이외	8	15	57	80	
		9.8%	18.3%	15.4%	15.0%	
	직장의 휴업, 폐업	11	3	57	71	
		13.4%	3.7%	15.4%	13.3%	
	부모 돌봄	11	4	8	23	
		13.4%	4.9%	2.2%	4.3%	
	건강상의 이유	16	7	43	66	
		19.5%	8.5%	11.6%	12.4%	
	직장 조건 불만족	10	7	58	75	
		12.2%	8.5%	15.7%	14.0%	
	자녀 돌봄	2	3	27	32	
		2.4%	3.7%	7.3%	6.0%	
가족 돌봄 (부모, 자녀 외)	13	18	52	83		
	15.9%	22.0%	14.1%	15.5%		
자아실현 못함	0	0	5	5		
	0.0%	0.0%	1.4%	0.9%		
기타	6	5	19	30		
	7.3%	6.1%	5.1%	5.6%		
Total		82	82	370	534	

- 퇴직자 잠재 집단의 중장년 정책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차이는 〈표 4-20〉과 같음.
 - 집단 2의 경우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를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8.5%로 높았고, 집단 1의 경우 34.1%로 낮은 비율을 나타냄.
 - 사후검정 결과 구체적으로 집단 1과 집단 2($\chi^2=9.81$, $p < .01$), 집단 2와 집단 3($\chi^2=6.09$, $p < .01$)의 차이가 유의하였음. 집단 1과 집단 3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또한, 재단 사업의 참여 경험에 대해서도 집단 2의 경우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26.8%로 높은 편이었고, 집단 1의 경우 9.8%로 낮은 비율을 나타냄. 사후검정

결과 구체적으로 집단 1과 집단 2($\chi^2=7.80, p<.01$), 집단 2과 집단 3($\chi^2=12.01, p<.01$)의 차이가 유의하였음. 집단 1과 집단 3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표 4-20〉 퇴직자 잠재 집단별 중장년 정책에 대한 인식과 참여 경험(n=534)

재단 중장년 정책		집단 1 (15.4%)	집단 2 (15.4%)	집단 3 (69.2%)	Total	χ^2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들어본 적 있다.	28	48	161	237	10.25**
		34.1%	58.5%	43.5%	44.4%	
	들어본 적 없다.	54	34	209	297	
		65.9%	41.5%	56.5%	55.6%	
재단 사업	참여 경험 있다.	8	22	44	74	13.91**
		9.8%	26.8%	11.9%	13.9%	
	참여 경험 없다.	74	60	326	460	
		90.2%	73.2%	88.1%	86.1%	
Total		814	327	46	534	

8) 퇴직자 잠재 집단별 결과 변인 차이분석

- 퇴직자 잠재 집단별로 심리적 안녕감(삶의 의미, 삶의 만족도) 및 긍정적 경력발달(고용가능성, 폐기학습) 결과 변인의 차이를 〈표 4-21〉과 같이 분석함.
 - 심리적 안녕감 지표로 삶의 만족도와 삶의 의미를 확인하였는데, 두 지표 모두 3개의 집단별 차이가 유의했음. 두 지표 모두 집단 2, 집단 3, 집단 1 순으로 높았음.
 - 긍정적 경력발달 지표로 고용가능성과 폐기학습 점수를 분석하였는데, 3개 집단별 차이가 유의했음. 두 지표 모두 집단 2, 집단 3, 집단 1 순으로 높았음.

〈표 4-21〉 퇴직자 잠재 집단별 결과 변인 차이분석(n=534)

구분	집단 1 (15.4%)	집단 2 (15.4%)	집단 3 (69.2%)	프로파일 유형 간 차이 (Scheffe)
	M(SD)	M(SD)	M(SD)	
삶의 만족도	10.72(.66)	28.28(1.42)	19.30(.32)	2) 3) 1
삶의 의미	16.36(.79)	29.46(.52)	22.60(.24)	2) 3) 1
고용가능성	89.37(2.87)	149.48(1.71)	118.21(1.04)	2) 3) 1
폐기학습	20.07(.77)	29.47(.44)	22.83(.21)	2) 3) 1

● 퇴직자 잠재 집단별 재단 사업의 필요도를 분석함(〈표 4-22〉 참조).

- 10개 재단 사업 모두에 대해서 집단 2가 필요성을 가장 높이 응답하였고, 집단 1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 필요도를 가장 낮게 응답하였음.

〈표 4-22〉 퇴직자 잠재 집단별 프로그램 필요도 차이(n=534)

구분	집단 1 (15.4%)	집단 2 (15.4%)	집단 3 (69.2%)	프로파일 유형 간 차이 (Scheffe)
	M(SD)	M(SD)	M(SD)	
생애설계진단 및 상담	4.80(.21)	6.48(.22)	4.96(.07)	2) 3, 1
생애 경력설계 교육 프로그램	4.68(.22)	6.66(.10)	5.12(.07)	2) 3, 1
취업지원서비스	5.48(.22)	6.74(.17)	5.64(.06)	2) 3, 1
경력 전환 지원	5.46(.23)	6.64(.08)	5.55(.07)	2) 3, 1
사회공헌 일자리	5.26(.18)	6.62(.09)	5.22(.07)	2) 1, 3
창업 지원	5.04 (.19)	6.57(.12)	5.11(.07)	2) 3, 1
직업 역량 강화교육	4.85(.22)	6.69(.09)	5.35(.07)	2) 3) 1
디지털전환교육	5.17(.26)	6.66(.08)	5.38(.08)	2) 3, 1
40대 특화 직업전환 전문교육	4.97(.24)	6.63(.09)	5.33(.07)	2) 3, 1
커뮤니티 활동	4.83(.21)	6.63(.12)	4.85(.06)	2) 3, 1

3. 재직자와 퇴직자 잠재 집단별 특성 종합

● 지금까지 살펴본 지표 수준, 인구통계학적 특성, 결과 변인을 토대로 중장년 경력전환 잠재 프로파일 집단들에 대해 각각의 유형을 명명함.

● 4개의 재직자 잠재 집단은 “경력설계 준비형,” “경력설계 혼란형,” “경력설계 위기형,” “경력설계 우수형”으로 명명함.

- 집단 1은 이직을 계획하는 재직자 전체 집단의 63%를 차지하며, 중장년 경력전환기 핵심생애지표가 중위 수준의 양상을 띠고 있음. 이러한 특성을 종합하여 “**경력설계 준비형**”으로 명명함. 경력설계 준비형에 속하는 개인의 과반수가 서울시 중장년 집중 지원 프로젝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리적 안녕감이나 긍정적 경력지표에서 여타 집단과 비교할 때, 중간 정도의 수준을 나타냄. 재단에서 제공하는 사업에 대하여

낮은 필요도를 보고함.

- 집단 2는 이직을 계획하는 재직자 전체 집단의 25%를 차지하며, 중장년 경력전환기 핵심생애지표 중에서 경제, 건강관리, 경력지표 수준이 높으며, 동시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역시 높아 불안에 대한 취약성을 보임. 다시 말해, 경제, 건강관리, 그리고 경력지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높으면서도, 심리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취약성 또한 높게 나타나, 긍정적 양상과 부정적 양상이 혼재되어 있어 **“경력설계 혼란형”**으로 명명함. 경력설계 혼란형에 속하는 개인의 과반수 이상이 서울시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를 인지하고 있으며, 심리적 안정감이나 긍정적 경력지표에서 여타 집단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을 나타냄. 재단에서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필요도를 보고함.
 - 집단 3은 이직을 계획하는 재직자 전체 집단의 4%를 차지하며, 중장년 경력전환 핵심 생애지표 모든 값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전반적으로 지표 수준이 모두 낮게 나온 바, **“경력설계 위기형”**으로 명명함. 경력설계 위기형에 속하는 개인은 다른 유형과 달리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으며, 40~44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임. 서울시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인지 수준과 참여 경험도 여타 유형과 비교할 때 가장 낮았음.
 - 집단 4는 이직을 계획하는 재직자 전체 집단의 8%를 차지하며, 중장년 경력전환 핵심 생애지표 모든 값이 모두 긍정적인 수준을 보임. 즉 경제, 건강관리, 경력지표 값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높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취약성은 낮게 나타남. 이러한 높은 수준의 역량 특성을 종합하여 **“경력설계 우수형”**으로 명명함. 경력설계 우수형에 속하는 개인은 과반수 이상이 서울시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를 인지하고 있으며, 심리적 안정감이나 긍정적 경력지표에서 여타 집단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을 나타냄. 재단에서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필요도를 보고함.
- 3개의 퇴직자 잠재 집단은 **“경력재설계 위기형,” “경력재설계 준비형,” “경력재설계 우수형”**으로 명명함.
 - 집단 1은 이직을 계획하는 퇴직자 전체 집단의 15.4%를 차지하며, 중장년 경력전환 핵심생애지표 중에서 경제, 건강관리, 경력지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심리지표는 중위 수준의 양상을 띠고 있음. 이러한 특성을 종합하여 **“경력재설계 위기형”**으로 명명함. 경력재설계 위기형에 속하는 개인은 여타 유형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50~54세의 비중이 높은 편임. 퇴직 사유의 경우 자발적 퇴직의 비중이 낮고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를 보고한 비중이 높은 편임. 서울시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과 참여 경험 역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심리적 안녕감이나 긍정적 경력지표 역시 가장 낮게 보고하였으며, 재단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필요도를 보고함.

- 집단 2는 이직을 계획하는 퇴직자 전체 집단의 15.4%를 차지하며, 중장년 경력전환 핵심생애지표 중에서 경제, 건강관리, 경력지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높고, 불확실성에 대한 취약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양상을 보임.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가 우수한 수준을 보이는 바, “**경력재설계 우수형**”으로 명명함. 경력재설계 우수형에 속하는 개인은 여타 유형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연령 분포에서 60~64세의 비중이 가장 크고, 퇴직 사유에 있어서 정년퇴직과 같은 자발적 퇴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개의 집단 중에 유일하게 과반수가 넘는 개인들이 서울시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재단 사업에 참여한 경험 역시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 심리적 안녕감이나 긍정적 경력지표가 가장 높았으며, 재단에서 제공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필요도를 보고함.
- 집단 3은 이직을 계획하는 퇴직자 전체 집단의 69.2%를 차지하며, 중장년 경력전환 핵심생애지표 모든 값이 중위 수준의 양상을 띠고 있음. 전반적으로 지표값이 중간 수준을 보여, “**경력재설계 준비형**”으로 명명함. 경력재설계 준비형에 속하는 개인의 퇴직 사유는 다양한 양상을 보임. 서울시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과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중간 정도 수준을 보고함. 심리적 안녕감이나 긍정적 경력지표 역시 중위 수준을 나타냈으며, 재단 사업 전반에 대해 경력재설계 우수형 보다는 낮은 필요도를 보고함.

4. 40대 재직자와 퇴직자 잠재 집단별 특성 분석

- 이직을 준비하는 재직자와 퇴직자 집단에 대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 결과 재직자 집단 4개, 퇴직자 집단 3개가 도출되었음. 각 집단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연령이자 경력전환의 핵심적인 연령대인 40대의 집단별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함.

1) 40대 재직자 잠재 집단별 특성 분석

- 4대 재직자 경력설계 준비형, 경력설계 혼란형, 경력설계 위기형, 경력설계 우수형의 집단별 성별 분포 및 지역별 분포는 <표 4-23>와 <표 4-24>와 같음.

- 4개의 재직자 잠재 집단의 성별 분포 및 권역별 분포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4개의 재직자 잠재 집단의 자치구 분포의 차이는 유의하였는데, 경력설계 준비형은 구로구, 영등포구, 송파구에, 경력설계 혼란형은 송파구, 성북구, 강남구에, 경력설계 위기형은 강서구, 동대문구, 성북구에, 경력설계 우수형은 강남구, 마포구, 강동구에 분포하는 경향이 나타남.

<표 4-23> 40대 재직자 잠재 집단별 성별 및 지역별 분포(n=688)

개인 특성		경력설계 준비형	경력설계 혼란형	경력설계 위기형	경력설계 우수형	Total	χ^2		
성별	여성	279	100	13	26	418	3.09		
		62.6%	59.5%	48.1%	55.3%	60.8%			
	남성	167	68	14	21	270			
		37.4%	40.5%	51.9%	44.7%	39.2%			
권역	동남권	92	48	3	15	158	21.02		
		20.6%	28.6%	11.1%	31.9%	23.0%			
	동북권	123	43	12	8	186			
		27.6%	25.6%	44.4%	17.0%	27.0%			
	서북권	55	13	3	6	77			
		12.3%	7.7%	11.1%	12.8%	11.2%			
	도신권	18	5	2	5	30			
		4.0%	3.0%	7.4%	10.6%	4.4%			
	서남권	158	59	7	13	237			
		35.4%	35.1%	25.9%	27.7%	34.4%			
	Total		446	168	27	47		688	

〈표 4-24〉 40대 재직자 잠재 집단별 자치구 분포(n=688)

특성	경력설계 준비형	경력설계 혼란형	경력설계 위기형	경력설계 우수형	Total	χ^2		
자치구	강남구	22 4.9%	15 8.9%	0 0.0%	6 12.8%	43 6.3%	97.58*	
	강동구	24 5.4%	8 4.8%	1 3.7%	4 8.5%	37 5.4%		
	강북구	9 2.0%	3 1.8%	2 7.4%	1 2.1%	15 2.2%		
	강서구	24 5.4%	8 4.8%	3 11.1%	2 4.3%	37 5.4%		
	관악구	22 4.9%	9 5.4%	0 0.0%	2 4.3%	33 4.8%		
	광진구	19 4.3%	2 1.2%	1 3.7%	0 0.0%	22 3.2%		
	구로구	34 7.6%	13 7.7%	1 3.7%	1 2.1%	49 7.1%		
	금천구	8 1.8%	5 3.0%	1 3.7%	2 4.3%	16 2.3%		
	노원구	25 5.6%	8 4.8%	1 3.7%	2 4.3%	36 5.2%		
	도봉구	6 1.3%	0 0.0%	1 3.7%	2 4.3%	9 1.3%		
	동대문구	11 2.5%	7 4.2%	3 11.1%	0 0.0%	21 3.1%		
	동작구	19 4.3%	6 3.6%	0 0.0%	3 6.4%	28 4.1%		
	마포구	19 4.3%	3 1.8%	0 0.0%	5 10.6%	27 3.9%		
	서대문구	13 2.9%	4 2.4%	1 3.7%	1 2.1%	19 2.8%		
	서초구	16 3.6%	6 3.6%	1 3.7%	3 6.4%	26 3.8%		
	성동구	10 2.2%	3 1.8%	0 0.0%	0 0.0%	13 1.9%		
	성북구	18 4.0%	17 10.1%	3 11.1%	1 2.1%	39 5.7%		
	송파구	30 6.7%	19 11.3%	1 3.7%	2 4.3%	52 7.6%		
	양천구	18 4.0%	8 4.8%	0 0.0%	1 2.1%	27 3.9%		
	영등포구	33 7.4%	10 6.0%	2 7.4%	2 4.3%	47 6.8%		
	용산구	7 1.6%	3 1.8%	1 3.7%	2 4.3%	13 1.9%		
	은평구	23 5.2%	6 3.6%	2 7.4%	0 0.0%	31 4.5%		
	종로구	3 0.7%	1 0.6%	1 3.7%	3 6.4%	8 1.2%		
	중구	8 1.8%	1 0.6%	0 0.0%	0 0.0%	9 1.3%		
	종랑구	25 5.6%	3 1.8%	1 3.7%	2 4.3%	31 4.5%		
	전체	446	168	27	47	688		

- 4개의 재직자 잠재 집단인 경력설계 준비형, 경력설계 혼란형, 경력설계 위기형, 경력설계 우수형의 집단별 이직 사유 1순위 분포는 <표 4-25>와 같음.
 - 4개의 재직자 집단별 이직 사유 1순위를 분석했을 때, 모든 유형에서 '보수'를 1순위로 보고함. 경력설계 위기형은 근무 환경으로 인한 이직보다는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이직을 높게 보고함.

〈표 4-25〉 40대 재직자 이직 사유 1순위(n=688)

특성		경력설계 준비형	경력설계 혼란형	경력설계 위기형	경력설계 우수형	Total	χ^2
이직 사유	보수	209	70	13	22	314	54.30*
		46.9%	41.7%	48.1%	46.8%	45.6%	
	복리후생(휴가, 복지 등)	32	24	0	1	57	
		7.2%	14.3%	0.0%	2.1%	8.3%	
	근무환경	76	28	2	8	114	
		17.0%	16.7%	7.4%	17.0%	16.6%	
	동료나 상사와의 불화	17	6	1	2	26	
		3.8%	3.6%	3.7%	4.3%	3.8%	
	고용 불안정	46	16	4	2	68	
		10.3%	9.5%	14.8%	4.3%	9.9%	
	계약 종료	14	4	2	4	24	
		3.1%	2.4%	7.4%	8.5%	3.5%	
	구조조정 대비	9	4	2	0	15	
		2.0%	2.4%	7.4%	0.0%	2.2%	
	적성에 맞지 않음	14	2	2	0	18	
		3.1%	1.2%	7.4%	0.0%	2.6%	
	출퇴근 거리	14	5	0	2	21	
		3.1%	3.0%	0.0%	4.3%	3.1%	
	건강이 좋지 않음	4	0	0	0	4	
		0.9%	0.0%	0.0%	0.0%	0.6%	
가족 돌봄(육아, 가사 부담 등 포함)	5	3	0	2	10		
	1.1%	1.8%	0.0%	4.3%	1.5%		
기존 직장을 그만둠	2	1	1	2	6		
	0.4%	0.6%	3.7%	4.3%	0.9%		
기타	4	5	0	2	11		
	0.9%	3.0%	0.0%	4.3%	1.6%		
전체		446	168	27	47	688	

- 4개의 재직자 잠재 집단인 경력설계 준비형, 경력설계 혼란형, 경력설계 위기형, 경력설계 우수형의 퇴직대비 준비에 대한 응답 분포는 <표 4-26>과 같음.
 - 4개의 재직자 잠재 집단 모두 ‘스스로 재취업/창업 관련 정보습득’을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경력설계 위기형의 경우, ‘퇴직 전 경력관리’를 한다는 응답이 없었으며, ‘자격증 취득’이라는 응답이 절반밖에 되지 않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6%이었음. 반면, ‘지속적인 구직시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표 4-26> 40대 재직자 잠재 집단별 퇴직 준비(n=688)

특성		경력설계 준비형	경력설계 혼란형	경력설계 위기형	경력설계 우수형	Total	x ²
퇴직 준비	스스로 재취업/창업 관련 정보습득	156	54	6	13	229	55.08*
		35.0%	32.1%	22.2%	27.7%	33.3%	
	취업/창업 박람회	24	12	2	1	39	
		5.4%	7.1%	7.4%	2.1%	5.7%	
	취업상담, 교육훈련(공공기관)	17	8	0	2	27	
		3.8%	4.8%	0.0%	4.3%	3.9%	
	취업상담, 교육훈련(민간업체)	14	5	0	0	19	
		3.1%	3.0%	0.0%	0.0%	2.8%	
	퇴직 전 경력관리	59	19	0	8	86	
		13.2%	11.3%	0.0%	17.0%	12.5%	
	자격증 취득	55	25	2	7	89	
		12.3%	14.9%	7.4%	14.9%	12.9%	
	학교 진학(대학원, 방송통신대학교, 기술직업학교 등)	7	5	1	2	15	
		1.6%	3.0%	3.7%	4.3%	2.2%	
	지속적인 구직 시도	55	17	5	9	86	
		12.3%	10.1%	18.5%	19.1%	12.5%	
노후준비 상담(공공기관)	1	2	0	1	4		
	0.2%	1.2%	0.0%	2.1%	0.6%		
저축, 연금, 부동산 투자	27	8	2	1	38		
	6.1%	4.8%	7.4%	2.1%	5.5%		
온라인, 오프라인 상 인맥관리	9	3	1	2	15		
	2.0%	1.8%	3.7%	4.3%	2.2%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음	21	10	8	1	40		
	4.7%	6.0%	29.6%	2.1%	5.8%		
기타	1	0	0	0	1		
	0.2%	0.0%	0.0%	0.0%	0.1%		
전체		446	168	27	47	688	

- 4개의 재직자 잠재 집단인 경력설계 준비형, 경력설계 혼란형, 경력설계 위기형, 경력설계 우수형의 중장년 정책에 대한 인식과 참여 경험에 대한 응답 분포는 <표 4-27>과 같음.
 - 경력설계 혼란형의 경우 서울시 중장년 정책에 대해서 들어보았다는 응답이 과반수가 가깝게 높았고, 경력설계 준비형이 가장 낮은 인식을 보였음. 중장년 집중지원 관련 재단 사업에 참여 경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이직을 준비하는 40대 재직자 중 서울시 중장년 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261명에게 복수 응답을 가능하도록 하고, 어떤 경로로 해당 정책을 알게 되었는지 질문했을 때, '지하철 역사, 옥외 전광판 등,'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 매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서울런4050, 서울시50플러스재단 등 홈페이지,' '유튜브, 네이버TV 등 동영상 서비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연결망(SNS),' '시내버스,'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순으로 응답함.
 - 이직을 준비하는 40대 재직자 중 재단 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61명에게 복수 응답을 가능하도록 하고, 어떤 사업에 참여했는지를 물었을 때, 취업지원서비스, 경력 전환 지원, 사회공헌 일자리, 생애설계진단 및 상담에 대한 응답이 높은 편이었고, 디지털전환교육, 40대 특화 직업전환 전문교육에 대한 참여 경험 응답은 낮았음.

<표 4-27> 40대 재직자 잠재 집단별 중장년 정책에 대한 인식과 참여 경험(n=688)

개인 특성		경력설계 준비형	경력설계 혼란형	경력설계 위기형	경력설계 우수형	Total	χ^2
중장년 정책	들어본 적 있다.	153	80	10	18	261	9.20*
		34.3%	47.6%	37.0%	38.3%	37.9%	
	들어본 적 없다.	293	88	17	29	427	
		65.7%	52.4%	63.0%	61.7%	62.1%	
재단 사업	참여한 적 있다.	34	21	2	4	61	3.68
		7.6%	12.5%	7.4%	8.5%	8.9%	
	참여한 적 없다.	412	147	25	43	627	
		92.4%	87.5%	92.6%	91.5%	91.1%	
Total		446	168	27	47	688	

2) 40대 퇴직자 잠재 집단별 특성 분석

- 3개의 퇴직자 잠재 집단인 경력재설계 위기형, 경력재설계 준비형, 경력재설계 우수형의 집단별 성별 분포 및 지역별 분포는 <표 4-28>과 같음.

- 3개의 퇴직자 잠재 집단 성별 분포의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경력재설계 준비형은 대다수가 남성(92.9%)로 나타났으며, 경력재설계 위기형의 경우 여성(31.0%)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3개의 퇴직자 잠재 집단의 권역별 분포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표 4-28> 40대 퇴직자 잠재 집단별 성별 및 지역별 분포(n=205)

개인 특성		경력재설계 위기형	경력재설계 준비형	경력재설계 우수형	Total	χ^2
성별	여성	9	2	34	45	5.07
		31.0%	7.1%	23.0%	22.0%	
	남성	20	26	114	160	
		69.0%	92.9%	77.0%	78.0%	
권역	동남권	5	4	29	38	8.04
		18.5%	14.3%	20.3%	19.2%	
	동북권	10	16	52	78	
		37.0%	57.1%	36.4%	39.4%	
	서북권	3	1	14	18	
		11.1%	3.6%	9.8%	9.1%	
	도신권	0	0	9	9	
		0.0%	0.0%	6.3%	4.5%	
	서남권	9	7	39	55	
		33.3%	25.0%	27.3%	27.8%	
Total		29	28	148	205	

- 3개의 퇴직자 잠재 집단인 경력재설계 위기형, 경력재설계 준비형, 경력재설계 우수형의 집단별 퇴직 사유의 분포는 <표 4-29>과 같음.

- 3개의 퇴직자 집단별 퇴직 사유는 집단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

〈표 4-29〉 40대 퇴직자 잠재 집단별 퇴직 사유(n=205)

특성		경력재설계 위기형	경력재설계 준비형	경력재설계 우수형	Total	χ^2
퇴직 사유	정년퇴직 이외 사유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	1	4	14	19	22.96
		3.4%	14.3%	9.5%	9.3%	
	직장의 휴업, 폐업	4	1	22	27	
		13.8%	3.6%	14.9%	13.2%	
	부모 돌봄	2	2	4	8	
		6.9%	7.1%	2.7%	3.9%	
	건강 상 이유	6	2	13	21	
		20.7%	7.1%	8.8%	10.2%	
	소속되었던 직장의 조건 (연봉, 근무 환경 등) 불만족	4	6	27	37	
		13.8%	21.4%	18.2%	18.0%	
	기타	0	3	20	23	
		0.0%	10.7%	13.5%	11.2%	
	자녀 돌봄 (자녀 출산, 교육 등)	7	10	33	50	
		24.1%	35.7%	22.3%	24.4%	
부모, 자녀 외 가족 돌봄(손자녀 교육 등)	0	0	4	4		
	0.0%	0.0%	2.7%	2.0%		
자아실현 및 자기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음	5	0	11	16		
	17.2%	0.0%	7.4%	7.8%		
전체		29	28	148	205	

- 3개의 퇴직자 잠재 집단인 경력재설계 위기형, 경력재설계 준비형, 경력재설계 우수형의 집단별 서울시 중장년 정책에 대한 응답 분포는 〈표 4-30〉과 같으며, 집단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
 - 40대 퇴직자 중 서울시 중장년 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77명에게 복수 응답을 가능하도록 하고, 어떤 경로로 해당 정책을 알게 되었는지 질문했을 때, '서울런 4050, 서울시50플러스재단 등 홈페이지'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지하철 역사, 옥외 전광판 등,'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 매체'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시내버스,'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유튜브, 네이버TV 등 동영상 서비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연결망(SNS),' 순으로 응답함.

〈표 4-30〉 40대 퇴직자 잠재 집단별 중장년 정책에 대한 인식(n=205)

개인 특성		경력재설계 위기형	경력재설계 준비형	경력재설계 우수형	Total	χ^2
중장년 정책	들어본 적 있다.	6	13	58	77	4.63
		20.7%	46.4%	39.2%	37.6%	
	들어본 적 없다.	23	15	90	128	
		79.3%	53.6%	60.8%	62.4%	
재단 사업	참여한 적 있다.	0	5	12	17	5.60
		0.0%	17.9%	8.1%	8.3%	
	참여한 적 없다.	29	23	136	188	
		100.0%	82.1%	91.9%	91.7%	
Total		29	28	148	205	

제4절 결론 및 제언

1. 결론

- 이 연구는 중장년 경력전환기를 맞아 서울시 중장년 정책 사업 및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 서비스 이용 집단을 유형화하고 특성을 분석함.
 -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재직자 1,287명과 퇴직자 534명에 대해, 중장년 경력전환기 핵심생애지표로 경제 수준, 건강관리, 심리(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경력(경력정체성)지표들을 고려하여 집단을 유형화함.
- 상기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잠재 프로파일 분석과 잠재 집단별 특성을 분석함.
 - 재직자와 퇴직자 집단 각각에 대해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고, 적절한 집단 수를 결정함.
 - 재직자와 퇴직자 집단에 대해서 각각 도출된 잠재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중장년 정책에 대한 인식과 참여 경험 등을 분석함.
 - 추가적으로 경력전환의 주요 대상인 40대 재직자와 퇴직자 집단 각각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분포, 중장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인식 및 참여도 수준을 확인함.
- 잠재 프로파일 분석 결과 재직자 집단은 4개의 잠재 집단이 도출됨.
 - 재직자 집단은 **경력설계 준비형**, **경력설계 혼란형**, **경력설계 위기형**, **경력설계 우수형**의 4개의 잠재 집단이 도출됨.
 - 첫째, **경력설계 준비형**은 경력전환의 핵심생애지표인 경제 수준, 건강관리, 심리, 경력지표 값들이 모두 중위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 집단은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심리적 안녕감과 긍정적 경력지표는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중간 정도의 수준을 나타냄. 재단 사업에 대한 낮은 필요도를 보고함.
 - 둘째, **경력설계 혼란형**은 중장년 경력전환 핵심생애지표 중에서, 경제, 건강관리, 경력지표 값이 긍정적으로 높으면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취약성 또한 높게 나타남. 높은 경제 및 건강관리 수준과 함께 심리지표는 낮게 나오는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경력설계 혼란형은 서울시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나 재

단 사업에 참여한 경험은 적게 보고함. 심리적 안녕감과 긍정적 경력지표는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을 나타냄. 재단 사업에 대해 높은 필요도를 보고함.

- 셋째, **경력설계 위기형**은 중장년 경력전환 핵심생애지표의 모든 값이 낮은 수준을 보임. 경력설계 위기형은 남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40~44세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서울시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과 재단 사업 참여 경험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음. 심리적 안녕감과 긍정적 경력지표는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을 나타냄. 재단 사업에 대해 낮은 필요도를 보고함.

- 넷째, **경력설계 우수형**은 중장년 경력전환 핵심생애지표 중 경제, 건강관리, 경력지표는 긍정적으로 높고, 불확실성에 대한 취약함은 낮게 나타남. 경력설계 우수형의 경우, 서울시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 및 재단 사업 참여 경험이 가장 높았음. 심리적 안녕감과 긍정적 경력지표 역시 높은 수준을 나타냄. 재단 사업에 대해 높은 필요도를 보고함.

● **잠재 프로파일 분석 결과 퇴직자 집단은 3개의 잠재 집단이 도출됨.**

- 퇴직자 집단은 **경력재설계 위기형, 경력재설계 우수형, 경력재설계 준비형**의 3개 잠재 집단이 도출됨.

- 첫째, **경력재설계 위기형**은 중장년 경력전환의 핵심생애지표 중에서 경제, 건강관리, 경력지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불확실성에 대한 취약성은 중위값을 보임. 경력재설계 위기형은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50~54세의 비중이 높은 편임. 경력재설계 위기형의 퇴직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 부모 돌봄, 가족 돌봄, 직장의 및 휴업 및 폐업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의 비중이 높음. 경력재설계 위기형은 서울시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과 재단 사업에 참여 경험이 낮으며, 심리적 안녕감과 긍정적 경력지표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 재단 사업에 대해 가장 낮은 필요도를 보고함.

- 둘째, **경력재설계 우수형**은 경력전환의 핵심생애지표 중 경제, 건강관리, 경력지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높고, 불확실성에 대한 취약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양상을 보임. 경력재설계 우수형은 남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연령 분포에서 60~64세의 비중이 가장 크고, 퇴직 사유에 있어서 정년퇴직과 같은 자발적 퇴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과반수 이상이 서울시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재단 사업에 참여한 경험 역시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 심리적 안녕감이나 긍정적 경력지표가 가장 높았으며, 재단 사업에 대해 가장 높은 필요도를 보고함.

- 셋째, **경력재설계 준비형**은 중장년 경력전환 핵심생애지표의 모든 값에서 중위 수준을 보고함. 경력재설계 준비형의 퇴직 사유는 다양한 양상을 보임. 서울시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과 참여도는 중간 정도 수준을 나타냄. 심리적 안녕감이나 긍정적인 경력지표 역시 중위수준을 나타냈으며, 재단 사업 전반에 대해 경력재설계 우수형 보다는 낮은 필요도를 보고함.
- 재직자와 퇴직자 집단의 잠재 집단에서 심리지표(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발견함.
 - 재직자 잠재 집단에서 **경력설계 우수형**과 **경력설계 혼란형**은 전반적으로 경제, 건강 관리, 경력지표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두 유형 간의 구분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차이에서 비롯됨. 경력설계 우수형은 불확실성에 대한 취약성이 낮아 모든 지표들이 긍정적이었던 반면, 경력설계 혼란형은 불확실성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 심리지표에서 부정적인 양상을 나타냄.
 - 퇴직자 잠재 집단의 경력재설계 위기형, 경력재설계 준비형, 경력재설계 우수형의 잠재 집단은 경제, 건강관리, 경력지표 값에서 상, 중, 하로 구분되는 반면, 심리지표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3개의 잠재 집단 모두 중위 수준으로 수렴하는 양상을 나타냄.
- 중장년 경력전환의 주요 세대인 40대의 재직자와 퇴직자의 잠재 집단별 특성을 분석함.
 - 40대 재직자 잠재 집단에 따라 자치구별 분포의 차이가 있었는데, 경력설계 준비형은 구로구, 영등포구, 송파구에 주로 분포하였고, 경력설계 혼란형은 송파구, 성북구, 강남구에, 경력설계 위기형은 강서구, 동대문구, 성북구에, 경력설계 우수형은 강남구, 마포구, 강동구에 주로 분포함.
 - 40대 재직자 잠재 집단에 따라 이직 사유 1순위를 분석했을 때, 모든 유형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했고, 경력설계 위기형은 근무환경보다 고용불안정을 주요 이직 사유로 보고함.
 - 40대 재직자 잠재 집단에 따른 퇴직 준비를 분석했을 때, 모든 유형에서 ‘스스로 재취업/창업 관련 정보습득’을 가장 많이 보고함. 경력설계 위기형의 경우 퇴직 전 경력관리를 한다는 응답은 없었고, 퇴직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도 많았음. 자격증 취득을 한다는 응답 역시 적었지만, 지속적으로 구직을 시도한다는 응답은 많았음.

- 40대 재직자 잠재 집단 중 경력설계 혼란형의 절반 정도가 서울시 중장년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경력설계 준비형은 낮은 인식을 보였음. 중장년 정책 참여 역시 경력설계 혼란형이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높은 참여율을 보였음.
- 40대 재직자들은 재단 사업에 중예 취업지원서비스, 경력 전환 지원, 사회공헌 일자리, 생애설계진단 및 상담에 대한 응답이 높은 편이었고, 디지털전환교육, 40대 특화 직업전환 전문교육에 대한 참여 경험 응답은 낮았음.
- 40대 퇴직자 잠재 집단에 따른 특성을 분석했을 때, 성별, 연령, 퇴직 사유, 퇴직 준비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없었음.
- 40대 재직자와 퇴직자 집단 중 서울시 중장년 정책을 알고 있는 응답자들에게, 인지 경로를 확인함. 재직자 집단은 '지하철 역사, 옥외 전광판 등,'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 매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퇴직자 집단은 '서울런4050, 서울시50플러스재단 등 홈페이지'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2. 실무적 제언

- 이직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경력지원에 있어, 불확실성에 대한 취약성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재직자 잠재 집단 중 경력설계 우수형은 모든 경력전환 핵심생애지표 수준이 적응적이었던 반면, 경력설계 혼란형은 경제, 건강관리, 경력지표 수준이 높으면서 동시에 불확실성에 대한 취약성 또한 높은 유형임. 이는 자원이 많은 집단에서도 심리 역량이 상이한 하위 집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함.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대한 국내 연구를 메타분석한 류지은(2019)은 불확실성에 대한 취약성이 높을 경우, 불확실성에 대해 개인이 어떤 대처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어떤 진로자원과 강점을 발휘할 때 불확실함에서 오히려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지 개인의 대처과정을 조력해야 한다고 제언함. 따라서 경력설계 혼란형을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불확실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고, 이에 어떤 대처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차별적으로 점검하고, 불확실성이란 위기변수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혹은 불확실성을 건강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음.

- 재직자와 퇴직자의 잠재 집단별 심리적 안녕감과 긍정적 경력발달 결과 변인은 대체로 지표 변인들의 수준이 긍정적일수록 높게 나타났음.
 - 이는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중장년 경력전환기 핵심생애지표 수준이 긍정적일수록, 삶에 만족하고 삶의 의미를 높게 경험하며, 유연한 학습태도를 보임을 시사함. 퇴직자의 경우 미래 고용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함. 이에, 재직자와 퇴직자 집단이 중장년 경력전환기 핵심생애지표에서 적응적인 수준을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재직자와 퇴직자 잠재 집단 모두 핵심생애지표 수준이 긍정적일수록 재단에 대한 인식이 높고 사업 참여 경험 역시 높았음. 높은 역량을 가진 재직자와 퇴직자들의 높은 인식과 참여를 강화하여 경력전환의 멘토를 양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 재직자와 퇴직자 집단 가운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들의 경력전환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고, 이러한 개인들을 멘토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 경력전환의 멘토들은 위기 집단의 참여를 격려하고, 서울시 중장년 정책을 알리는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 재직자와 퇴직자 잠재 집단별 재단 사업 수요를 분석했을 때, 경력설계 위기형과 경력재설계 위기형의 재단 사업에 대한 필요도가 낮았음.
 - 전반적으로 핵심생애지표 수준이 부정적일수록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시사함. 이에, 중장년을 위한 서비스를 안내할 때, 개인들이 자신의 부족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간이 체크리스트(스크리닝 척도)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겠음.
- 이직을 준비하는 40대에게 서울시 중장년 정책과 서비스를 홍보할 때, 재직자와 퇴직자에 대한 홍보의 수단을 다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40대 재직자는 서울시 중장년 정책을 ‘지하철 역사, 옥외 전광판 등,’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이는 출퇴근 등의 이동시간에 노출되는 광고나 전통적인 언론 매체가 이들에게 여전히 주요한 정보원임을 알 수 있고, 이들을 통한 홍보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 40대 퇴직자 집단의 경우 ‘서울런4050, 서울시50플러스재단 등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울시 중장년 정책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퇴직자 집단에게는 인터넷 검색이 정보 획득의 주요 수단임을 시사하며, 이에 서울시 4050,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효과적일 수 있겠음.

- 40대 재직자와 퇴직자의 잠재 집단별로 주요 이직 사유, 퇴직 사유, 그리고 퇴직 준비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줌.
 - 이는 재직자와 퇴직자 각각 처한 여건과 핵심생애지표 수준에 따라, 미래 경력에 대한 일 가치관, 준비도가 다르며,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함.
 - 재직자 잠재 집단 중 경력설계 위기형의 경우 다른 유형과 달리 고용불안정이 주요 이직 사유였고, 퇴직준비와 관련해서는 관련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위기형에 속하는 개인일수록 단기적인 목표에 주목하고, 자격증 취득이나 구체적인 경력관리 보다는 당장의 구직 시도만을 빈번하게 하는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임. 이에, 역량이 낮은 개인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장기적인 경력개발 목표를 수립하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과 자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겠음.

3. 학술적 제언

- 이직을 준비하는 재직자와 퇴직자 잠재 집단의 구분에서 심리지표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차이가 주요했음. 중장년 경력전환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이들의 경력발달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다양한 추가 학술연구가 필요함.
 - 재직자 집단은 '퇴직'이라는 주요 사건을 언제 경험할지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어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유형별로 다양할 수 있음. 하지만, 퇴직자 집단의 경우 이미 '퇴직'이란 사건을 과거에 경험하였기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 재직자와 퇴직자 집단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상이한 양상을 보인 결과가 이 연구에 한정하여 나타난 결과인지, 후속연구를 통한 반복 검증이 필요함. 아울러, 과거 재직자들에게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이외에도 어떤 심리지표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지 추가 탐색이 필요하겠음.
- 이 연구에서 고려한 생애지표들 이외에도, 중장년 경력전환기 핵심생애지표들이 어떠한지 보다 심층적인 질적 탐구를 시도하고, 이를 근거로 중장년층 유형화 연구를 후속해 볼 수 있음.

- 이 연구가 고려한 경제, 건강관리, 심리, 경력지표들 이외에도, 실제 중장년층들을 삶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무엇이 중년기 경력전환 과정에서 핵심생애지표로 작용하는지 규명하는 질적 연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를 근거로, 중년기 경력전환 과정의 핵심생애지표를 개발하고, 하위 집단을 유형화하여 맞춤형 전략을 구체화한다면, 중년기 경력지원과 관련하여 유용한 함의점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문헌

▣ 2장 참고문헌

- 강소랑, 양안나, 양인, 김태완, 서인석, 지은정, 최수정, 정성지, 한창목, 김민정. (2020).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심층 분석 보고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
- 박지원, 권기범, 우혜정, 한지영, 이수진 (2022). **중장년 고용취약계층의 경력개발을 위한 경력역량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임소현. (2023).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실태 조사**.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임소현, 이승엽, 이영광. (2022). **중장년 생애설계준비지표 개발**. 서울시50플러스재단.
- Asparouhov, T., & Muthén, B. (2012). Using Mplus TECH11 and TECH14 to test the number of latent classes. *Mplus Web Notes*, 14.
- Berlin, K. S., Williams, N. A., & Parra, G. R. (2014).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Overview and cross-sectional latent class and latent profile analys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9(2), 174-187.
- Geiser, C. (2019). *Data Analysis with Mplus*. The Guilford Press.
- Muthén, L. K., & Muthén, B. O. (2010). *Mplus user's guide: statistical analysis with latent variables* (6th ed.). Muthén & Muthén.
- Nylund-Gibson, K. and A.Y. Choi. (2018). Ten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Latent Class Analysis. *Transitional Issues in Psychological Science* 4(4), 440-461.
- Tofighi, D., & Enders, C. K. (2008). Identifying the correct number of classes in growth mixture models. In Hancock, G., & Samuelsen, K. (Eds.), *Advances in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s*, 317-341. Information Age Publishing.

▣ 3장 참고문헌

- 강혜정. (2021). 진로적응모형의 적용 가능성 탐색: 한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연구**, 34(1), 25-41.

- 김나래. (2022). 직장인의 주도성과 일 의미 관계에서 진로적응성, 잡 크래프팅의 매개효과: 진로구성 이론 적응모형을 기반으로. **진로교육연구**, 35(1), 1-22.
- 김미령. (2022). 중년기 여성의 진로전환: '사람을 돕는 직업군(Helping professions)'의 진로생애사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61(1), 87-126.
- 김민선, 고은영. (2020). 한국판 진로적응성 단축형척도(K-CAAS-SF) 타당화. **교원교육**, 36(4), 261-281.
- 김희선, 왕은자. (2022).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40대 여성 창업가의 진로 전환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여성**, 27(3), 217-239.
- 박선영, 유현실. (2019). 사무직 중년 남성의 퇴직과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 **상담학연구**, 20(6), 247-271.
- 박선영. (2023). 사무직 중년 여성의 퇴직과 진로구성 이야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7), 685-704.
- 박현미, 유나현. (2023). 대학생의 진로 자기의심과 정서지능이 삶의 만족과 진로 만족에 미치는 영향: 진로적응모형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20), 557-571.
- 배선희, 손은령. (2022). 한 중년전환기 직장인의 장기근속 후 이직 결정 경험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1), 315-332.
- 신윤정, 이은설. (2018). 대학생의 조절초점과 진로결정효능감 간의 관계 내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적응의 진로구성모형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1(2), 91-112.
- 안후남, 김연홍. (2019). 신중년 직장 남성의 진로구성 경험에 관한 연구 -386세대 중심으로. **성인계속교육연구**, 10(3), 23-41.
- 안후남, 이제경. (2016). 중년전환기 남성의 진로구성에 관한 연구 - 삶의 영역, 전환과 적응중심으로.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IJACE)**, 19(2), 91-122.
- 안후남, 이제경. (2017). 중년전환기 기혼직장여성의 진로구성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8), 363-389.
- 이기쁨, 김희수. (2022). 상담자로서의 진로전환 과정 연구: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연구**, 35(3), 83-110.
- 이미애, 탁진국. (2022). 직장인의 생애경력적응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5(2), 113-153.

- 이시현, 이제경. (2023). 진로 전환기 중년여성의 진로구성 상담 사례연구. **상담학연구: 사례및실제**, 8(2), 1-30.
- 이은주, 이지연. (2020). 50대 중년남성의 은퇴불안 적응과정 연구.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0(4), 371-403.
- 임도영, 김성길. (2020).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 연구에 관한 통합적 문헌고찰 : 구성주의진로이론의 진로적응모형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3(2), 111-132.
- 임소현, 이승엽, 이영광. (2022). **중장년 생애설계준비지표 개발**.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장계영, 김봉환. (2011).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2(2), 539-558.
- 탁진국, 임그린, 이은주. (2015). 경력적응성 척도의 타당화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8(4), 591-608.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Chen, G., Gully, S. M., & Eden, D. (2001). Validation of a 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4(1), 62-83.
- Diener, E., Emmons, R. A., Larso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Freeston, M. H., Ladouceur, R., Thibodeau, N., & Gagnon, F. (1994).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obsessive thoughts: A controlled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2), 366-372.
- Hirishi, A., Hermann, A., & Keller, A. C. (2015). Career adaptability, a predictor of career suc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8, 20-29. <https://doi.org/10.1016/j.jvb.2015.02.007>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Guilford Press.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 Loehlin, J. C. (2004). *Latent variable models: An introduction to factor, path, and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4th ed.). Psychology Press.
- Savickas, M. L. (2002). Career construction: A developmental theory of vocational behavior. In D. Brown (Ed.),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4th ed., pp. 149-205). Jossey-Bass.
-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 42-70). John Wiley & Sons.
- Savickas, M. L. (2013). Career construction theory and practice. In R. W. Lent & S. D. Brown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2nd ed., pp. 147-183). John Wiley & Sons.
- Savickas, M. L., & Porfeli, E. J.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 Construction, reliability, and measurement equivalence across 13 countr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3), 661-673. <https://doi.org/10.1016/j.jvb.2012.01.011>
- Tak, J.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Korea for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3), 712-715. <https://doi.org/10.1016/j.jvb.2012.01.014>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Sage Publications.

▣ 4장 참고문헌

- 권정연. (2011).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기업에서 개인의 창의성 성향이 조직의 창의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폐기학습과 흡수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연경, 정송, 홍세희. (2014).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아동·청소년 비행 유형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5*(4), 211-240.

- 류지은. (2019).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대응에 관한 메타분석: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계획된 우연 기술을 중심으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1(4), 73-100.
- 서현주. (2022). **중장년 고용가능성검사 개발 및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진아. (2022). 여성 근로자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 괜찮은 일, 그리고 이직의도: 일의 심리학 이론의 적용. **진로교육연구**, 35(2), 89-111.
- 윤 미, 김형빈. (2021). 중장년층의 재취업 의지에 관한 경로분석: 사회적 및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진로창업경영** 5(1), pp. 53-87.
- 이현주, 박진영. (2020). 중장년층의 제2 인생설계를 위한 핵심역량 모델 개발 및 교육 요구 분석. **평생교육·HRD 연구**, 16(1), 49-86.
- 이슬아, 표소휘, 남보라, 이유영, 양은주. (2023). 괜찮은 일 획득에서의 성별 차이: 한국 청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의 심리학 모형의 다집단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9(1), 101-123.
- 임소현, 이승엽, 이영광. (2022). **중장년 생애설계준비지표 개발**. 서울시50플러스재단.
- 홍세희. (2020). **Program 3: 잠재계층, 잠재전이, 성장혼합모형**. 박영사.
- Asparouhov, T., & Muthe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Using the BCH method in Mplus to estimate a distal outcome model and an arbitrary secondary model. *Mplus Web Notes*, 21, 1-23.
- Bergman, L. R., & Magnusson, D. (1997).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2), 291-319.
- Berlin, K. S., Williams, N. A., & Parra, G. R. (2014).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part 1): Overview and cross-sectional latent class and latent profile analysi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9(2), 174-187.
- Blustein, D. L., Lysova, E. I., & Duffy, R. D. (2023). Understanding decent work and meaningful work. *Annual Review of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Organizational Behavior*, 10, 289-314.
- Chin, T., Jawahar, I. M., & Li, G. (202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career sustainability scal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9(4), 769-787.

- Collins, L. M., & Lanza, S. T. (2010).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Vol 718). Wiley.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uffy, R. D., Blustein, D. L., Diemer, M. A., & Autin, K. L. (2016). The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3(2), 127-148
- Freeston, M., Rhe´aume, J., Letarte, H., Dugas, M. J., & Ladouceur, R. (1994). Why do people worry?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17, 791-802.
- Hall, D.T., & Mirvis, P. H. (1996). The new protean career: Psychological success and the path with a heart. In D.T. Hall (Ed.), *The Career is Dead - Long Live the Career*, pp.15-45. Jossey-Bass Publishers.
- Kreuter, F., Yan, T., & Tourangeau, R. (2008). Good Item or Bad-Can Latent Class Analysis Tell?: The Utility of Latent Class Analysis for the Evaluation of Survey Question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171, 723-738.
- Kim, J.-H., Kim, H. J., Duffy, R. D., & Lee, K.-H. (2024). Relative Importance of Work Need Satisfaction Among Working Adults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2(3), 504-521. <https://doi.org/10.1177/10690727231205300>.
- Liu, W. M., Ali, S. R., Soleck, G., Hopps, J., Dunston, K., & Pickett, T. (2004). Using social clas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3-18
- Mendolia, S. (2014). The impact of husband's job loss on partners' mental health.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12(2), 277-294.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80-93.
-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282-298.
- Verbruggen, M. (2008). Can career self-directedness be improved through counsel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3(2), 318-327. <https://doi.org/10.1016/j.jvb.2008.07.001>

서울시50플러스 2024-006

서울시 중장년 생애설계준비 심층분석 II

발행일 2024년 7월
발행인 대표이사 직무대행 서울시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편집인 강소랑
연구진 임소현, 김태선, 안진아, 이은설, 정애경, 최계원
발행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복지타운 3층
02)460-5050(대)
ISBN 979-11-93313-07-7 (15310)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www.50plus.or.kr

비매품/무료

15310



9 791193 313077

ISBN 979-11-93313-07-7

(PDF)